

# 자립 자립 분절음 음운론

이 병 건

## ①. 들머리에

이 글에서는 자립 분절음(autosegment), 더 좁게는 성조 자립 분절음(tonal autosegment)이 포함되는 음운론적 표시(phonological representation)의 구조가 Goldsmith(1976)로 대표되는 종래의 것과는 달라져야 하며, 이러한 다른과 그에 따르는 변화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자립 분절음층(autosegmental tier)의 자립성뿐만 아니라, 성조의 보다 자연스러운 기술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자립 분절음층에서 단 하나의 성조(tone)가 하나 이상의 성조 소지 단위(Tone-bearing Unit: TBU)를 지배 할 수 있는 종래의 체계와는 달리, 이 글에서는 각각의 TBU가 그 자체의 성조를 가지며, 성조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을 때에는 빈 자리(empty slot)를 가진다는 체계를 내세운다.

성조 언어에서 종래의 파치 액센트(pitch-accent) 언어와 강세 액센트(stress-accent) 언어이던 것은 핵성조(Core-tone) 언어로, 참 성조(true tone) 언어이던 것은 비핵성조(Non-core-tone) 언어로 두 유형(typology)으로 분류된다. 핵성조 언어는 그것으로부터 매개 변수(parameters)를 언어마다 각기 택 할 수 있는 보편적인(universa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Polarity Tone Assignment)을 가지며, 반면에 비핵성조 언어는 성조 투사 규칙(Tone Mapping Rule)을 갖는다. 그리고 핵·비핵성조 언어가 다 같이 보편적인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Autosegment Spreading)을 갖는다.

종래의 추상적 액센트 표지(abstract accent marker)의 방도는 어휘상으로(lexically) 핵성조가 미리 연결되는 방안에 의해서 대처되는 바, 이 핵성조가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의 구조 기술(structural description)에서 기준점이 된다. 물론 핵성조 언어라 하더라도, 핵성조가 어휘상으로 미리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 영어 같은 강세 액센트 언어 외에는, 보편적인 핵성조 부여 규칙에 의해서 핵성조가 부여된다.

Pulleyblank(1983)의 부재 자질 규칙(Default Rules)의 방식이 옳지 못함도 밝혀진다.

이와 같이, §1에서는 주로 이론적인 면이 탐구되며, 이 이론의 정립을 위해서 많은 자료와 증거가 경상남도 고성군의 고성 방언과 15세기 한국어에서 이용된다. 따라서, §2와 §3은 이 두 언어의 사례(case) 연구인 바, §1에서 보인 이론의 시험장(testing ground)으로서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자료가 되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 1. 자립 자립분절음 음운론

### 1.1. 자립 분절음층의 자립성

<sup>12</sup> 표면 표시(surface representation)에서 뿐만 아니라, 기저 표시(underlying representation)에서도, 아니, 도출(derivation)의 모든 단계에서 문자 그대로의 자립 분절음층의 자립성이 필요하며, 또한 이 자립성의 성취가 곧 자연 쓰러움을 이루하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자립 분절음층은 P-소지 단위(P-bearing Unit: PBU)와 일대일로 연결된(associated) 자리들(slots)의 연속(sequence)으로 표시되며, 이 자리들은 자립 분절음이 이미 부여된(assigned) 것과 빈(empty)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자립 분절음층이 자립 분절음이 부여된 자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빈 자리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성조를 다루고 있는 만큼, 자립 분절음이 성조인 경우에, 성조가 부여된 자리는 H 또는 L 등으로, 빈 자리는 OH로 표시된다. 그리고 단일 TBU가 하나 이상의 자리에 연결될 수는 있으나, 그 역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이 글의 주장을 쫓는 기저 표시와 그 도출의 예를, §2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정연찬(1977)을 토대로 한 경상남도 고성군의 고성 방언으로 보아, 면, 다음과 같다.(이 예는 어간 *əlisuk*(愚)과 접미사 *-ko*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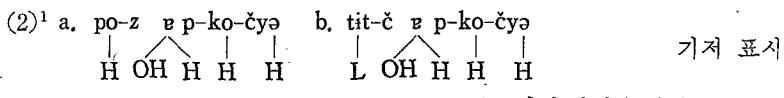
(1)	<i>ə l i s uk-ko</i>	기저 표시
	OH OH H OH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9)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L L H L	표면 표시

기저 표시에서의 H는, 예측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휘상으로 부여된 것으로, Goldsmith(1976)나 Haraguchi(1977)의 추상적 액센트 표지를 대신하는 것이다(cf. Hyman: 1982b, c; Pulleyblank: 198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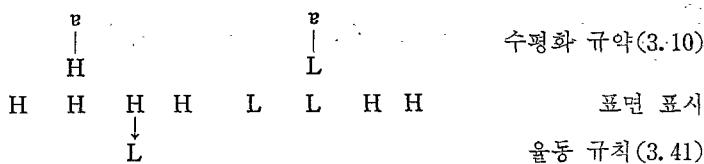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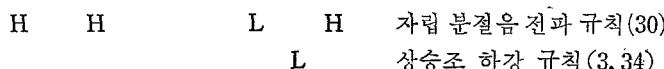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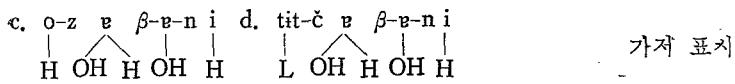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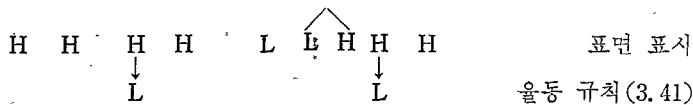
어휘상으로 성조가 부여되지 않은 성조 소지 단위가 모두 OH를 갖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자 한다. 김완진(1977)을 토대로 한 15세기 한국어에서의 겹양의 접미사 *svp*(이의 이형태(allomorph)는 *zvp*, *čvp*, *čvβ*

등이 있다)을 포함하는 단어들을 살펴 보고자 하는 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글의 주장의 테두리 안에서는 *snp*의 어휘상의 표시가 *snp*이어야 한다. 다

음의 도출을 고려해 보자. (어간은 *po*(보), *tit*(듣), *o*(오)이다.)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위의 도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snp*은 그 어휘상의 표시가 *snp*이어야만,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으로 가 그 앞의 방아쇠(trigger) H 또는 L

의 영향을 입어 각기  또는 로 실현될 수 있다. *snp*에 대한 의

설정 이외의 어떤 방안도, 더 나아가서 자립 분절음층에 성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모든 TBU에 빈 자리 OH를 설정하지 않는 어떤 방안도 그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복잡할 것인가는 연습 삼아 그 가정의 도출을 시험해

<sup>1</sup> 곧 언급될 바와 같이, 어간 *po*와 *o*는 어휘상의 성조가 L이던 것이 어떤 규칙으로 H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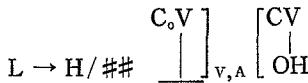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sep*의 OH에 대한 뒷받침을 여럿 찾을 수 있다. (2. a, c)의 형



들에서의 어간 *po*와 *o*는 어휘상으로 성조가 L이던 것이 다음 규칙에 의해서 H로 바뀐 것이다.

(3) 어간 성조 상승 규칙 (Stem Tone Raising) (cf.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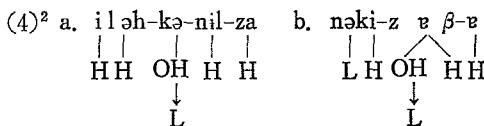
15세기 한국어에는 어휘상의 성조를 갖지 않는 형태소(morpheme)는 너댓개의 접미사뿐인 바, 이 규칙의 환경 CV에는 이러한 접미사 중에서 모음으로 시.



작하는 이른바 매개 모음 *i*와 또 형태가 꼭 같은 사역의 접미사를 제외한 모든 접미사 *nv*, *si*, *kə*를 비롯해서 *səp*이 포함된다. *səp*을 어휘상으로 OH가 포함되는 *sep*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 규칙의 일반성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어휘상의 성조를 갖지 않는 위에서의 접미사들이 또 하나의 성조에 의해서 선행되는 H 다음에서 L로 실현된다. 다음의 예들에서 OH→L을 주목해야 한다. (→L은 율동 규칙(3.41)의 적용 결과이며, 어간은 *iləh*(이령), *nəki*(여기)이다.)



위의 현상을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요구된다.

(5)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Suffix Tone Dissimilation) (cf. 3.22)



이 규칙에서 촛점(focus) OH 속에 둘이는 것은, 앞서의 어간 성조 상승 규칙(3)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어휘상으로 성조를 갖지 않는 접미사들 *nv*, *si*, *kə*, *səp*이다. 여기서도 어휘상의 *sep*이 아니면, 이 규칙의 일반성을 떨어



<sup>2</sup> *iləh-kə-*는 *ilə-kʰə-*로 되며, (b) 형은 최종적으로 LHLH가 된다.

뜨리게 될 것이다.

기본 성조 가락(Basic Tone Melody: BTM) LH가, 최초로 적용되는 성조 규칙인 성조 투사 규칙(36)의 적용으로, 상승조(rising tone)가 되는 동사와 형용사 어간 중에서 tam(담)과 같은 일부의 어간의  $\begin{array}{c} \diagup \\ L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를 비롯해서, 예컨

대, (2.d)에서와 같이  $\begin{array}{c} \diagup \\ L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에 의해서  $\begin{array}{c} \diagup \\ OH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되

었을 때처럼, *sop* 또는 그 이형태의 상승조의 H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서 L로 바꾸어진다. 이러한 취지의 규칙의 영향을 입는 어간을 구별적 자질(diacritic feature) [+E]를 갖는 것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규칙의 진술이 있을 수 있다.

#### (6) 상승조 하강 규칙(Rising Tone Lowering) (cf.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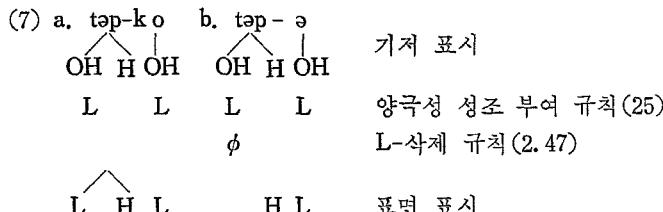
$$H \rightarrow L / L \begin{array}{c} \diagup \\ \diagdown \end{array} [+]_E [V]$$

접미사 *sop*과 *tam*과 같은 부류의 어간이 다 같이 구별적 자질 [+E]를 갖는 형태소로서 이 규칙의 입력이 된다. *tam*과 같은 어간은 BTM의 LH가 성조 투사 규칙(36)의 적용으로  $\begin{array}{c} \diagup \\ L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가 되는데, 접미사 *sop*도 어휘상의  $\begin{array}{c} \diagup \\ OH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라야만, 도출의 어느 단계에서 그 성조가  $\begin{array}{c} \diagup \\ L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가 되어 양자가 동일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구별적 자질 [+E]로 뷰이는 일반성을 얻을 수 있다.

고성 방언에서 표면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서 상승조의 성조를 갖는 *top*(暑)과 같은 어간이 있다(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서는 규칙으로 수평(level) 성조가 되지만). 이 방언의 표면 성조의 틀은 이음절 어일 때의 LL을 제외하면, 모두가 단일 H 좌우에 L의 연속이 온다. 따라서, 단순한 도출의 경우에는 Goldsmith(1976) 등의 별표를 대신하는 어휘상의 핵성조(어휘상으로 핵성조를 갖지 않는 무핵 어간도 있기는 하나)를 기준점으로 좌우에 L을 부여하는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5)와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의 적용으로 표면형이 얻어진다. 이제 *top*과 같은 어간에서 상승조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어간을 어휘상으로  $\begin{array}{c} \diagup \\ OH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로 표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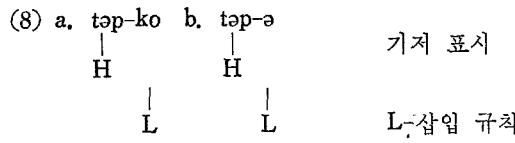
것이다. *top*을 어간으로 하는 단어들의 다음 도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려해야만  $\begin{array}{c} \diagup \\ OH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가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5)의 적용으로 자연스럽게  $\begin{array}{c} \diagup \\ L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begin{array}{c} \diagup \\ H \end{array}$ 는 예측될 수 없는 핵성조가 어휘상으로 연결되는 핵성조 언어인 고성 방언(넓게는 모든 핵성조 언어)의 특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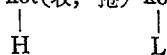


*təp*과 같은 어간을 어휘상으로 OH를 포함하는  $\swarrow$ 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text{OH}$

그 도출이 얼마나 복잡할 것인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 분절음층에서 성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모든 TBU에 빈 자리 OH를 설정하지 않는 대안으로서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기까지의 도출은 그다지 무리가 없다. 그러나 (a)의 표시에서 어간의 성조를 상승성조로 하려면 H가 이어진 TBU에서 왼쪽에 L을 삽입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이 L-삽입 규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뒤따르는 일음절 어간의 H를 갖는 TBU에서 왼쪽에 L을 삽입하라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것으로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kat*(收, 捲)-ko와 같이 일음절 어



간으로 수평의 H를 갖는 것은 모두 이 L-삽입 규칙의 적용을 받지 말아야 하므로, *təp*과 같은 어간은 이들과 구별되게끔 구별적 차질을 가져야 한다. 이 규칙은 그 복잡성과 그에 따르는 구별적 차질의 사용으로 인해서 부자연스럽기가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따라서, *təp*과 같은 어간에서의  $\swarrow$ 의 설정

OH

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성조층(tonal tier)이 TBU와 일대일로 연결된 자리를의 연속으로 표시되며, 이 자리를은 성조가 이미 부여된 것과 빈 것, 즉 OH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그러한 바, 결국 15세기 한국어에서 *səp*과 같은 형태소가 자립 분절음층에서 어휘상으로 OH를 갖고 있다가, 이 빈 자리가 방아쇠인 불투명(opaque) 성조<sup>3</sup>의 차질(feature)을 받아

<sup>3</sup> 불투명(opacity)에 관해서는 Clements(1980)과 이병건(1985)을 참조하라.

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며, 또한 고성 방언에서도 *top*과 같은 어간이 예 휘상으로  $\diagup \diagdown$ 이다가, 이 OH로 하여금 성조를 받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최

선의 방식이라면, 자립 분절음층에서 성조가 어휘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은 TBU에는 모두 빈 자리 OH가 연결되어 있다가, 성조가 채워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며, 또 그러해야만 일관성을 얻게 될 것이다. 즉 *sap* 및 *top*과 같은 형태소의  $\diagup \diagdown$ 가 방아쇠인 불투명 성조의 전파(spread)를 받아 성조

OH 가 부여된다면, 역시 방아쇠인 불투명 성조의 전파를 받는, 어휘상으로 성조가 없는 TBU가 OH를 갖는 것이 일관성을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래의 방식에서도 어차피 분절음(segment)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TBU의 확인 과정이 필요한 바, 이 과정에 맞먹는 것이 OH의 설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윤율 음운론(metrical phonology) (Hayes: 1981, 등)에서의 투사(projection) 과정이 OH의 설정과 대응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모음 조화 현상에서 자립 분절음층에서의 빈 자리의 설정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이병건(1985)를 토대로 한, 현대 한국어에서의 상징어의 짹인 *uk-il-aŋ*(우그렁) : *ok-il-aŋ*(오그랑)을 살펴 보자. 이들의 기저형은 각각 다음과 같다.

(9)	<i>uk-il-əŋ</i>	<i>uk-il-əŋ</i>
	+A      OA	-A      OA

위에서  $[\alpha A]$ (A=Advanced Tongue Root)는 자립 분절음인 모음 조화의 자질(Harmonic Feature: HF)이며,  $[+A]$ 의  $\alpha$ 는  $[u]$ 로,  $[-A]$ 의  $\alpha$ 는  $[o]$ 로, 또  $[+A]$ 의  $\beta$ 는  $[\theta]$ 로,  $[-A]$ 의  $\beta$ 는  $[a]$ 로 실현된다.  $[OA]$ 는 물론 자립 분절음인 HF  $[\alpha A]$ 가 부여되지 않은 빈 자리, 즉 성조 체계에서의 OH에 상응하는 것이다.  $i$ 는 모음 조화의 영향을 입지 않는 중립(neutral) 모음인 바, 이 것을 모음 조화에서 방아쇠인 불투명 모음 및 그 HF를 받아 들이는 HF-소지 단위(HF-bearing Unit: HFBU)와 구분하려면, 그 것은 HFBU가 아니므로,  $[\alpha A]$ 도, 그 빈 자리  $[OA]$ 도 갖지 않는 반면에, 그 밖의 HFBU는 빈 자리  $[OA]$ 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9)의 기저 표시에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이 적용되면, 중립 모음  $i$ 는 전드리지 않고,  $[OA]$ 만을 영향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모음 조화의 기술에서 P-소지 단위와 그렇지 않은 것, 즉 중립 모음과의 구분을 위해서 빈 자리  $[OA]$ 가 필수적이라는 것에서 미루어 성조 기술에 있어서도 빈 자리 OH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 한국어에서, H가 여렷 연속될 때에는, 그 연속 중의 짹수의 것을,

그 앞에 또 하나의 H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L로 바꾸는 율동 규칙(Rhythm Rule) (cf. 3.41)이 있다. 다음의 예들이 그 사정을 보여 줄 것인바, H→L에 주의해야 한다. (b) 형의 어간은 *hv*(하)이다.)

- (10) a. o-si-za      b. ha-ne-ni-la
- 

종래의 방식을 따를다면, 율동 규칙(§3.9에서 논의되겠지만, 엄격하게는 율동 규칙의 적용을 위한 성조 음보 형성 규칙(Tonal Foot Formation))의 입력(input)이 되는 형들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11) a. o-s i -za      b. ha-ne -ni -la
- 

위의 표시 그대로에는 문제의 율동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먼저 단일 H가 여러개의 TBU를 지배하는 o-si와 같은 모양은 TBU와 자립 분절음의 성조



가 일대일로 연결되는 o-si와 같은 것으로 바꾸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주장의 테두리 안에서는, (10)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과정이 필요없다.

영어의 *thirtéen ménœ* 강세 충돌(stress clash)을 피하기 위해서 율동 규칙에 의해서 *thirteen ménœ* 되는 것과 같이(cf. Liberman and Prince: 1977), 15세기 한국어의 율동 규칙도 H 성조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안인 것이다. H 성조 충돌의 면에서, 종래와 같이 단 하나의 성조 자립 분절음이 세 개 이상의 TBU를 거느리고 있을 때와, 각각의 TBU가 그 자신의 성조 표시를 가지고 있을 때와를 비교해 보자. 전자에서는 세 개 이상의 TBU를 거느리는 단일 H 밖에 없으니, H 성조들 간의 충돌 현상이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율동 규칙을 설정토록 하는 압력이 부가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해서, 율동 규칙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H 성조들 간의 충돌 현상과 그 충돌에서 생기는 압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5세기 한국어에서의 율동 규칙에 대한 두 가지 논의가 성조충이 TBU와 일대일로 연결된 자리들의 연속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이 글의 주장의 뒷받침에 보탬이 된다.

Hulst and Smith(1982, 원래에는 Odden: 1980)에 따르면, Shona어(Bantu

어의 하나인)에는 H 성조들의 연속에서 오직 하나만을 L로 바꾸는 이화(dissimilation) 규칙이 있다. 다음이 그 사정을 보여 줄 것이다.

- (12) hóvé 'fish'      hóvè húrú 'large fish'

그들도 언급했듯이, 만약 H 성조들의 연속이 종래의 방식대로 단 하나의 H 성조로 되어 있다면, 이화 규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여분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우리의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Goldsmith(1976, 원래에는 Edmundson and Bendor-Samuel: 1976)에 보이는 Etung어의 다음 예를 살펴 보자.

- (13) a. LLH: òràbè ‘beam’      èbìn ‘farm’  
       b. HHL: ésébè ‘sand’      éròp ‘spear’

**Etung어**는 비핵성조 언어로서 위에서 왼쪽에 보인 BTM의 성조가 성조 투사 규칙(36)의 적용으로 TBU의 OH에 투사되어 오른 쪽의 표면형이 자연스럽게 얻어진다(이음절어의 경우는 다른 절차가 또 필요하지만). 만약 (a-b) 형들의 BTM이 각각 LLH와 HHL이 아니고, 단일 성조가 하나 이상의 TBU를 지배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LH 또는 HL이라면, 아주 부자연스러운 ‘조건’에 의지하지 않는 한, 올바르게 성조를 부여하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 BTM의 LL… 또는 HH…가 TBU에 각각 LL… 또는 HH…로 부여되어야 한다면, 그 것은 단일 성조가 하나 이상의 TBU를 지배하는 종전의 체계를 짐작하는 적대적인 반증의 사례가 되는 것이며, 또 그러한 체계에서는, 만약 그러한 것을 부득이 받아 들여야 한다면, 일관성을 위해서  $LL \rightarrow L$  또는  $HH \rightarrow H$ 로 하는 여분의 규칙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는, 종전의 방식을 따른다면, 15세기 한국어에서 율동 규칙의 입력이 되기 위해서, 또 Shona어에서 이화 규칙의 입력이 되기 위해서, 여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와는 역의 것이다. 이 Etung어의 사례도 또한 자립 분절음총에서 TBU가 각기 일대일로 연결된 자리를 가져야 함을 뒷받침한다.

다시 Shona어로 돌아 가서, 역시 Hulst and Smith(1982, 원래에는 Odden: 1980)에 따르면, Shona어에는 다음에서와 같이 H 성조의 접두사가 붙는 단어에서의 H의 역속을 낮추는(lower) 이화 규칙이 있다.

- (14) a. mbwá 'dog'                            né-mbwà 'with dog'  
       b. hóvé 'fish'                            né-hòvè 'with fish'  
       c. mbündúdzí 'army-worm'    né-mbündúdzí 'with army worm'

이 형들의 어가운 종래의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갖는다.

- (15) a. mbwa b. hove c. mbundudzi
- 

이러한 표시에서는 그 이화 규칙이; 단일 H가 몇개의 TBU를 지배하는가는 상관 없이, 단일 H만을 언급하고, 그것을 L로 바꾸도록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열쇳 우리의 주장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의 체계 안에서의 (15)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16) a. mbwa b. hove c. mbundudzi
- 

이 때 문제의 이화 규칙은 촛점인 H의 연속을 모두 L의 연속으로 바꾸는 무제한 (unbounded) 적용의 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병건(1985)에 따르면, 경상남도 진주시와 전양군의 필자의 방언에, *i*나 *y*가 그 원쪽에 있는 모든 모음을 전설화하는 규칙이 있다. 이 규칙으로 *p'alk-ag-i*가 *p'ælk-æg-i* ‘빨갱이’로 된다. 이 규칙을 제한적 (bounded)으로 반복적으로 (iteratively) 적용한다면, *p'alk-ag-i*에 대한 그 첫 적용으로 *p'alk-æg-i*가 되는데, 여기에 그 두번째 적용이 있을 수 없다. 이 방언에서 æ가 전설화 규칙의 방아쇠 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제한적 적용으로는 단번에 *p'ælk-æg-i*가 올바로 도출된다. 이와 같이, 어차피 규칙의 무제한적 적용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에서도 이화 규칙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이제 위의 사례가 사이비 반증임이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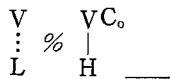
다음으로, 이 글에서 주장하는 대로의 성조층의 구조가 성조를 다루는 규칙들로 하여금 분절음층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차립해서 차립 분절음층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진술도록 하는 경우를 보이고자 한다.

Goldsmith(1976)과 Haraguchi(1977)에 의한 (1)에 상응하는 도출은 추상적 액센트 표지의 방안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앞으로, 달리 언급이 없으면, 원을 친 성조는 규칙으로 새로 언어진 것을 나타낸다.)

- (17) əlisuk-ko
- 
- 기저 표시
- əlisuk-ko
- 
- L-삽입 규칙 (18)
- əlisuk-ko
- 
- 연결 또는 전파 규칙

위에서의 L-삽입 규칙은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야 할 것이다.

### (18) L-삽입 규칙 (L-Inser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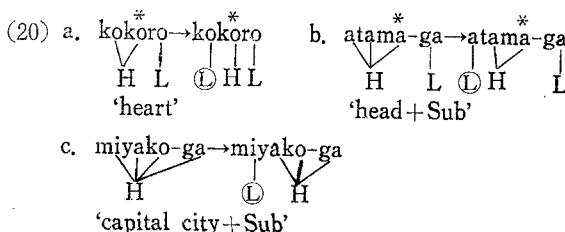
반면에, 이 규칙에 상당하는 (1)의 도출에서 적용되는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19)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Polarity Tone Assignment)

$\text{OH} \rightarrow \text{L \% H}$

이 규칙은 규칙(18)과 비교해서 보다 단순할뿐만 아니라, 분절음층(segmental tier)을 언급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독립적으로 차립 분절음층만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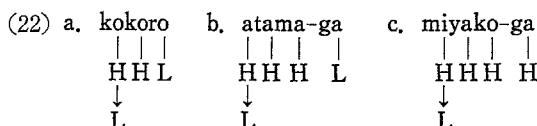
Haraguchi(1977)에 따르면, 일본어의 Tokyo 방언에는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규칙(21)이 필요하다.



#### (21) 첫 성조 하강 규칙(Initial Lowering Rule)

$$\begin{array}{c} \text{VC}_o \text{V} \\ \backslash \quad / \\ \text{H} \quad \text{L}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VC}_o \text{V} \\ | \quad | \\ \text{L} \quad \text{H} \end{array} / \# \# \text{ C}_o \underline{\quad}$$

우리는 이 규칙이 자립 분절음의 성조층과 동시에 분절음층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이 규칙은 단순히 성조층에서 단어의 최초의 H를, 그 다음에 H가 따를 경우에, L로 바꾸라는 것이다. (17)의 도출에서도 그러하지만, 여기에서처럼 단일 성조가 하나 이상의 TBU를 지배하는 표시를 허용하며, 진정으로 독립된 자립 분절음층을 설정하지 않는 종래의 방식으로는 (21)과 같은 형식으로 밖에는 규칙을 진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의 주장의 테두리 안에서는 (20)의 협상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위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규칙(21)을 대체하는 규칙은 자립 분절음층만을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23) 첫 성조 하강 규칙(Initial Lowering Rule)

$H \rightarrow L / \# \_ H$

여기에서는 두가지 사례만을 들었으나, 이 글의 주장은 쪽는다면, 성조 언어들에서 성조를 다루는 대부분의 규칙들이 이와 같이 분절음층과는 독립해서 성조층만을 자립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며, 부득이 분절음층을 언급해야 할 경우에도 종전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덜 할 것이다. 연습 삼아 시도해 본다면, 한가지 예로서, Haraguchi(1977)에 보인 일본어의 수많은 방언 기술에서의 규칙들이 우리의 주장의 태두리 안에서는 그리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 1.2. 성조 언어의 유형

McCawley(1968)은 성조 언어의 유형을 중국어와 같은 참 성조 언어와 일본어와 같은 피치 액센트 언어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후의 학자들이 대체로 이 구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본질적으로는 그 분류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의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종래의 피치 액센트 언어인 고성 방언의 다음 예를 살펴 보되, 특히 원을 친 성조에 주의하자. (여간 *əlisuk*은 이미 (1)의 형들에서 보인 것이다.)

(24)	i	ii	iii
a.	$\begin{array}{ccccccccc} \text{ə} & 1 & i & s & u & k & -k & o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cccccccc} \text{ə} & 1 & i & s & u & k & -k & o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cccccccc} \text{ə} & 1 & i & s & u & k & -k & o \end{array}$		
	$\begin{array}{ccccccccc}   &   &   &   &   &   &   &   \\ \text{O} & \text{H} & \text{H} & \text{O} & \text{H} & \text{O} & \text{H} & \text{L} \end{array}$	$\begin{array}{ccccccccc}   & &   & &   & &   & &   \\ \text{L} & & \text{H} & & \text{L} & & \text{H} & & \text{L} \end{array}$	

b.	$\begin{array}{ccccccccc} \text{ə} & 1 & i & s & u & k & -ə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cccccccc} \text{ə} & 1 & i & s & u & k & -ə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cccccccc} \text{ə} & 1 & i & s & u & k & -ə \end{array}$		
	$\begin{array}{ccccccccc}   & &   & &   & &   & &   \\ \text{O} & \text{H} & \text{H} & \text{O} & \text{H} & \text{O} & \text{H} & \text{L} \end{array}$	$\begin{array}{ccccccccc}   & &   & &   & &   & &   \\ \text{L} & & \text{H} & & \text{L} & & \text{H} & & \text{L} \end{array}$	

(i)의 표시에서 (ii)의 표시를 얻으려면, 앞서의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9)의 적용이 필요하다. ((iii)의 표시는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의 적용으로 얻어진 것이다.) 이 규칙은 이미 표시되어 있는 성조  $\alpha T$ 와 극을 이루는 성조, 즉 정반대의 성조  $-\alpha T$ 를 그 전이나, 후 또는 전후에 삽입하는 언어 보편적인 규칙의 일부인 것이다. 이제 규칙(19)를 그 하위 규칙(subrule)으로 포함하는, 이러한 양극성(polarity) 성조를 부여하는 보편적인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을 진술하고자 하는 바, 양극성의 성조가 그 전, 후 또는 전후에 달라 볼게 되는 핵의 성조를 핵성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5)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Polarity Tone Assignment)

$$OH \rightarrow -\alpha T \% \alpha T \underline{\hspace{1cm}}$$

이 규칙은 다음의 하위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다.

(26) a.  $OH \rightarrow -\alpha T / \alpha T \underline{\hspace{1cm}}$

$$b. OH \rightarrow -\alpha T / \underline{\hspace{1cm}} \alpha T$$

이 규칙들은 또 다시 다음과 같은 하위 규칙들로 나누어진다.

(27)<sup>4</sup> a. i.  $OH \rightarrow L / H \underline{\hspace{1cm}}$

$$ii. OH \rightarrow H / L \underline{\hspace{1cm}}$$

b. i.  $OH \rightarrow L / \underline{\hspace{1cm}} H$

$$ii. OH \rightarrow H / \underline{\hspace{1cm}} L$$

고성 방언은 위 (27)의 보편적 매개 변수 중에서 (a. i)과 (b. i)의 규칙들, 즉 규칙(19)를 택하는 언어이다. Haraguchi(1977)에 논의된 일본어의 여러 방언들은 (a. i)만을 택하는 것, 고성 방언처럼, (a. i)과 (b. i)을 모두 택하는 것, 또는 동일한 방언이 (a. i)만을 택하는 것과 (a. i)과 (b. i)을 모두 택하는 두 부류의 어간으로 이루어진 것 등이다. (b. ii)만을 택하는 언어로는 Tonga어 (Goldsmith: 1981a)가 있다.<sup>5</sup>

우리는 이제 종래의 이른바 괴치 액센트 언어를 핵성조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핵성조 언어는 핵성조를 가지며, 그 것을 핵으로 삼는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5)를 갖는 언어이다. 반면에, 종래의 이른바 찰 성조 언어인 중국어, 15세기 한국어, 고성 방언에서의 중국어 기원의 (Sino-Korean)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들은 비핵성조 언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6</sup> 비핵성조 언어는 핵성조는 물론, 그에 따르는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5)를 갖지 않는 언어이다. 비핵성조 언어는 §1.4에서 논의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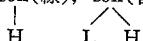
### 1.3.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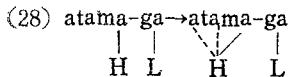
Haraguchi(1977)에 의한 일본어의 Tokyo 방언의 다음 예를 고려함으로써 시작하자.

<sup>4</sup> 앞으로의 (71)에서와 같이,  $OH \rightarrow M \% H \underline{\hspace{1cm}}$ 도 매개 변수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sup>5</sup> 그러나 아직 (27. a. ii)를 택하는 언어는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

<sup>6</sup> 핵성조 언어인 고성 방언에서도 중국어 기원의 형태소는, 중국어와 같이, 찰 성조 언어에 속한다. 예컨대, 표면형의 *sən*(線), *sən*(善) 등이 있다.





접선 부분의 성조의 연결은 이미 TBU에 연결되어 있는 H로부터 왼쪽의 TBU들에 무제한으로 자동적으로 전파해서 연결하는 연결(linking) 또는 전파 규약(convention)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frac{V}{T}$ 의 모양은 이 글의 주장의 태두리 안에서는 발생하지도 않는 것이며, 또 용납되지도 않는 것이다. (28)의 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어야 한다.

(29)

a	t	ama	ga		기저 표시
OH	OH	H	OH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7.a.i)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L					첫 성조 하강 규칙(23)
					표면 표시
L	H	H	L		

위의 도출에서 적용된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 (30)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Autosegment Spreading)

$\alpha$ 를 전파하라,

여기서  $\alpha =$  자립 분절음의 자질(들)

이 규칙에 의해서 방아쇠인 불투명의 자립 분절음이 자립 분절음층의 빈 자리에 전파된다. 그러나 그 방아쇠가 불투명의 자립 분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며, 그로 해서 마땅히 그것을 뚫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이는 모두 불투명 자립 분절음의 본래의 성질 때문이다. 이 규칙에서의 자립 분절음은, Goldsmith(1976)의 연결 또는 전파 규약과 마찬가지로, 성조뿐만 아니라, 모음 조화의 자질 및 아프리카의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비음성(nasality) (cf. Hyman: 1982a)의 자질까지를 포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규칙의 적용 방향에 대해서는, 언어에 따라, 또는 자립 분절음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인 제한이 지워질 수가 있다. 예컨대, 이병건(1985)에서와 같이, 모음 조화에서는 그 적용 방향이 불투명 모음의 자질로부터 접사(affix) 쪽, 즉 접두사가 있으면 그 쪽과 접미사 쪽으로 향하는 바, 이는 아마 모음 조화에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일 것이다. 이 밖에 Clements(1980)에 제시된 우선 조항들(Priority Clauses)처럼, 자립 분절음층의 빈 자리(들)의 연속이 전후로 두개의 불투명 자립 분절음에 바로 인접해 있을 때에는 언어 개

별적인 우선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Tonga어 (Goldsmith: 1981a)의 성조의 경우에는 이 규칙이 우선적으로 왼쪽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고성 방언과 일본어의 Tokyo 방언의 성조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아무런 제약이 과해지지 않는다. 다만 (29)의 도출에서와 같이, 이 규칙에 의한 불투명 H의 전파가 오른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 오른쪽의 자리가 불투명의 L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며(이 사실이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5)의 정당성에 대한 하나의 보탬이 된다), 또한 거꾸로 불투명의 L이 왼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그 쪽의 H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비핵성조 언어인 15세기 한국어에서의  $is-n\acute{e}-ni$ (있나니)의 다음

| | |  
L L H

기저 표시를 고려해 보자. (여기서 L은 어간의, H는 접미사 ni의 BTM임에, 앞으로도 이와 같다.)

(31)  $is-n\acute{e}-ni$   
           | | |  
           OH OH OH  
           L      H

여기에 대한 성조 투사 규칙(36)의 적용으로 다음과 같은 표시가 얻어진다.

(32)  $is-n\acute{e}-ni$   
           | | |  
           L OH H

여기에서는 OH 전파 후에 각각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불투명 모음이 있다. 따라서,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이 성조를 다룰 때에는 오른쪽 우선이라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종래의 연결 및 전파 규약을 대치하는 것으로서의 보편적인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의 설정과 이 규칙에는 자립 분절음의 종류와 또 언어에 따라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보아 왔다.

#### 1.4. 비핵성조 언어

앞서 §1.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핵성조에 따르는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5)를 갖지 않는 성조 언어가 비핵성조 언어에 속한다. 비핵성조 언어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우선 Goldsmith(1976, 원래에는 Leben(1973))에서 보이는 Mende어의 다음 예들을 고려해 보자.

- (33) a. H: pélé kó  
       b. L: bélè kpà

- c. HL: kényà mbû
- d. LH: níká nàvó mbă
- e. LHL: nikílì nyàhâ mbă

Goldsmith(1976)의 방식에 따르면, 왼쪽에 보인, 분류된 형태소 고유의 기본 성조 가락의 성조가 연결 또는 전파 규약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오른쪽에 보인 형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대신에, Halle and Vergnaud(1982)도 주장한 바와 같이, Williams(1976)의 성조 투사 규칙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방식이 있는 바, 다음에 보이는 것이 그 중심 부분이다.

#### (34) Williams의 성조 투사 규칙(Tone Mapping Rule)

It maps from left to right a sequence of tones onto a sequence of syllables. It assigns one tone per syllable, until it runs out of tones.

우리의 주장으로는 (33)의 형들의 기저 표시는 다음과 같다.

- (35) a. p<sub>e</sub> l e      ko      b. b<sub>e</sub> l e      kpa      c. kenya      mbu  
           OH OH     OH      OH OH     OH      OH OH     OH  
           H        H      L      L      HL      HL  
           d. ní k a      na v o      mba      e. ni k i l i      nya h a      mba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LH        LH      LH      LHL      LHL      LHL

위의 Williams의 성조 투사 규칙(34)의 본 뜻을 살린 규칙으로 이 기저 표시의 빈 자리 OH에 BTM의 성조를 채우게 되는 바, 그 규칙은 보편적일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 (36) 성조 투사 규칙(Tone Mapping Rule)

하나의 OH에 BTM에서의 하나의 성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각기 부여하라.

이 규칙의 적용으로 (35)의 형들은 다음과 같은 표시(representation)를 갖는다.

- (37) a. p<sub>e</sub> l e      ko      b. b<sub>e</sub> l e      kpa      c. kenya      mbu  
           H OH     H      L OH     L      H      L      HL  
           d. nika      navo      mba      e. nikil i      nyaha      mba  
           | |        | |      | |      | | | |      | | | |      | |

(a)의 *pəle*와 (b)의 *bəle*의 남은 OH는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에 의해 서 각각 H와 L이 부여된다. 그러나 (c)의 *mbu*, (d)의 *mba*, (e)의 *nyaha* 및 *mba*에서의 자유(free) 성조의 연결을 위해서는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결 규칙은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동기화되는(motivated)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Goldsmith의 자료만으로는 Mende어에서도 이러한 연결을 위한 독립적으로 동기화된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37)의 형들에서의 자유 성조들은 이 곳에만 작용하는 자유 성조 연결 규칙의 적용으로 원쪽의 TBU에 연결되어 곡선(contour) 성조의 일부를 이룬다고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성조 투사 규칙(36)과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의 적용 후에도 남아 있는 BTM에서의 자유 성조를 독립적으로 동기화된 자유 성조 연결 규칙으로 연결하는 경우를 찾아 보자. Williams(1976)에 따라, Margi어의 예를 살펴 본다. *věl* “to jump”과 *vělání* “to make jump”에 대한 다음의 기저 표시를 고려해 보자. (BTM의 LH는 둘 다 어간의 것이다.)

(38) a. vel	b. vel-a n i
 OH	 OH   OH OH
LH	LH

이 기저 표시는 성조 투사 규칙(36)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표시를 갖는다.

(39) a. vel	b. vel-a n i
 L H	 L H   OH

(b) 형에서의 OH는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에 의해서 H가 부여된다. 그러나 (a) 형에서의 자유 성조 H는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동기화된 자유 성조 연결 규칙에 의해서 상승조 성조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이 자유 성조 연결 규칙을 찾기 위해서 *ngyir* “to burn” + *rí* → *ngyirí* “to light” → *ngyir*의 도출을 살펴 보자. (*ngyir*은 어구말이 아닌 곳에서(non-phrase-finally) 나타나는 형이다.) *ngyir*에서의 상승조 성조를 얻으려면, 연속 *ri*가 그 음절성(syllacticity)을 잊게 됨에 따라 자유 성조가 된 H가 앞 음절의 TBU에 연결되어야 한다. (겹(geminate) *r*은 다른 규칙으로 홀의 *r*가 된다.) 이제 그 도출의 과정을 보기로 하는데, 어간 *ngyir*의 BTM은 L이며, 겹미사 *ri*는 편의상 어휘상으로 이미 H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다룬다.

(40) ngyir-ri	
 OH H L	기저 표시

ngyir-ri  
|   |  
L H

성조 투사 규칙(36)

ngyir-r  
|  
L H

여구말이 아닌 곳에서의 형

여기에서 자유 성조 H를 앞의 TBU에 연결하는 자유 성조 연결 규칙의 적용으로 표면형 *ngyir-r*가 얻어진다. 이제 (39.a)에서의 자유 성조 H가, 위



의 형에서 상승조를 생성하게 하는 독립적으로 동기화된 자유 성조 연결 규칙의 적용으로, 이미 L을 가지고 있는 TBU에 연결되어 드디어 표면형 *vel*을 낳게 된다.



Clements and Ford(1979)에 따라, Kikuyu어의 경우를 살펴 보자. Kikuyu 어는 케냐에서 사용되는 다른 Bantu어들, 즉 Kikamba어, Tharaka어, Mwimbī어와 아주 가까운 친족어인데, 이들 다른 언어들에서는 성조 투사 규칙(36)이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에, Kikuyu어에는 이 규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른다.

## (41) 성조 투사 규칙 (36)에 대한 조건(Condition)

다만, BTM의 첫 성조와 두번째의 OH로부터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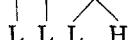
이제 다음의 도출을 살펴 보자.

(42) mo - e - re - ka - pge - ri - ε  
OH OH OH OH OH OH OH  
L H L H  
기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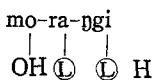
mo - e - re - ka - pge - ri - ε  
OH (H) (L) (H) OH OH  
성조 투사 규칙(36) 더하기 조건(41)

mo - e - re - ka - pge - ri - ε  
L L H L H (H) (H)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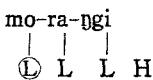
다음으로, 상승조를 포함하는 *mor a ngi*의 도출을 고려해 보자.



(43) mo - ra - ngi  
OH OH OH  
L L H  
기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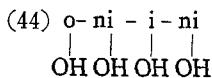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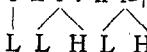


성조 투사 규칙(36) 더하기 조건(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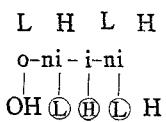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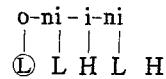
위에서 자유 성조 H가 마지막의 TBU에 연결되어 상승조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연결은 독립적으로 동기화된 규칙에 의한다. 이 규칙을 찾아서, 다음 음 o n i : n i의 도출을 고려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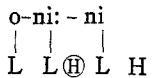
기저 표시



성조 투사 규칙(36) 더하기 조건(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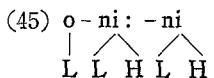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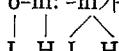


모음 융합 규칙

모음-융합 규칙(Fusion)은 두 모음을 하나의 모음으로 융합하는 것으로, 이 규칙의 적용 결과로 또 하나의 자유 성조 H가 생겨났다. 이 H를 왼쪽의 TBU에 연결하는 독립적인 자유 성조 연결 규칙이 어차피 필요하다. 이 규칙이 또한 마지막의 자유 H를 왼쪽의 TBU에 부착해 주어 다음의 표시가 얻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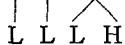


이 표시에 다시 상승조 단순화 규칙(Rising Tone Simplification)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규칙은 대충 말해서 상승조의  $\swarrow$ 를 L 앞에서 H로 하는 규칙이다. (45)의 표시에 대한 상승조 단순화 규칙의 적용으로 드디어 최종적인 표면형 o-ni: - ni가 얻어진다.



이제 (43)의 마지막 표시로 돌아 가서, 자유 성조 H가, 위에서와 같이,

독립적으로 동기화된 자유 성조 연결 규칙에 의해서 왼쪽의 TBU에 연결되어 최종적인 표면형 mo-ra-ŋgi가 얹어진다.



비핵성조 언어인 15세기 한국어에서 위의 두가지 사례에서와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을 살펴 보자.

- |                   |          |                 |           |
|-------------------|----------|-----------------|-----------|
| (46) a. H: son(手) | kači(轎)  | b. L: son(客)    | kanan(가난) |
| H                 | H H      | L               | L L       |
| c. LH: kip(繪)     | sa li(霜) | d. HL: sə li(間) | kači(枝)   |
| L H               | L H      | H L             | H L       |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이들 명사의 도출을 살펴 보자.

- |         |        |         |    |         |         |       |                  |
|---------|--------|---------|----|---------|---------|-------|------------------|
| (47) a. | son    | ka č i  | b. | son     | ka n an |       |                  |
|         | OH     | OH OH   |    | OH      | OH OH   |       | 기저 표시            |
|         | H      | H       |    | L       | L       |       |                  |
|         | son    | ka č i  |    | son     | ka n an |       | 성조 투사 규칙(36)     |
|         | (H)    | (H) OH  |    | (L)     | (L) OH  |       |                  |
|         | ka č i |         |    | kanan   |         |       |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
|         | H      | (H)     |    | L       | (L)     |       |                  |
| c.      | kip    | sə l i  | d. | sə l i  | ka č i  |       |                  |
|         | OH     | OH OH   |    | OH OH   | OH OH   | 기저 표시 |                  |
|         | LH     | LH      |    | HL      | HL      |       |                  |
|         | kip    | sə l i  |    | sə l i  | ka č i  |       | 성조 투사 규칙(36)     |
|         | (L) H  | (L) (H) |    | (H) (L) | (H) (L) |       |                  |

(c)의 *kip*에서의 자유 성조 H가 왼쪽의 TBU에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자유 성조 연결 규칙은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동기화되는 것이다. 이를 찾아서 다음을 고려해 보자.

- |                                                                                                                                                                      |                                                                                                                                                   |
|----------------------------------------------------------------------------------------------------------------------------------------------------------------------|---------------------------------------------------------------------------------------------------------------------------------------------------|
| (48) a. put <sup>h</sup> yə-i → put <sup>h</sup> yə-y                                                                                                                | b. po-i → po-y                                                                                                                                    |
| $\begin{array}{ccccc}   & &   & &   \\ L & & L & H & L \end{array}$<br>$\begin{array}{ccccc}   & &   & &   \\ & & & & H \\ & & & & \diagup \\ & & & & y \end{array}$ | $\begin{array}{ccccc}   & &   & &   \\ L & H & L & & H \end{array}$<br>$\begin{array}{ccccc}   & &   & &   \\ & & & & H \\ & & & & y \end{array}$ |

(a) 형은 명사 어간 *putʰyə*(부처)에 주격 조사 *i*가 붙은 것이며, (b) 형은 동사 어간 *po*(보)에 사역의 파생 접미사 *i*가 연결된 것인데, 이들 *i*는 모음

다음에서 *y*로 활음(glide)이 된다. 이 형들의 도출을 예시한다. (BTM의 L과 H는 각각 어간과 접미사의 것이다.)

(49)	$\text{put}^h yə - i$	$\text{po} - i$	
	$\begin{matrix} \text{OH} & \text{OH} & \text{OH} \\   &   &   \\ \text{L} & \text{H} & \end{matrix}$	$\begin{matrix} \text{OH} & \text{OH} \\   &   \\ \text{L} & \text{H} \end{matrix}$	기저 표시
	$\text{put}^h yə - i$	$\text{po} - i$	성조 투사 규칙(36)
	$\begin{matrix}   &   \\ \text{①} & \text{OH} \text{ ②} \\   &   \\ \text{①} & \text{②} \end{matrix}$		
	$\begin{matrix}   &   \\ \text{L} & \text{①} \\   &   \\ \text{①} & \text{H} \end{matrix}$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text{put}^h yə - y$	$\text{po} - y$	활음 형성 규칙
	$\begin{matrix}   &   \\ \text{L} & \text{L} \\   &   \\ \text{L} & \text{②} \end{matrix}$	$\begin{matrix}   \\ \text{L} \\   &   \\ \text{L} & \text{②} \end{matrix}$	

활음 형성 규칙의 적용 결과로 자유 성조 H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 H는 자유 H 연결 규칙(3.31)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왼쪽의 TBU에 연결되어 그 것을 상승조로 만든다.

(50)	$\text{put}^h yə - y$	$\text{po} - y$
	$\begin{matrix}   &   \\ \text{L} & \text{L} \\   &   \\ \text{H} & \end{matrix}$	$\begin{matrix}   &   \\ \text{L} & \text{H} \\   &   \\ \text{L} & \end{matrix}$

바로 여기에서 적용되는 자유 성조 연결 규칙이 (47.c)의 *kip*의 자유 H에 적용되어 드디어 상승조를 낳게 된다.

앞서 Kikuyu어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성조 투사 규칙(36)에는 언어 개별적인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15세기 한국어에도 성조 투사 규칙(36)에 언어 개별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 15세기 한국어에서 어휘상으로 성조가 없는 *nv*, *kə*, *si*와 매개 모음 *i*가 달린 *i-ni*를 포함하는 다음 표면형의 단어들을 고려해 보자. ( $\rightarrow$ L은 율동 규칙(3.41)의 적용 결과이며, 어간은 *t<sup>h</sup>v*(타), *is*(잇), *nilv*(이르), *st*(열)이다.)

(51) a.	$\text{t}^h \text{ə} - \text{kə} -$	b.	$\text{is} - \text{nə} - \text{ni} -$	c.	$\text{nil} \text{ə} - \text{si} -$	d.	$\text{ət} - \text{i} - \text{ni} - \text{la} -$
	$\begin{matrix}   &   \\ \text{H} & \text{H} \end{matrix}$		$\begin{matrix}   &   \\ \text{L} & \text{L} \\   &   \\ \text{H} & \end{matrix}$		$\begin{matrix}   &   \\ \text{L} & \text{L} \\   &   \\ \text{L} & \end{matrix}$		$\begin{matrix}   &   \\ \text{L} & \text{H} \\   &   \\ \text{H} & \text{H} \\   &   \\ \text{H} & \end{matrix}$

마지막 형은 잠시 제쳐놓고, 위의 형들의 도출을 살펴 보자.

(52) a. tʰə-kə-	b. is-nə-ni	c. ni l ə - si	
OH OH	OH OH OH	OH OH OH	기저 표시
H        L        H        L			

위의 기저 표시에 성조 투사 규칙(36)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표시가 생긴다.

(53) a. tʰə-kə-	b. is-nə-ni	c. ni l ə - si
① OH	① OH ②	① OH OH

여기에 대한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의 적용으로 다음의 최종적 표면형이 얻어진다.

(54) a. tʰə-kə-	b. is-nə-ni	c. ni l ə - si
H ②	L ① H	L ① ②

이제 (51)의 마지막 형의 도출을 따져 보자.

(55) ət - i - ni - la	기저 표시
OH OH OH OH LH      H H	

이 기저 표시에 아무런 언어 개별적인 제약이 붙지 않는 성조 투사 규칙(36)이 적용된다면, 옳지 못한 형 \*ət-i-ni-la가 얻어진다. 올바른 형을 얻으려면, 15세기 <sup>한국어</sup>에는 성조 투사 규칙(36)에 다음과 같은 언어 개별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

#### (56) 성조 투사 규칙(36)에 대한 조건

이 규칙은 형태소 경계(morpheme boundary)를 넘지 않는다.

이제 (55)의 기저 표시에 이어지는 다음 도출로 최종적인 표면형이 얻어진다.

(57) ə t - i - ni - la	성조 투사 규칙(36) 더하기 조건(56)
① H OH ② ②	
H	자유 H 연결 규칙(3.31)
H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H H H H H	표면 표시

이 절을 맺기 전에 다루어야 할 것이 남아 있다. 15세기 한국어에서 BTM을 갖는 것으로 다루어 온 접미사를, 어간과는 달리, 어휘상으로 성조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접미사도 어간과 마찬가지로 조건(56)이 붙는 성조 투사 규칙(36)에 의해서 성조가 부여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15세기 한국어에서 앞서 예시된 단어들에서 나타나는 성조 투사 규칙(36)의 적용 후에 H를 부여 받는 *ko*나 *nil* 같은 접미사와 §3.2에서 언급될, 성조 투사 규칙(36)의 적용으로 L을 부여 받는 *ŋi*나 *ŋey* 같은 접미사의 기저 표시는 다음과 같다.

(58)	a. ko   OH H	nil   OH H	b. ŋi   OH L	ŋey   OH L
------	-----------------------	---------------------	-----------------------	---------------------

그러나 접미사 *sap*은 §1.2에서 논급된 바와 같이, 여전히 어휘상으로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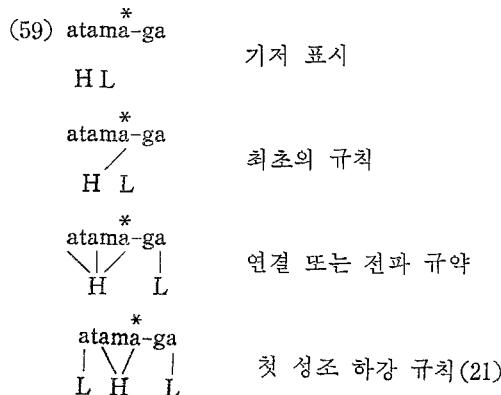
15세기 한국어에서 단일 음절로 된 중국어 기원의(Sino-Korean) 형태소가 토박이 형태소와 마찬가지로 성조 투사 규칙(36)의 힘을 빼는 방식의 어휘 표시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핵성조 언어인 고성 방언에서도 각주 6에서 언급되었듯이, 중국어 기원의 형태소는 비핵성조 언어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즉 이 방언에서 토박이 형태소는 핵성조 언어인 반면에, 중국어 기원의 형태소는 비핵성조 언어이다.

핵성조 언어가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5)를 갖는 반면에, 비핵성조 언어는 성조 투사 규칙(36)을 갖는다.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에, 그 적용에 대한 제약이, 자립 분절음의 종류에 따라, 또는 언어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조 투사 규칙(36)에도 언어 개별적인 조건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성조 투사 규칙(36) 및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의 적용 후에도 BTM에서 여전히 연결되지 않고 남은 자유 성조는 독립적으로 동기화된 자유 성조 연결 규칙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성조 투사 규칙(36)은 Goldsmith(1976)이나 Haraguchi(1977)의 연결 규약의 일부에 상당한다는 것을 덧붙인다.

### 1.5. 이른바 추상적 액센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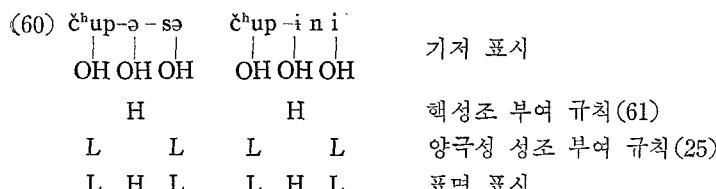
Goldsmith(1976)와 Haraguchi(1977)은 핵성조 언어인 이른바 피치 액센트 언어에서 어휘상으로 별표로 나타내는 추상적 액센트 표지를 이용해서, 최초로 적용되는 규칙이 이 별표가 있는 TBU와 BTM의 H(또는 L)와 연결

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28)의 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이 추상적 액센트 표지는 McCawley(1968)의 액센트 있는 모라(accented mora)와 비슷한 성질의 것인 바, 위의 도출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 그대로 ‘추상적’, 즉 아무런 음성적(phonetic) 실현을 보이지 않는 구별적 자질에 지나지 않는다. Hyman(1982b, c), Poser(1983) 및 Pulleyblank(1983)에서처럼, 별표가 있는 TBU는, 그것이 전혀 예언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신 어휘상으로 성조가 미리 연결되는(prelinked) 것이 당연하다. 어휘상으로 별표를 갖는 방안에 상당하는, 핵성조가 미리 연결되어 있는 방안을 택하는 언어는 고성 방언과 Haraguchi(1977)에서 보인 일본어의 여러 방언들과 Tonga어(Goldsmith: 1981a) 등이다. 핵성조 언어라 하더라도 핵성조가 어휘상으로 미리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부여되는 언어들도 있다.

이제 핵성조가 어휘상으로 미리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예언될 수 있는 사례를 알아 보자. 고성 방언에서, 물론 어휘상으로 핵성조가 연결되어 있는 어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어휘상으로 핵성조 H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무해 어간이 있다. 이를 대표하는 것으로 *č<sup>h</sup>up*(寒)을 어간으로 하는 형들의 도출을 살펴 보자.



위에서의 핵성조 부여 규칙은, 무해 어간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그 어디에도

H가 이어져 있지 않을 때에 어두에서 두번쩨 OH에 핵성조 H를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다.

(61) 핵성조 부여 규칙(Core-Tone Assignment) (cf. 2.28)

$\text{OH} \rightarrow \text{H} / \# \# \text{OH} \_ \text{OH.}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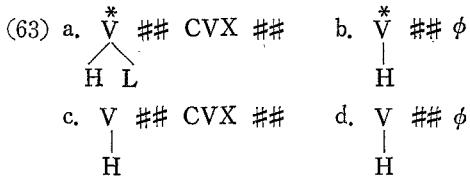
별표의 방안을 어휘상의 핵성조의 것으로 대치하면, 전자의 부자연스러움에 맞먹는 구별적 자질을 다시 끌어 들여야 할 것 같은 사례가 있다. 정연찬(1977:55)은 무핵 어간에 관해서 “삼, 사 오 음절어의 제이음절에 고조가 온다. 이 고조는 현자한 것이 아니다. 제일음절이 저조임을 분명히 들어내는 데서 상대적으로 고조가 들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무핵 어간을 갖는 단어의 H가 어휘상으로 H가 부여된 어간을 갖는 단어의 H 보다 덜 현저하게 들린다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무핵 어간의 단어의 H를 보다 낮게 하는 음성 규칙(phonetic rule)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음성 규칙을 진술하려면, 어휘상으로 핵성조를 갖는 어간과의 구별을 위해서, 얼핏 부자연스러움에 있어서 추상적 액센트 표지에 맞먹는 구별적 자질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조에 관한 최초의 규칙이 발동되기 전에, 어휘상으로 핵성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모든 어간, 즉 무핵 어간에 그 음성 규칙의 입력이 되도록 하는 적절한 구별적 자질을 부여하면 된다. 별표의 방안으로는, 별표가 없는 무핵 어간의 단어를 그 음성 규칙의 입력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이 적용될 단계까지 별표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무핵 어간의 단어와 별표 어간의 단어를 식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 때의 별표는 일종의 전체적(global)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별표의 방안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구별적 자질의 방안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Haraguchi(1977)에 따르면, 일본어의 Tokyo 방언에서는 곡선 성조가 표면에서 발생하는 바, 다음에서와 같이, 최후의 모라(mora)에 별표가 있는 어구(phrase)가 또 하나의 어구에 의해서 후속될 때에 그러하다.<sup>7</sup>

- (62) a.  $\underline{\text{ha}} \overset{*}{\underline{\text{na}}} + \underline{\text{saku}} \Rightarrow \underline{\text{ha}} \overset{*}{\underline{\text{na}}} \text{saku}$   
          ‘flower’ ‘bloom’ ‘flowers bloom’
- b.  $\underline{\text{ne-}} \overset{*}{\underline{\text{tya}}} + \overset{*}{\underline{\text{o}}} \underline{\text{kita}} \Rightarrow \underline{\text{ne-}} \overset{*}{\text{tya}} \overset{*}{\text{okita}}$   
          ‘slept-and’ ‘got up’ ‘slept and got up’

<sup>7</sup> Haraguchi(1977)의 일본어의 방언들에서는 거의 모두가 성조가 모라에 없힌다. 따라서, (63)에서의 V는 모라를 가리킨다. 그리고 어구(phrase)란 아마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네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열핏 별표의 방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안을 택할 수 있다. 그 마지막 TBU에 어휘상의 H가 있는 형태소들에, 성조에 관한 최초의 규칙이 발동되기 전에, 모두 적절한 구별적 자질을 우선 부여한다. 다음으로, 이 자질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 어휘상의 H가 여전히 살아 있는 형태소가 그것이 포함되는 어구에서 최후의 자리를 차지하며, 또 그 어구가 다른 하나의 어구에 의해서 후속될 때에, 그 어구말의 TBU의 H 오른 쪽에 L을 삽입하는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별표의 방안으로는, 곡선 성조를 이루는 규칙이 적용될 때까지 별표가 계속 남아 있지 않는다면, 어구말의 H가 별표의 것인지, 달리 생긴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고성 방언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때까지 남게 되는 별표는 전체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로써, 이 문제에서도 역시 별표의 방안이 구별적 자질의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Haraguchi(1977)에 따르면, 일본어의 Miyakonozyo 방언은 무핵 어간단을 갖는 언어에 속한다. 이 방언은 다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 표면의 성조 가락(tone melody)은 오직 하나  $L_1H$ 이다.

- (64) a. ki-ga ‘tree or air’  
 b. hana hana-ga ‘flower or nose’  
 c. tamago tamago-wo ‘egg’  
 d. hana-batake hana-batake-ga ‘flower garden’  
 e. suzusii ‘cool’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이 방언에서는 핵성조를 마지막 모라에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 (65) 핵성조 부여 규칙 (Core-Tone Assignment)

$$OH \rightarrow H / \underline{\quad} \# \#$$

이제 (64)의 형들의 도출을 예시한다.

- |                           |                  |                        |
|---------------------------|------------------|------------------------|
| (66) b. ha n a            | c. tam a g o- wo | 기저 표시                  |
| OH OH                     | OH OH OH OH      |                        |
| H                         | H                | 핵성조 부여 규칙(65)          |
| L                         | L                |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7. b. i) |
|                           | L L              |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
| L H                       | L L L H          | 표면 표시                  |
| d. ha n a- ba t a k e- ga |                  | 기저 표시                  |
| OH OH OH OH OH OH         |                  |                        |
|                           | H                | 핵성조 부여 규칙(65)          |
|                           | L                |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7. b. i) |
| L L L L                   |                  |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
| L L L L L H               |                  | 표면 표시                  |

역시 Haraguchi(1977)에 따르면, Miyakonozyo 방언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무핵 어간만을 갖는 언어인 일본어의 Shimagawa 방언이 있다. 그 표면의 성조 가락은 다음과 같이 오직 하나  $HL_1$ 이다.

- (67) a. e-ga 'picture or handle+Sub'  
      b. a me-ga 'rain or candy+Sub'  
      c. a bunai 'dangerous'  
      d. a tumeru 'collect'

이러한 표면의 성조 가락을 염으려면, 해성조 부여 규칙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68) 핵성조 부여 규칙 (Core-Tone Assignment)

$$\text{OH} \rightarrow \text{H} / \#\#$$

이제 (67)의 형들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              |              |    |                  |               |
|--------------|--------------|----|------------------|---------------|
| (69) a. e-ga | c. a b u n a | i. | d. a t u m e r u | 기저 표시         |
| OH OH        | OH OH OH OH  |    | OH OH OH OH      |               |
| H            | H            |    | H                | 핵성조 부여 규칙(68) |
| L            | L            |    | L                | 양극성 성조 부여 규   |
|              |              |    |                  | 칙(27. a. i.)  |
|              | L L          |    | L L              | 자립 분절음 전파 규   |
|              |              |    |                  | 칙(30)         |
| H L          | H L L L      |    | H L L L          | 표면 표시         |

고성 방언에서의 어휘상으로 핵성조를 갖지 않는 무핵 어간들과 모든 예 간이 무핵 어간으로만 된 일본어의 Miyakonozyo 방언과 Shimagawa 방언의 사례를 보아 왔거니와, 이들의 핵성조는 모두 핵성조 부여 규칙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우리는 핵성조 언어 중에서, 영어 같은 강세 액센트 언어가 아니면, 무핵 어간의 언어는 모두 핵성조 부여 규칙을 가진다는 일반론(generalization)을 끌어낼 수 있다. 이 규칙도 아마,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5)처럼, 보편적인 규칙으로, 이 것의 매개 변수 중에서 각기 언어가 필요한 것을 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Goldsmith(1974, 1976, 1981b, 그리고 cf. Hulst and Smith: 1982)는 영어를 성조 언어로서의 피치 액센트 언어로 분석하고 있는 바, 다음에서와 같아, 성조 가락은 단일 H를 중심으로 왼쪽에 M의 연속, 오른쪽에 L의 연속이 오는 것으로 한정된다.

(70) a. Amer i ca	b. archipel ago	c. Kalama z oo
 M H L L	 M M H L L	 MM M H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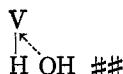
핵성조 언어에 포함되기는 하나, 강세 액센트 언어인 영어에서는 핵성조의 부여가 지금까지의 무핵 어간의 언어들에서와는 다르다. 영어에서는 Chomsky and Halle(1968)의 주 강세 규칙(Main Stress Rule)의 구실에 상당하게, 운율 음운론이나 격자(Grid) 이론(Prince: 1983, 등)의 태두리 안에서 제일 강세(primary stress)가 부여되면, 이 제일 강세를 갖는 TBU가 H를 갖게 되고, 바로 이 H가 핵성조가 된다. 그리고 영어에서 적용되는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으로는, (27.a.i) 의에도, 역시 보편적인 양극성 성조 규칙(25)의 매개 변수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 (71)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Polarity Tone Assignment)

$$OH \rightarrow M / \_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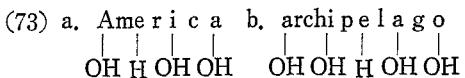
미해결의 문제가 아직 있다. Goldsmith(1976)는 영어에서 최후 음절의 강세는 하강조(falling tone) 성조로 실현된다고 한다. 위의 (c) 형이 바로 그러한 현상을 보여 주는 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OH를 삽입하는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72) OH-삽입 규칙(OH-Inser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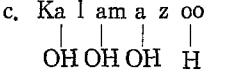
이 규칙은 앞서의 일본어의 Tokyo 방언의 꼭션조 성조의 형성을 위한 L-삽

입 규칙과 유사한 데가 있다. 이제 (70)의 형들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는 바, 기저 표시는 핵성조 부여 이후의 것이다.

- (73) a. Amer i c a      b. archipelago      기저 표시  
  
 M      L      M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  

$$\begin{matrix} & & & & \\ L & M & & & L \end{matrix}$$
      (27.a.i 및 71)  

$$\begin{matrix} M & H & L & L \end{matrix}$$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begin{matrix} M & M & H & L & L \end{matrix}$$
      표면 표시
- c. Kal am a z oo      기저 표시  
  

$$\begin{matrix} & & & & \\ H & OH & OH & H & \end{matrix}$$
      OH-삽입 규칙(72)  
 M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7.a.i 및 71)  

$$\begin{matrix} M & M \end{matrix}$$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  

$$\begin{matrix} M & M & M & H & L \end{matrix}$$
      표면 표시

핵성조 언어 중에서도 McCawley(1968)의 의미에 있어서의 강세 액센트 언어는 핵성조의 부여가 영어의 경우와 아마 같지 않은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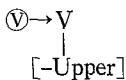
우리는 지금까지, 핵성조가 예언될 수 없을 경우에, 추상적 액센트 표지 대신에 어휘상으로 핵성조가 미리 연결되는 방안이 보다 낫다는 것을 보아왔다. 다만 고성 방언과 일본어의 Tokyo 방언에서는 일핏 별표의 방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그렇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무핵 어간의 언어에서는 핵성조 부여 규칙, 또는 영어에서는 Chomsky and Halle(1968)의 주 강세 규칙에 상응하는 강세 부여(stress assignment)의 방안으로 핵성조가 부여된다. 한 마디로, 전혀 예측되지 않는 핵성조는 어휘 목록(lexicon)에서 미리 부여되지만, 핵성조가 규칙으로 예언되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방안이든 그 것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description)의 자연성일 것이다.

### 1.6. 부재 자질 규칙

Pulleyblank(1983)은 언어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재 자질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규칙에 의한 성조의 전파나 부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조상의 부재 자질의 값(default value), 즉 무표지의(unmarked) 성조가 일반

적으로 도출의 마지막 단계에 적용되는 부재 자질 규칙에 의해서 부여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74) 부재 자질 규칙(Default Rule)



원이 쳐진 V는 성조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TBU이며, [-Upper]는 H, M, L의 3-성조 체계에서는 무표지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M을, H, L의 2-성조 체계에서는 무표지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L을 가리키는 바, 성조 언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 규칙의 하위 규칙의 매개 변수를 취할 수 있다.

(75) a. 부재 자질 M-삽입 규칙(Default M-insertion Rule)



b. 부재 자질 L-삽입 규칙(Default L-insertion Rule)



이 체계에 따른, Goldsmith(1981a)의 Tonga어에 대한 재분석의 예로서 balababona(they are seeing them)의 도출을 살펴 보자.



(76)<sup>8</sup>  $\left[ \begin{array}{c} ba \\ | \\ H \end{array} \left[ \begin{array}{c} la \\ | \\ H \end{array} \left[ \begin{array}{c} ba \\ | \\ H \end{array} \left[ \begin{array}{c} \left[ \begin{array}{c} bon \\ | \end{array} \right] a \\ | \end{array} \right] \right] \right] \right]$  기저 표시

$\left[ \begin{array}{c} ba \\ | \\ H \end{array} \left[ \begin{array}{c} la \\ | \\ H \end{array} \left[ \begin{array}{c} ba \\ | \\ H \end{array} \left[ \begin{array}{c} \left[ \begin{array}{c} bon \\ | \end{array} \right] a \\ | \end{array} \right] \right] \right] \right]$  H-전파 규칙(77)

$\left[ \begin{array}{c} \text{balababona} \\ | \\ H \quad H \quad H \end{array} \right]$  연결선 결단 규칙(78)

$\left[ \begin{array}{c} \text{bal ababona} \\ | \quad | \quad | \quad | \quad | \\ L \quad H \quad L \quad L \quad L \end{array} \right]$  부재 자질 L-삽입 규칙(75. b)

이 도출에서 적용되는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sup>8</sup> 괄호들은 그의 어휘 음운론(lexical phonology)의 방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 것의 유무가 여기서의 논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77) H-전파 규칙(H-Spread)



## (78) 연결선 절단 규칙(Delinking)



연결선 절단 규칙(78)은 H 성조의 가장 오른 쪽의 연결선을 삭제하는 것이다.

(76)의 도출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카다란 블합리함을 발견할 수 있다. 기저 표시에서 미리 연결된 모든 H는 예외 없이 표면 표시에서 L로 실현된다. 이 것은 Kiparsky(1968) 아래로 논난이 되어 온 추상성(abtractness)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기서의 ‘미리 연결된’ 추상적 H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 추상적 H로 해서, 이 추상적 H를 모두 없애 버리기 위한 인위적인 연결선 절단 규칙(78)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방안은 오직 부재 자질 규칙(74)를 살리려고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인 바, 적어도 핵성조 언어는 모두 부재 자질 규칙(74)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76)의 형을 Goldsmith(1976)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 논문의 주장의 턱두리 안에서 다시 도출해 보이는 바, 어휘상의 L은 모두 핵성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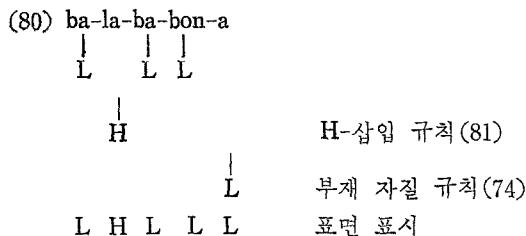
(79) ba - la - ba - b o n - a	
L OH L L OH	
H	기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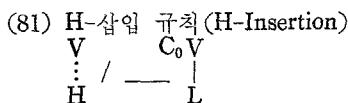
H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7. b, ii)
L	차립 분절 음 전파 규칙(30)
L H L L L	표면 표시

이 도출이 (76)의 그 것보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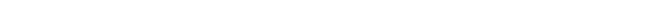
Pulleyblank(1983)이 위의 도출에서와 같이 Goldsmith(1981a)의 본뜻을 살리는 미리 연결된 핵성조 L을 택하지 않고, 왜 미리 연결된 추상적 H의 방도를 택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만하다. 미리 연결된 핵성조 L을 택하고서 부재 자질 규칙(74)를 살리는 도출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위의 도출에서의 H-삽입 규칙은 다음과 같이 진술되는 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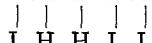


도출(80)에서 꺼림칙한 데가 있을 것이다. 첫째, 적어도 모든 핵성조 언어에서는 표면의 모든 L(또는 M), 즉 무표지의 성조는 모두 그 보편성과 또한 그 일관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재 차질 규칙(74)로 채우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 도출에서는 어휘상의 L이 그 규칙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깨뜨리고 있다. 둘째, 예컨대, i-bu-si(smoke)의 도출의 한 단계로서 i-bu-si→  
 | | | |  
 H H L | H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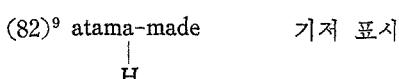
i-bu-si여야 하는데, 이는 H-전파 규칙(77)에 의해서 H가 왼쪽으로 전파된  


것이다. 이런 H의 전파가 허용되었으니, (76)의 도출에서 부재 자질 규칙(74)에 의한  $-a$ -에 대한 L의 부여를, 그 원쪽의 불투명 L을 방아쇠로 오른쪽으로 L을 전파하는, 성조 전파라는 점에서 H-전파 규칙(77)과 같은 성질의, L-전파 규칙(L-Spread)의 설정으로 대신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부재 자질 규칙(74)에 의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와 같이, L-전파 규칙이 허용된다면, 부재 자질 규칙(74)가 그 보편성을 잠식 당하게 되어, 일관성을 잃게 되고, 드디어는 그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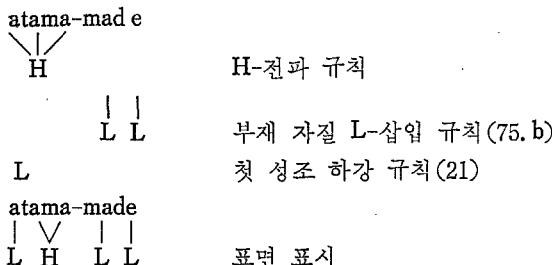
Haraguchi(1977)의 Tokyo 방언에서 예를 들어, *a tama-made*(head+even)



의 Pulleyblank(1983)의 방식에 의한 도출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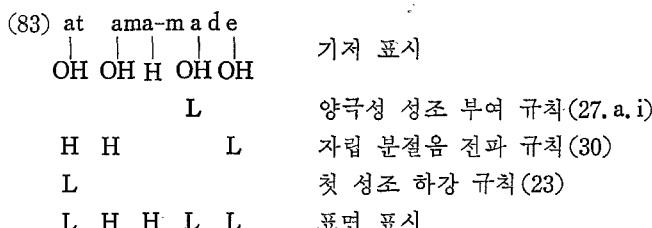


<sup>8</sup> 접미사 *made*의 첫 모라에 어휘상의 H가 있는데 그것이 어간의 H 다음에서 없어졌다.



이제 이 방안의 결점을 간추려 본다. 성조 자질의 자동적(automatic) 전파를 인정하지 않는 부재 자질 규칙(74)의 방안은, 그로 해서 부재 자질 L(또는 M)-삽입 규칙(75)과, 표면에서 하나 이상의 H의 연속을 갖는 핵성조 언어에는 꼭 필요한, (82)에서와 같은, H-전파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 규칙들은, 예컨대 비핵성조 언어인 15세기 한국어에 있어서의 (54)의 형들에서 보이는 H 및 L의 전파와 (82)에 있어서의 H 및 L의 전파((82)의 도출 안에서도 이들의 전파가 서로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좋지 못한 것이지만)가, 즉 성조 자질의 모든 전파가 동일한 성질의 현상이라는 것을 포착하지 못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82)에서는 H-전파와 L-전파를 별개의 현상으로 다루며, 둘째, (82)에서의 L의 연속이 첫째 L의 방아쇠에 의한 것임이 설명되지 않고, 셋째, (82)에서 H와 L이 각각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는 전파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넷째, 핵성조 언어에 있어서의 성조의 양극성 현상, 즉  $\alpha T$ (단일 성조이건 성조의 연속이건)의 옆은  $-\alpha T$ 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82)에 대한 우리의 방식을 따르는 도출은 다음과 같다.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5)과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을 갖는 우리의 방안은 위에서 지적된 것을 모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30)이 모든 성조의 전파는 동일한 현상임을 설명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83)에서 H-전파와 L-전파는 동일한 현상임을 설명하며, 둘째, (83)에서의 L의 연속이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7. a. i)에 의해서 삽입된 방아쇠의 자질

의 전파라는 것을 설명하며,셋째,(83)에서 H와 L이 각각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전파되지 못하는 것은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7.a.i)이 그 H 오른쪽에 불투명의 L을 부여했으며, 또 불투명의 어휘상의 H가 그 L 왼쪽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핵성조의 양극성 현상을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7.a.i)이 설명하고 있다.

끌으로, 고성 방언의 *əlɪs uk-ku-na*의 도출을 Pulleyblank(1983)의 부재  
L L H L L

자질 규칙(74)의 방식으로 도출해 보자.

(84) $\partial$ l i s u k-ku-na	H	기저 표시
L L	L L	부재 자질 L-삽입 규칙(75. b)
L L H	L L	표면 표시

이와 같이, 표면형에 H가 하나만 나타나고, 그 밖은 모두 L로 나타나는 핵성조 언어에서는 이 방식이 일단은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시 되풀이하지만, 첫째, 이 도출은 H가 좌우로 전파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L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또 그 전파가 모든 성조의 전파와 동일한 현상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셋째, H와 좌우의 L과의 양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84)의 도출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앞서의 Tonga어의 기술에서 보이는 불합리함은 고려에 넣지 않더라도, 보편성을 지향하는 부재 자질 규칙(74)의 방언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고성 방언과 같은 사례만을 둘으로써, 그 정당성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고성 방언의 성조

2.0. 韓 語

이 장에서는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언의 성조 체계를 다루고 있는 바, §1에서 정립된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의 이 고성 방언의 사례 연구가 그 이론을 다시금 정당화해 줄 것이다. 자료는 전적으로 정연찬(1977)에서 얻은 것이며, 여기에서는 고성 방언의 토박이 어근 중에서도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으로 이루어지는 음운론적 단어(phonoological word)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핵성조 언어인 고성 방언의 표면의 성조 가락은, 일음 절어일 때에 H, 이음절어일 때에 LL일 수가 있으나, 그 밖은 모두 L<sub>1</sub>HL<sub>2</sub>

이다. 그리고 §1에서 다루어진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2.1. 불변 핵성조 어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어휘상의 핵성조 H가 그대로 표면으로 나타나는 어간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를 예로 들도록 하겠는데, 이러한 단어는 규칙의 적용을 비교적 덜 받고 표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간을 대표하는 것으로 *ətip* (暗)의 활용 변화표를 보이는 바, 이 표의 단어들에서는 어두의 핵성조 H 외에는 모두 L로 나타난다.

(1) a. $\begin{array}{c} \text{ə t i p - k o}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O} \quad \text{H} \quad \text{O}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ə t i p - k o}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b. $\begin{array}{c} \text{ə t i p - e}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O} \quad \text{H} \quad \text{O}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ə t i p - e}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c. $\begin{array}{c} \text{ə t i p - i n}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O} \quad \text{H} \quad \text{O}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ə t i p - i n}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d. $\begin{array}{c} \text{ə t i p - i n i}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O} \quad \text{H} \quad \text{O}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ə t i p - i n i}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L}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e. $\begin{array}{c} \text{ə t i p - tə - la}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O}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ə t i p - tə - la} \\   \quad   \quad   \quad   \\ \text{L}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f. $\begin{array}{c} \text{ə t i p - k e s' - tə - la}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O}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ə t i p - k e s' - tə - la} \\   \quad   \quad   \quad   \\ \text{L}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a-d) 형들에 관해서, 어휘상의 핵성조 H는 불변이며, OH의 연속은 양극성 성조 규칙(1.25)와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의 적용으로 L이 채워짐으로써 표면형이 도출된다. 그리고 (e-f) 형들에서, 접미사들에 어휘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H(이 H에 대해서는 §2.2에서 설명될 것이다)는, 나중에 §2.2에서 제시될, H-말소 규칙 b (11)에 의해서 OH가 되어 OH의 연속에 포함되고, 이 연속은 앞서의 두 규칙의 적용으로 L이 채워져, 표면형이 얻어진다. 다음에서 도출을 예시한다.

(2) a. $\begin{array}{c} \text{ə t i p - k o} \\   \quad   \quad   \\ \text{H} \quad \text{O} \quad \text{H}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L} \\   \\ \text{L} \\   \\ \text{H} \quad \text{L} \end{array}$	d. $\begin{array}{c} \text{ə t i p - i n i}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O} \quad \text{H} \quad \text{O}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L} \\   \\ \text{L} \quad \text{L} \\   \\ \text{H}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기저 표시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표면 표시
f. $\begin{array}{c} \text{ə t i p - k e s' - tə - la} \\   \quad   \quad   \quad   \\ \text{H} \quad \text{O} \quad \text{H} \quad \text{H}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OH} \quad \text{OH} \\   \quad   \\ \text{L} \\   \\ \text{L} \quad \text{L} \\   \\ \text{H}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기저 표시
				H-말소 규칙 b(11)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표면 표시

*stip*처럼 어휘상으로 어간말이 아닌 TBU에 핵성조 H가 있는 어간은 모두 성조면에서 (1)에서와 같은 활용 변화를 한다. *stip*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어간은 *əl yəp*(難), *tət i:m*(探), *konč'i*(直) 등이 있다.

H OH      H OH      H OH

끝으로, 어간 *stip*의 어휘상의 핵성조 H는 Goldsmith(1976)과 Haraguchi(1977) 등의 별표에 대한 대안인 바, 이 핵성조는 어떤 규칙으로도 예언될 수 없으므로, 어휘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어간의 어휘상의 H는 모두 그러한 것이다. (1)의 형들에서의 접미사의 어휘상의 H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 2.2. 약활용 어간

어간 *kət*(收, 捲)의 다음 표면의 활용 변화표를 고려해 보자.

(3) a. kət-ko	kət-či	b. kət-ə-	c. kət-in	d. kət-in-i	kət-i-si-ko
H	L	H	L	H	L
e. kət-tə-la	kət-kə-na	kət-nin-te	kət-sip-ni-k'a	kət-kes'-ta	
L	H	L	H	L	L
f. kət-kes'-sip-ni-ta	kət-kes'-nin-ka				
L	H	L	L	H	L
g. kət-əs'-tə-la		h. kət-nin			
H	L	L	L	L	L

고성 방언에서는 핵성조 H의 위치나 유무에 의해서 어간이 몇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위의 변화표에서의 어간 *kət*은 어간말이 아닌 곳에 H가 있는, 앞 절에서의 *stip*과는 행동이 다르다. 둘째, §2.4에서 다룰, 표면에서 상승조를 갖는 *təp*(暑)과 같은 것과도 행동이 다르며, 셋째, 다음 절에서 다룰 *č'up*과 같은 무핵 어간과도 행동이 같지 않다. 더 나아간 분류를 위해서, 다음의 *kal*(交替)의 활용 변화표를 고려해 보자.

(4) a. kal-ko	kal-či	b. kal-a	c. ka-n	d. ka-ni	ka-si-ni
H	L	H	L	H	L
e. kal-tə-la-	kal-kə-na	kal-kes'-ta		f. kal-kes'-sip-ni-ta	
H	L	H	L	H	L
g. kal-as'-tə-la		h. ka-nin			
H	L	L	H	L	L

여기에서는 모든 활용 변화형에서 어간말(이음절 이상의 어간도 고려해서)의 H의 자리가, *tip*의 경우와 같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kal*은 어휘상의 핵성조 H가 어간말에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kət*의 활용 변화표와 *kal*의 그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비교해 보자. 전자의 (a-c,g) 형들은, 후자의 (a-c,g)의 그 것들과 꼭 같이, 어간말에 H가 놓여 있다. 그렇지만, (d,h) 형들은 잠시 뒤에 두고, 양자의 (e-f) 형들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관전은 어간 직후의 접미사들 *tə*, *kə*, *nɪn*, *sɪp*, *kes'*에 있음에 틀림 없다. *kət*의 경우에, (a-c) 형들에서 접미사 *ko*, *či*, *ə-*, *in* 앞에서 나타나는 어간의 H가 그러한 접미사 앞에서 없어지는데도, *kal*의 경우에는 상용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kət*과 *kal*이 다 같이 어휘상으로 어간말에 H가 있지만, 전자의 그 것은 접미사 *tə*, *kə*, *nɪn*, *sɪp*, *kes'* 앞에서 없어지는 반면에, 후자의 그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다 같이 어간말에 어휘상의 H가 있기는 하나, *kət*과 *kal*은 서로 다른 부류의 어간에 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를 이를테면 약활용(Weak Conjugation)의 어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약활용 어간 *kət*의 (e-f) 형들에서 그 어간의 H가 없어지고, 대신 그 직후의 접미사의 H가 나타난다. 어휘상의 접미사의 H 앞에서 약활용 어간의 H가 없어진 것이다. 거꾸로 *kal*의 (e-f) 형들에서는 어휘상의 어간의 H 다음에서 어휘상의 접미사의 H가 없어진다. 어휘상으로 H가 있는 이들 접미사는, *kət*과 *kal*의 (a-c) 형들에서 나타나는 어휘상의 H가 없는 접미사 *ko*, *či*, *ə-*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되풀이하자면, 약활용 어간 *kət*과 같은 것은, 어휘상으로 핵성조 H가 어간말에 있으면서도 접미사의 H 앞에서 그 자리의 변동이 없는 *kal*과 같은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와 같은 어간으로는 *əlisuk*(愚), *k'æ*(破) 등이 있으며, 어휘상의  $\frac{OH}{H}$ 를 갖는 *ət*(得), *tit*(踏) 같은 어간들도 전자와 구별된다. 물론 어휘상의 핵성조 H가 없는 무핵 어간 *č'hup*(寒), *č'os*(駄) 등은 핵성조의 유무로 인해서 저절로 전자와 구별된다. 이제 어간말에 어휘상의 핵성조 H가 있으면서도 접미사의 어휘상의 H 직전에서 그 H가 OH로 바뀌지 않는 어간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kət*과 같은 약활용 어간은 구별적 자질 [+WC]를 가지는 바, 약활용 어간은 *tit*(聞), *č'ap*(捕執), *mip*(憎), *pəs*(脫), *pus*(注, 脹), *mək*(食), *ka*(去), *sə*(立), *mukəp*(重), *mantil*(造), *kop'i*(飢), *hili*(流), *moli*(未知), *kili*(劃) 등을 들 수 있다.

어휘상으로 H가 있는 접미사는 앞서의 것들 외에, *ka-pni-ta*, *ka-ta-ka*, *ka-ni-nya* 등에서의 *pni*<sup>1</sup>, *ta*, *ni*가 있으며,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 어미 *il*

<sup>1</sup> 접미사 *pni*는 모음 다음에서 탈락되는 *i*가 붙는 *ip*과 *ni*의 두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의도형의 *il*이 있다.

이제 (3)의 형들로 돌아 가서, (e) 형들은 다음과 같이 어간의 핵성조 H와 접미사의 H 두개가 나타나는 기저 표시를 갖는다.

(5)	kət-tə - la	kət-kə-na	kət-nin-te	kət-sip-ni-k'a	kət-kes'-ta
	H H OH H	H H OH H	H H OH H	H H OH OH H	H H OH H

이 형들에서 어간의 H는 없어져야 한다. 위에서 올바른 표면형을 얻으려면, 약활용의 어간말 H를 직후에 오는 접미사의 H 앞에서 OH로 바꾸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6)	H-말소 규칙a (H-Erasure a)
	$H \rightarrow OH / \underline{\quad} \quad [+WC]$

이로써 (e)의 형들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7)	kət-tə - la	kət-nin-te	kət-sip-ni-k'a	기저 표시
	H H OH H	H H OH H	H H OH OH	
	OH L L	OH L L	OH L L	H-말소 규칙 a(6)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H L L H L	L H L L H L	L L L L	표면 표시

다음으로 (3.f) 형들로 돌아 가서, 이들의 기저형은 다음과 같다.

(8)	kət-kes'-sip-ni - ta	kət-kes'-nin-ka
	H H H OH OH	H H H OH

위에서 두번째 접미사의 어휘상의 H는 이미 (7)의 형들에서 확립된 것이다. 이 기저형에 H-말소 규칙 a(6)이 적용되면, 다음의 표시가 얻어진다.

(9)	kət-kes'-sip-ni - ta	kət-kes'-nin-ka
	OH H H OH OH	OH H H OH

여기에서 다시 두번째 H가 없어져야 하는 바, H 다음의 H를 없애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10)	H-말소 규칙b(H-Erasure b)
	$H \rightarrow OH / H \underline{\quad}$

(9)의 형들에 H-말소 규칙b(10)이 적용된 후에,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와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이 적용되면, 올바른 표면형이 얻어진다.

H-말소 규칙b(10)은 더욱 다듬어져야 한다. (3.g) 형의 기저형은  $k\overset{\text{H}}{\underset{\text{H}}{\text{ət}}}\text{-}\overset{\text{OH}}{\underset{\text{OH}}{\text{es}}}\text{-la}$ 인데, 여기서 두번째의 H가 OH로 바뀌어져야 하지만, H-말소 규칙a(6)은 물론, 현재 대로의 H-말소 규칙b(10)도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H-말소 규칙b(10)은 첫 H와 없어져야 하는 H 사이에 OH<sub>o</sub>가 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쳐 진술되어야 한다.

(11) H-말소 규칙b(H-Erasure b)

$\text{H} \rightarrow \text{OH} / \text{H OH}_o$  \_\_\_\_\_

드디어, (9)에 이어지는 도출은 다음과 같다.

(12) $k\overset{\text{OH}}{\underset{\text{H}}{\text{ət}}}\text{-}\overset{\text{H}}{\underset{\text{H}}{\text{es}}}\text{'-}\overset{\text{OH}}{\underset{\text{OH}}{\text{si}}}\text{-}\overset{\text{H}}{\underset{\text{OH}}{\text{ni}}}\text{-ta}$	$k\overset{\text{H}}{\underset{\text{OH}}{\text{ət}}}\text{-}\overset{\text{OH}}{\underset{\text{OH}}{\text{es}}}\text{'-}\overset{\text{H}}{\underset{\text{OH}}{\text{ni}}}\text{-}\overset{\text{H}}{\underset{\text{OH}}{\text{ka}}}$	H-말소 규칙b(11) 양극성 성조·부여 규칙(1.25)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표면 표시
L L	L L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H L L L H L L		표면 표시

위의 도출에서와 같이, H-말소 규칙a(6)은 H-말소 규칙b(11)을 앞서야 한다.

지금까지는 H-말소 규칙a(6) 뒤에 적용되는 H-말소 규칙b(11)이, (3.g) 형 외에는, 접미사의 H 다음에서 H를 없애는 구실만을 하는 예를 보아 왔다. 다음에서는 어간의 H 또는 무핵 어간 다음에서 H를 없애는 이 규칙의 구실을 알아 본다.

a. $\overset{\text{H}}{\underset{\text{L}}{\text{ə}}}\overset{\text{i}}{\underset{\text{L}}{\text{t}}}\overset{\text{p}}{\underset{\text{L}}{\text{-}}}\overset{\text{tə}}{\underset{\text{L}}{\text{-}}}\overset{\text{la}}{\underset{\text{L}}{\text{-}}}$	b. $\overset{\text{L}}{\underset{\text{H}}{\text{ə}}}\overset{\text{t}}{\underset{\text{H}}{\text{-}}}\overset{\text{-}}{\underset{\text{L}}{\text{k}}}\overset{\text{es}}{\underset{\text{L}}{\text{'-}}}\overset{\text{-}}{\underset{\text{L}}{\text{sip}}}\overset{\text{-}}{\underset{\text{L}}{\text{ni}}}\overset{\text{-}}{\underset{\text{L}}{\text{k'a}}}$	c. $\overset{\text{L}}{\underset{\text{H}}{\text{č}}}\overset{\text{h}}{\underset{\text{L}}{\text{u}}}\overset{\text{p}}{\underset{\text{L}}{\text{-}}}\overset{\text{-}}{\underset{\text{L}}{\text{kes}}}\overset{\text{-}}{\underset{\text{L}}{\text{sip}}}\overset{\text{-}}{\underset{\text{L}}{\text{ni}}}\overset{\text{-}}{\underset{\text{L}}{\text{-ta}}}$
--------------------------------------------------------------------------------------------------------------------------------------------------------------------------------------------------------------------------------------------------------------	---------------------------------------------------------------------------------------------------------------------------------------------------------------------------------------------------------------------------------------------------------------------------------------------------------------------------------------------------------------------	---------------------------------------------------------------------------------------------------------------------------------------------------------------------------------------------------------------------------------------------------------------------------------------------------------------------------------------------------------------------

이들의 기저형은 다음과 같다.

a. $\overset{\text{H}}{\underset{\text{OH}}{\text{ə}}}\overset{\text{i}}{\underset{\text{H OH}}{\text{t}}}\overset{\text{p}}{\underset{\text{OH}}{\text{-}}}\overset{\text{tə}}{\underset{\text{H}}{\text{-}}}\overset{\text{la}}{\underset{\text{H}}{\text{-}}}$	b. $\overset{\text{L}}{\underset{\text{H}}{\text{ə}}}\overset{\text{t}}{\underset{\text{H}}{\text{-}}}\overset{\text{-}}{\underset{\text{H}}{\text{k}}}\overset{\text{es}}{\underset{\text{H}}{\text{'-}}}\overset{\text{-}}{\underset{\text{H}}{\text{sip}}}\overset{\text{-}}{\underset{\text{H}}{\text{ni}}}\overset{\text{-}}{\underset{\text{H}}{\text{k'a}}}$	c. $\overset{\text{L}}{\underset{\text{OH}}{\text{č}}}\overset{\text{h}}{\underset{\text{H}}{\text{u}}}\overset{\text{p}}{\underset{\text{H}}{\text{-}}}\overset{\text{-}}{\underset{\text{H}}{\text{kes}}}\overset{\text{-}}{\underset{\text{H}}{\text{sip}}}\overset{\text{-}}{\underset{\text{H}}{\text{ni}}}\overset{\text{-}}{\underset{\text{H}}{\text{-ta}}}$
-------------------------------------------------------------------------------------------------------------------------------------------------------------------------------------------------------------------------------------------------------------------	---------------------------------------------------------------------------------------------------------------------------------------------------------------------------------------------------------------------------------------------------------------------------------------------------------------------------------------------------------------------	----------------------------------------------------------------------------------------------------------------------------------------------------------------------------------------------------------------------------------------------------------------------------------------------------------------------------------------------------------------------

위의 (a-b) 형들에서 접미사들의 H가 모두 H-말소 규칙b(11)에 의해서 OH로 바꾸어진다. 이제, (c) 형은 잠깐 제외하고, 위의 표시에 이어지는 도출을 예시한다.

- (15) a.  $\begin{array}{c} \text{ə t i p-tə - la} \\ | \quad | \quad | \quad | \\ \text{H OH OH OH} \\ \text{L} \\ \text{L L} \\ \text{H L L L} \end{array}$  H-말소 규칙b(11)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표면 표시
- b.  $\begin{array}{c} \text{ət - kes' - sip - ni-k'a} \\ \diagup \quad | \quad | \quad | \quad | \\ \text{OH H OH OH OH OH} \\ \text{L L} \\ \text{L L L} \\ \text{L H L L L L} \end{array}$  H-말소 규칙b(11)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표면 표시

(14.c) 형에서는 H-말소 규칙b(11)이 첫 H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무핵 어간의 단어를 위해서는 또 하나의 H-말소 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 (16) H-말소 규칙c(H-Erasure c)  
 $\text{H} \rightarrow \text{OH} / \# \text{ OH } ] [ \text{ OH}_0 \underline{\quad}$

무핵 어간은 모두 단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의 규칙의 진술에서 그 어간의 자리 표시는 OH로 충분하다. 그러나 (7)에서의 *kət-tə-la*에서 *tə*의 H를 없애지 않으려면, 이 규칙을 H-말소 규칙a(6) 전에 적용해야 한다.  $\text{OH}_0$ 의 필요는 도출(32)에 그 해답이 있다. (14.c) 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17)<sup>2</sup> c.  $\begin{array}{c} \text{č h u p-kes' -sip-ni - ta} \\ |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 \\ \text{OH H H OH OH} \\ \text{OH} \\ \text{H} \\ \text{L L} \\ \text{L L L L} \end{array}$  기저 표시  
H-말소 규칙b(11)  
H-말소 규칙c(16)  
핵성조 부여 규칙(28)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표면 표시

약활용의 어간으로 이루어진 단어들로서 (3.h)의 *kət-nin*을 비롯해서, *tit-nin*(聞), *čap-nin*(捕執) 등은 그 표면의 성조가 LL인 테, 이들은 다음과-

<sup>2</sup> 이 도출에서 H-말소 규칙 b(11)이 하는 구실을 없애고, H-말소 규칙c(16)으로 하여금 기저 표시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게 해서 두 접미사의 H를 없애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의 *sip*의 H가 H-말소 규칙 b(11)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같이 어간과 접미사가 다 같이 어휘상으로 H가 이어져 있다.

(18) kət-nin	tit-nin	čap-nin
H    H	H    H	H    H

여기에 H-말소 규칙a(6)이 적용되면, 다음의 표시가 얻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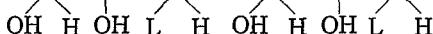
(19) kət-nin	tit-nin	čap-nin
OH    H	OH    H	OH    H

위에서 아직도 접미사에 놓여 있는 H를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요구되는 바, 이는 곡선 성조의 일부가 아닌 어말의 H를 다른 성조 다음에서 OH로 바꾸는 것이다.

(20) H-말소 규칙d(H-Erasure d)

$$H \rightarrow OH / \begin{array}{c} \diagup \\ T \end{array} \quad \#\#$$

이 규칙에서 환경 T가 필요하며, 또한 이 T가 상승조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될 ka(去)의 활용 변화형 ka-l, ka-n 등과 kal(耕)의 활용 변화형 kal - il → kaφ-ɒl, kal - in → kaφ-ɒn 같은 형들 때문이다.



이제 (19)에 이어지는 도출을 아래에 보인다.

(21) kət-nin	tit-nin	čap-nin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①    H	①    H	①    H	H-말소 규칙d(20)
OH	OH	OH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L	L	표면 표시
L    L	L    L	L    L	

(3. b) 형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즉 ə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서 어휘상의 어간말의 H가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3. c)와 (3. d) 형들을 비교해 보면, 다 같이 모음 i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 있으나, 어간의 H의 행동이 서로 같지 않다. i로 시작하는 접미사라 하더라도, 그 i가 음절말의 요소냐 아니냐에 따라, 어간 H의 이동 여부가 정해진다. 접미사의 i가 음절말의 요소인 (3. d) 형들에서는 어간말 TBU의 H가 ə로 옮아 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22)<sup>3</sup> H-이동 규칙(H-Movement)

$$\begin{matrix} & \overset{i}{\underset{\sigma}{\mid}} \\ H] & [OH \\ 1 & 2 \end{matrix} \rightarrow \begin{matrix} 1 \\ OH \\ H \end{matrix} \begin{matrix} 2 \\ H \end{matrix}$$

이제 (3.d) 형들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23) kət - i n i	kət - i s i-ko	기저 표시
H OH OH	H OH OH OH	H-이동 규칙(22)
OH H	OH H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L L	L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H L	L H L L	표면 표시

H-이동 규칙(22)는, 다음에서와 같이, 어떤 어간의 단어에도 적용된다.

(24) ə l i s u k - i n i	기저 표시
OH OH H OH OH	H-이동 규칙(22)
OH H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L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L L H L	표면 표시

H-이동 규칙(22)와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25)의 적용 순서는 위와 같다.

이제 (4)의 형들로 돌아 가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간의 어휘상의 핵성조 H의 자리는 어느 곳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a-b) 형들은 단순하게 도출되며, (c) 형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25) c. kal - in	기저 표시
H OH	
kal - φn	i-삭제 규칙
kaφ - φn	l-삭제 규칙
ka - n	표면 표시
H	

<sup>3</sup> (3.c) 형과 같은 이음절어에서 H-이동이 없는 것은, 그 이동으로 생기는 어말의 H가 H-말소 규칙d(20)으로 결국 없어져야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함인 것 같다. 따라서, 이 H-이동 규칙의 구조 기술에서 음절말 i보다는, 삼음절 이상의 단어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하기도 하다.

위에서  $i$ -삭제 규칙은  $l$  다음에서도  $i$ 를 삭제하는 규칙(물론 모음 다음에 서는  $i$ 를 삭제하는 규칙에 포함되는 것이다)이며,  $l$ -삭제 규칙은  $n$ 이나  $s$  앞에서  $l$ 을 삭제하는 규칙이다. 다음으로, (4, d) 형들의 도출을 살펴 보자.

(26) $\begin{array}{c} \text{kal}-\underset{\text{H}}{\text{i}} \underset{\text{OH}}{\text{n}} \underset{\text{OH}}{\text{i}} \\   \quad   \quad   \end{array}$	$\begin{array}{c} \text{kal}-\underset{\text{H}}{\text{i}} \underset{\text{OH}}{\text{s}} \underset{\text{OH}}{\text{i}} \underset{\text{OH}}{\text{n}} \underset{\text{OH}}{\text{i}} \\   \quad   \quad   \quad   \quad   \end{array}$	기저 표시
$\text{kal}-\phi\text{ni}$	$\text{kal}-\phi\text{s-i-ni}$	$i$ -삭제 규칙
$\text{ka}\phi-\phi\text{ni}$	$\text{ka}\phi-\phi \underset{\text{H}}{\text{s}} \underset{\text{OH}}{\text{i}} \underset{\text{OH}}{\text{n}} \underset{\text{OH}}{\text{i}}$	$l$ -삭제 규칙
$\underset{\text{H}}{\text{L}}$	$\underset{\text{H}}{\text{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text{ka}-\underset{\text{H}}{\text{n}}\underset{\text{L}}{\text{i}}$	$\text{ka}-\underset{\text{H}}{\text{s}}\underset{\text{L}}{\text{i}}-\underset{\text{L}}{\text{n}}\underset{\text{L}}{\text{i}}$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표면 표시

주의 할 것은, (24)에서와 같이, 약활용 어간의 형들이 아니더라도 H-이동 규칙(22)의 적용을 받는데도, 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i*-삭제 규칙이 H-이동 규칙(22)를 앞서기 때문이다. 끝으로, (4.e-h) 형들은 모두 H-말소 규칙b(11) 및 d(20)의 적용으로 접미사의 어휘상의 H가 OH로 된 후에,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와 자립 분절을 전파 규칙(1.30)의 적용으로 얹어지는 것이다. 다만 (4.h) 형에서는 앞서의 *l*-삭제 규칙의 적용이 있다.

### 2. 3. 무핵 어간

어휘상으로 핵성조 H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무핵 어간을 다루기로 하는 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 (13.c) 형에서 보인 적이 있는 어간 *cup*의 표면의 활용 변화표를 아래에 보인다.

(27) a.	$\check{c}^h$ up-ta $\check{c}^h$ up-ko	b.	$\check{c}^h$ up-ə-sə $\check{c}^h$ up-ə - to
	L    L    L    L		L    H    L    L    H    L
c.	$\check{c}^h$ up-in	d.	$\check{c}^h$ up-i n i
	L    L		L    H    L
e.	$\check{c}^h$ up-tə- la-to	$\check{c}^h$ up-kə-na	
	L    H    L    L	L    H    L	
f.	$\check{c}^h$ up-kes'-sip-ni-ta	g.	$\check{c}^h$ up-əs'-sip-ni-k'a
	L    H    L    L    L		L    H    L    L    L

(b, g) 형들을 약활용 어간의 형 (3. b, g)의 *kət-ə-*와 *kət-əs'-tə-la* 등과 비교

H L H L L L

해 보면, 접미사 *a*-에 어휘상으로 H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열넷 (d) 형에서는 H-이동 규칙(22)에 의해서 어간의 H가 *i*로 옮아 간 것으로 생각되며, (e-f) 형들에서는, 어간이 약활용의 것이기 때문에, H-말소 규칙 a(6)에 의해서 어간의 H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음절어인 (a, c) 형들을 제외하면, (27)의 형들이 모두 제이음절에 H가 있다. 그리고 이음절어인 (a, c)의 형들에서의 제이음절의 H는 H-말소 규칙d(20)에 의해서 없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č<sup>h</sup>up*과 같은 어간은 어휘상으로 핵성조 H가 없는 무핵 어간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무핵 어간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들을 위해서는 단어의 어느 곳에도 H가 없는 경우에 그 제이음절, 즉 제이의 OH에 핵성조 H를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 (28) 핵성조 부여 규칙(Core-Tone Assignment)

$$\text{OH} \rightarrow \text{H} / \# \# \text{ OH } \underline{\quad} \text{ OH. } \# \#$$

이 규칙으로 해서 (b, d) 형들은 간단히 도출된다. (a, c) 형들은 핵성조 부여 규칙(28)과 H-말소 규칙d(20)의 참여로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29) a. č <sup>h</sup> up-ta	c. č <sup>h</sup> up-in	기저 표시
OH OH	OH OH	
H	H	핵성조 부여 규칙(28)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OH	OH	H-말소 규칙d(20)
L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L	L L	표면 표시

(e-f) 형들에서의 H는 어휘상으로 접미사에 붙어 있던 제이음절의 접미사의 것이 그대로 표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음 도출에서와 같이, 핵성조 부여 규칙(28)의 적용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f) 형은 앞서 (17)에서 도출의 예가 보여졌다.)

(30) e. č <sup>h</sup> up-tə - la - to	č <sup>h</sup> up-kə-na	기저 표시
OH H OH OH	OH H OH	
OH	OH	H-말소 규칙c(16)
H	H	핵성조 부여 규칙(28)
L L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H L L	L H L	표면 표시

위의 도출에서와 같이, H-말소 규칙c(16)으로 제이음절에 있는 접미사의 어휘상의 H를 없애지 않고, 그 것을 그대로 핵성조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의 도출을 위의 것과 비교해 보자.

(31) e. čʰup-kə-na		기저 표시
	OH H OH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이 도출을 위해서는 H-말소 규칙c(16)이 제이음절에 있는 H를 삭제하도록 적용되어서는 안되도록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도출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을뿐 아니라, 내재적(intrinsic) 규칙 적용의 순서에 의해서 도출된다. 즉 기저 표시에는 구조 기술이 맞지 않아서, 핵성조 부여 규칙(28)이 적용될 수 없으며, 거기에 H-말소 규칙c(16)이 적용되고, 이 번에는 그 결과에 핵성조 부여 규칙(28)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27.g)의 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32) g. čʰup-əs'-sip-ni-k'a		기저 표시
	OH OH H OH OH	
OH		H-말소 규칙c(16)
H		핵성조 부여 규칙(28)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L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H L L L		표면 표시

약활용의 어간 k|i|i(劃)에 어휘상으로 H가 연결된 접미사 nin이 붙는다

OH H

음 형들의 표면에서의 H의 위치를 주의해서 살펴 보자. H-말소 규칙d(20) 및 핵성조 부여 규칙(28)의 작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33) a. k i l i - n i n → k i l i - n i n	b. k i l i - n i n - t e → k i l i - n i n - t e
OH H H    L H L	OH H H OH    L L H L

(a)의 표면형에서의 H의 위치가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b)의 표면형에서 는 약활용 어간 바로 다음의 H가 당연하게 살아 남아 있는 반면에, 전자에서는 nin의 H가 살아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약활용의 어간말의 H가 바로 뒤따르는 nin의 어휘상의 H에도 불구하고 표면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예시되는 도출이 이 의문을 풀어 줄 것이다.

(34) a. k i l i-nin	b. k i l i-nin-te	기저 표시
OH H H	OH H H OH	
OH	OH	H-말소 규칙a(6)
OH		H-말소 규칙d(20)
H		핵성조 부여 규칙(28)
L L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H L	L L H L	표면 표시

위의 (a) 형과 같은 방식으로 도출되는 것으로는 꼭 같이 약활용의 어간을 갖는  $\text{mantil-nin} \rightarrow \text{manti-nin}^4$ ,  $\text{hili-nin} \rightarrow \text{hilil-nin}$ ,  $\text{moli-nin} \rightarrow \text{molil-nin}$  등이 있다.

끝으로,  $\text{č'up}$ 과 같은 무핵 어간으로는  $\text{č'os}$ (啄),  $\text{kal}$ (磨),  $\text{č'a}$ (蹴, 冷)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일음절 어간이다.

#### 2.4. 곡선 성조 어간

표면 표시에서 상승조를 갖는 어간을 대표하는 것으로  $\text{təp}$ (暑)의 다음 표면의 활용 변화표를 살펴 보자.

(35) a. təp-ko	təp-či	b. təp-ə-	c. təp-in
L H L	L H L	H L	H L
d. təp-i n.i	e. təp- tə-la	f. təp-k e s'-tə-la	
L H L	L H L L	L H L L L	

앞서 §1.1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된 바와 같이, 어간  $\text{təp}$ 은 어휘상으로  $\text{təp}$ 의  
다. 위의 형들에서 (b-c) 형들을 제외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규칙들로 올바로 도출될 수 있다. 다만, 다소 까다로운 (d) 형의 도출을 아래에 예시한다.

(36) d. təp - i n i	기저 표시
OH H OH OH	H-이동 규칙 (22)

<sup>4</sup> 어간말의  $l$ 이  $n$  앞에서 탈락되었다.

$\begin{array}{c} \text{təp} \\   \\ \text{OH} \end{array}$	수평화 규칙(3.10)
$\begin{array}{cc} \text{L} & \text{L} \end{array}$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begin{array}{c} \text{təp} - \text{i} \text{ n} \text{i} \\   \quad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표면 표시

(b-c) 형들을 열기 위해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의 어간의 곡선 성조의 일부인 L을 삭제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37)<sup>5</sup> L-삭제 규칙(L-Deletion)

$$\text{L} \rightarrow \phi / \underline{\diagup \diagdown} \quad [ [+ \text{voc}] \quad [- \text{cons}] ]$$

이제 (b-c) 형들의 도출을 보인다.

(38) b. $\begin{array}{c} \text{təp} - \text{ə} \\   \\ \text{OH} \quad \text{H} \quad \text{OH} \\   \\ \text{L} \quad \text{L} \end{array}$	c. $\begin{array}{c} \text{təp} - \text{in} \\   \\ \text{OH} \quad \text{H} \quad \text{OH} \\   \\ \text{L} \quad \text{L} \end{array}$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phi$	$\phi$	L-삭제 규칙(37)
$\begin{array}{c} \text{təp} - \text{ə} \\   \\ \text{H} \quad \text{L} \end{array}$	$\begin{array}{c} \text{təp} - \text{in} \\   \\ \text{H} \quad \text{L} \end{array}$	표면 표시

$\text{təp}$ 과 같은 어간은 *tit*(踏), *ket*(步), *nas*(愈, 膝), *cis*(作) 등이 있다.

L-삭제 규칙(37)과 동시에 H-이동 규칙(22)에 대한 예외가 되는 어간 *ət*(得)의 다음 활용 변화표를 살펴 보자.

$\begin{array}{c} \text{OH} \\ | \\ \text{H} \end{array}$

(39) a. $\begin{array}{c} \text{ət} - \text{ta}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b. $\begin{array}{c} \text{ət} - \text{ə} -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c. $\begin{array}{c} \text{ət} - \text{in}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d. $\begin{array}{c} \text{ət} - \text{i} \text{n} \text{i}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e. $\begin{array}{c} \text{ət} - \text{tə} - \text{la} - \text{to} \\   \quad   \quad   \quad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f. $\begin{array}{c} \text{ət} - \text{kes}' - \text{si} - \text{pni} - \text{ta} \\   \quad   \quad   \quad   \quad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ət*이 표면의 활용 변화표에서 어간의 성조는 언제나  $\underline{\diagup \diagdown}$ 이며, 접미사들의 성조가 모두 언제나 L이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규칙적인 동사 어간이라고

<sup>5</sup> 이 규칙의 총점 L을 OH로 바꾸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서의 논의와 규칙 적용의 순서도 달라질 것이다.

불리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술된 규칙들의 면에서는 (b-c) 형들은 L-삭제 규칙(37)에 대한 예외이며, (d) 형은 H- 이동 규칙(22)에 대한 예외이다. *st*과 같이 이 두 규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어간은 *kop*(麗), *sup*(易) 등이 있는데, 모두 어휘상으로  $\begin{smallmatrix} \diagup \\ OH \end{smallmatrix}$   $\begin{smallmatrix} \diagdown \\ H \end{smallmatrix}$ 를 갖는 것들이다.

## 2.5. *i*-삭제 규칙과 성조

예외 없이 약활용에 속하는 *i*로 끝나는 이음절 어간의 대표적인 것으로 *kop<sup>hi</sup>*(飢)의 표면의 활용 변화표를 아래에 보인다.

$\begin{smallmatrix} | & | \\ OH & H \end{smallmatrix}$

(40) a. $\begin{smallmatrix}   &   &   \\ kop & h & i \\   &   &   \\ L & H & L \end{smallmatrix}$	b. $\begin{smallmatrix}   &   \\ kop & h-a- \\   &   \\ H & L \end{smallmatrix}$	c. $\begin{smallmatrix}   &   \\ kop & h-i-n \\   &   \\ L & L \end{smallmatrix}$
d. $\begin{smallmatrix}   &   &   &   \\ kop & h-i-tə-lə \\   &   &   &   \\ L & L & H & L \end{smallmatrix}$	e. $\begin{smallmatrix}   &   &   &   &   &   \\ kop & h-as'-kes'-sip-ni-ta \\   &   &   &   &   &   \\ H & L & L & L & L & L \end{smallmatrix}$	

(a, d) 형들은 간단하게 도출된다. (b, e) 형들에서의 어간말의 *i*의 삭제는 모음 앞에서 *i*를 삭제하는 *i*-삭제 규칙에 의하는 것이며, (c) 형은 거저의 *kop<sup>hi</sup>-in*에서 모음 다음에서 *i*를 삭제하는 규칙에 의해서 접미사의 *i*가 삭제된 것인 바, 이 두 *i*-삭제 규칙은 거울 영상(mirror image) 규칙으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

먼저 (b, e) 형들의 도출을 살펴 보자.

(41) b. $\begin{smallmatrix}   &   &   \\ kop & h & i \\   &   &   \\ OH & H & OH \end{smallmatrix}$	e. $\begin{smallmatrix}   &   &   &   &   &   \\ kop & h & as' & -kes' & -sip & -ni-ta \\   &   &   &   &   &   \\ OH & H & OH & H & H & OH OH \end{smallmatrix}$	거저 표시
$\begin{smallmatrix}   &   &   \\ kop & h & i \\   &   &   \\ OH & H & OH \end{smallmatrix}$	$\begin{smallmatrix}   &   &   &   &   &   \\ kop & h & as' & -kes' & -sip & -ni-ta \\   &   &   &   &   &   \\ OH & H & OH & H & H & OH OH \end{smallmatrix}$	<i>i</i> -삭제 규칙
$\begin{smallmatrix}   &   \\ L & L \end{smallmatrix}$	$\begin{smallmatrix}   &   \\ L & L \end{smallmatrix}$	H-말소 규칙b(11)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 25)
	$\begin{smallmatrix}   &   &   &   \\ L & L & L & L \end{smallmatrix}$	자립 분절을 전파 규칙(1. 30)

위의 도출에서 *i*-삭제 규칙의 결과로 생긴 자유 성조 H는 우선 L이 연결된 원쪽의 TBU에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할 것이다.

### (42) 자유 H 연결 규칙(Free H Association)

자유 H를 원쪽 TBU에 연결하라.

이 규칙과 관련해서 밝혀 두어야 할 것이 있다. Clements and Ford(1979: 207)는 “We may extract a generalization from these examples that is borne out by the examination of vowel deletion processes in other languages: namely, that tones which are “set afloat” due to the deletion of vowels (or, as in the case of glide formation rules, to the loss of their syllabicity) reassociate to the tone-bearing unit that *conditioned* the deletion (or loss of syllabicity).”라고 한다. 그러나 위의 고성 방언의 경우는 이 인용에서의 일반론(generalization)을 쉽게 따를 수 없다. *i*-삭제 규칙의 적용 결과로 생긴 자유 H는 *i*-삭제를 조건지은(conditioned) 모음에 연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도 시인하듯이, 그러한 보편적인 일반론을 따르려면, 그 ‘조건지은’ 특정의 규칙을 자유 성조 연결 규칙이 언급해야 하는 전체 규칙(global rule)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42)에서와 같이, 자유 H가 연결되는 방향을 명시하지 않을 수 없다. 되돌아 와서, (41)의 도출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 자유 H 연결 규칙(42)의 적용은 다음의 표시를 가져 온다.

(43) b. kop <sup>h</sup> φ-a	e. kop <sup>h</sup> φ-as'-kes'-sip-ni-ta

위에서 어간의 이 L-삭제 규칙(37)에 의해서 삭제되어, 드디어 최종적  
인 표면형이 얻어진다.

(c) 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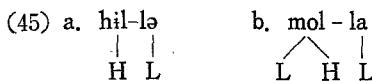
(44) c. kop <sup>hi</sup> -in	기저 표시
kop <sup>hi</sup> -φn	<i>i</i> -삭제 규칙 <sup>6</sup>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OH	H-말소 규칙d(20)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kop <sup>hi</sup> -φn	표면 표시

*i*로 끝나는 어간과 관련해서 할 말이 더 있다. 어간 h i l i (流)와 m o l i (未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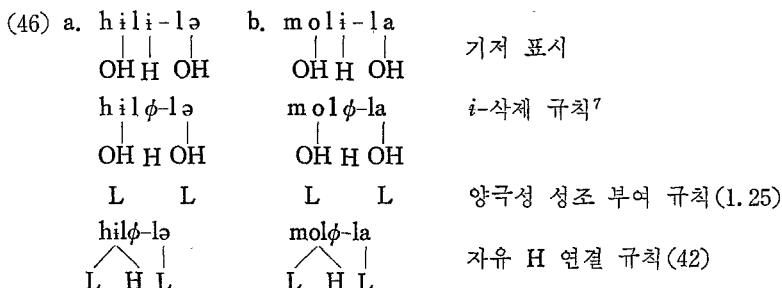
--	--

<sup>6</sup> *i*-삭제 규칙의 결과로 생긴 자유 OH는 규약에 의해서 없어진다.

로 이루어지는 다음의 표면형 (a)와 (b)를 서로 비교해 보자.



이들은 둘 다 성조면에서 동일한 기저 표시를 출발로 어느 단계까지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도출된다.



(a) 형의  $\diagup$ 은 삭제되어야 하나, (b) 형의 그 것은 삭제되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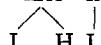
전자를 위해서는 L-삭제 규칙(37)의 환경 [+voc, -cons]를 유음(liquid)도 포함하도록 [+voc]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고쳐 진술해야 한다.

#### (47) L-삭제 규칙(L-Deletion)

$$L \rightarrow \phi / \diagup \quad [ [+voc ] ]$$

이제 (b) 형을 이루는 *moli*와 같은 어간은 앞서의 *st*과 같은 어간처럼 L-삭제 규칙(47)에 대한 예외 항목으로 표지되어야 한다.

혹시, (40. b, e) 형들에 관해서, 자유 H 연결 규칙(42)로 상승조  $\diagup$ 로 만 들었다가, L-삭제 규칙(47)로 그 상승조를 다시 수평조로 만드는 번거로움 보다는 다른 도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46. b)의 *mol - la*와 같은 형에서의 상승조를 얻을 수 없으며, 더구나,



여기서의 L-삭제 규칙(47)은 (35)의 *təp*과 같은 어간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동기화된 것이다.

어간 *kop'i*와 같은 활용 변화를 하는 것은  $\begin{array}{c} \text{kali} \\ | \\ \text{OH} \quad \text{H} \end{array}$ ,  $\begin{array}{c} \text{koli} \\ | \\ \text{OH} \quad \text{H} \end{array}$ ,  $\begin{array}{c} \text{kili} \\ | \\ \text{OH} \quad \text{H} \end{array}$

<sup>7</sup> *l* 앞에서도 *i*가 삭제되는데, 물론 이 것도 *i*-삭제 규칙 안에 포함된다.

(邪) 등이 또 있다.

*i*-삭제 규칙 및 L-삭제 규칙(47)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약활용 어간 ka(去)의 다음의 표면 활용 변화형들을 살펴 보자.

H

(48) a. ka-l ka-n	b. ka-l-læ	ka-l-la-myən	ka-l-la-ko
H      H	L / H    L	L / H    L    L	L / H    L    L

(a) 형들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도출된다.

a. ka - il	ka - in	기저 표시
 H OH	 H OH	
ka-φl	ka-φn	<i>i</i> -삭제 규칙
 H	 H	

그리나 (b) 형들의 도출에는 다소 까다로운 허가 있다. 이들의 분절음층의 기저 표시는 다음과 같다.

(50) b. ka-il-læ	ka-il-la-myən	ka-il-la-ko
------------------	---------------	-------------

이 형들에서의 *il*은, (49.a) 형에서의 미래를 나타내는 접미사와 형태는 같으나, 정연찬(1977)이 지적하고 있듯이, ‘의도’를 나타내는 접미사로서 어휘상의 H가 있다. 이제 이들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51) b. ka-il-læ	ka-il-la-myən	ka-il-la-ko	기저 표시
 H H OH	 H H OH	 OH OH OH	
ka-φl-læ	ka-φl-la-myən	ka-φl-la-ko	<i>i</i> -삭제 규칙
 H H OH	 H H OH	 OH OH OH	
OH	OH	OH	H-말소 규칙 a(6)
L    L	L    L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 (1.25)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 (1.30)
ka-φl-læ	ka-φl-la-myən	ka-φl-la-ko	중간 도출형
 L H    L	 L H    L	 L H    L	

이 형들에 자유 H 연결 규칙(42)가 적용되면, 최종적인 표면형이 얻어지는 데, 물론 이 것들은 L-삭제 규칙(47)에 대한 예외 항목들이다.

‘의도’의 접미사 *il*과 관련해서, 무핵 어간 *čʰa*(蹴, 佩, 滿, 冷), *k'æ*(覺)와 약활용이 아닌 *k'æ*(破)를 어간으로 하는 형들의 도출의 예시로써 이 절  
 $\begin{array}{c} | \\ H \end{array}$   
 을 끝맺으려 한다.

<i>(52)</i>	<i>čʰa - il-la-myən k'æ - il-la-ko k'æ - il-la-ko</i>	<i>čʰa - φl-la-myən k'æ - φl-la-ko k'æ - φl-la-ko</i>	<i>i-삭제 규칙</i>
	$\begin{array}{ccccccccc}   &   &   &   &   &   &   &   &   \\ OH & H & OH & OH & H & OH & OH & H & OH \\   &   &   &   &   &   &   &   &   \\ H & OH \end{array}$	$\begin{array}{ccccccccc}   &   &   &   &   &   &   &   &   \\ OH & OH \\   &   &   &   &   &   &   &   &   \\ H & OH \end{array}$	<i>기저 표시</i>
	$\begin{array}{cc} OH & OH \\   &   \\ H & H \end{array}$	$\begin{array}{cc} OH & OH \\   &   \\ H & H \end{array}$	<i>H-말소 규칙b(11) 및 c(16)</i>
	$\begin{array}{cc} L & L \\   &   \\ H & H \end{array}$	$\begin{array}{cc} L & L \\   &   \\ H & H \end{array}$	<i>핵성조 부여 규칙 (28)</i>
	$\begin{array}{cc} L & L \\   &   \\ H & H \end{array}$	$\begin{array}{cc} L & L \\   &   \\ H & H \end{array}$	<i>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i>
	$\begin{array}{cc} L & L \\   &   \\ H & H \end{array}$	$\begin{array}{cc} L & L \\   &   \\ H & H \end{array}$	<i>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i>
	<i>čʰa - φl-la-myən k'æ - φl-la-ko k'æ - φl-la-ko</i>		<i>표면 표시</i>
	$\begin{array}{cc} L & L \\   &   \\ H & H \end{array}$	$\begin{array}{cc} L & L \\   &   \\ H & H \end{array}$	

## 2. 6. 음절성 상실과 핵성조 부여 규칙

약활용 어간 *ka*(去)의 다음 활용 변화표에서, (b) 형들에 특별한 주의가  
 $\begin{array}{c} | \\ H \end{array}$   
 필요하다. (이미 (48)에서 보인 활용 변화형은 되풀이 하지 않는다.)

<i>(53) a.</i>	<i>ka-ko → ka-ko</i>
	$\begin{array}{cc}   &   \\ H & OH \\   &   \\ H & H \end{array}$
b. i.	<i>ka - a-sə → ka-sə ii. ka - as' -sip-ni - ta → ka-s' -sip-ni - ta</i>
	$\begin{array}{cc}   &   \\ H & OH \\   &   \\ OH & OH \\   &   \\ L & L \end{array}$
c.	<i>ka - i n i → ka - ni d. ka - tə - la → ka - tə - la</i>
	$\begin{array}{cc}   &   \\ H & OH \\   &   \\ OH & OH \\   &   \\ H & H \end{array}$
e.	<i>ka - kes' -sip -ni - ta → ka - kes' -sip -ni - ta</i>
	$\begin{array}{cc}   &   \\ H & H \\   &   \\ H & OH \\   &   \\ OH & OH \\   &   \\ L & H \\   &   \\ L & L \end{array}$

우선, 동일한 모음이 겹치면 뒷 것을 삭제하는 분절음 규칙이 (b) 형들의 도출에 참여한다. 접미사의 *a/e*는 앞의 예들에서 보아 있듯이, 어휘상의 H

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약활용 어간의 H가 그 앞에서 H-말소 규칙a(6)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다. 접미사의 *a*가 모음 삭제 규칙에 의해서 삭제된 후에, (b. ii)의 형에서는 약활용 어간의 H가 어휘상의 H가 있는 접미사 *sip* 앞에서 H-말소 규칙a(6)에 의해서 OH로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b. i)의 형에서의 *se*는 어휘상의 H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모음이 두개 이어질 때에, 앞 모음의 H가 OH로 되며, 그 후에 뒷 모음이 모음 삭제 규칙으로 삭제되고, 핵성조 부여 규칙(28)이 적용됨으로써 이 형들이 얻어진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54) H-말소 규칙e(H-Erasure e)

$$H \rightarrow OH / \underline{V_i} [ V_i ]$$

다음에서 이 규칙이 참여하는 형들의 도출을 보인다.

(55) b. ka - a - sə	ka - as' - sip - ni - ta	기저 표시
H OH OH	H OH H OH OH	
OH	OH	H-말소 규칙b(11)
ka - φ - sə	ka - φs' - sip - ni - ta	H-말소 규칙e(54)
OH OH	OH OH OH OH	모음 삭제 규칙
H	H	핵성조 부여 규칙(28)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OH		H-말소 규칙d(20)
L	L	차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ka - φ - sə	ka - φs' - sip - ni - ta	표면 표시
L L	L H L L	

H-말소 규칙b(11)과 H-말소 규칙e(54), H-말소 규칙e(54)와 모음 삭제 규칙, 모음 삭제 규칙과 핵성조 부여 규칙(28) 간의 적용 순서는 위의 도출에서 보인 대로여야 한다.

(53)의 형들 중에서 나머지 것들의 도출에 관해서는, (a) 형은 단순하게 도출된다. (c) 형의 도출에는 *i*-삭제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야 H-이동 규칙(22)를 피보일(bleed)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모음 삭제 규칙이 명령형의 접미사 *e/a*는 삭제하지 못한다. 이로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출을 볼 수 있다.

(56) ka - a	ka - a - la	
H OH	H OH OH	
OH	OH	H-말소 규칙e(54)
H	H	핵성조 부여 규칙(28)
L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 25)
OH		H-말소 규칙d(20)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 30)
L L	L H L	표면 표시

끝으로, *ka*와 같은 행동을 하는 어간으로는 *na*(出), *sa*(買), *ča*(寢), *ha*(爲) 등이 있다.

위의 (55)의 경우와 비슷한 것이 있다. 이를 위해서 *i*로 끝나는 약활용 어간을 대표하는 것으로 앞서 (33)에서 예를 보인 *kili*(劃)의 활용 변화표

를 아래에 보이는 바, (b)형들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7) a. k i l i - ko → k i l i - ko	
OH H OH L H L	
b. k i l i - e - sə → kily - e - sə      k i l i - e's' - ta → kily - e's' - ta	
OH H OH OH L H L      OH H OH OH L H L	
c. k i l i - in → k i l i - n      d. k i l i - i n i → k i l i - ni	
OH H OH L L      OH H OH OH L H L	
e. k i l i - tə - la - to → k i l i - tə - la - to	
OH H H OH OH L L H L L	
f. k i l i - kes' - tə - la → k i l i - kes' - tə - la	
OH H H H OH L L H L L	

(b) 형들에 관해서, 우선 이 형들의 도출에 참여하는 분절음 규칙으로는 *i→y*의 활용 형성 규칙이 있다. 표면형에서 이 규칙에 의한 *y* 다음의 TBU에 H가 출현한다는 사실이 열핏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게 할지도 모른다. *i→y* 후에 어간의 H가 자유 성조가 되고, 그 것이 자유 H 연결 규칙에 의해서 오른 쪽 TBU에 연결되어  $\begin{smallmatrix} \diagup & \diagdown \\ H & L \end{smallmatrix}$ 의 하강조를 이루고 나서,  $\begin{smallmatrix} \diagup & \diagdown \\ & L \end{smallmatrix}$ 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주장될 수 없다. 앞서의 (40. b)의 *kop<sup>h</sup>-a →*

$\begin{array}{c} \text{kop}^{\text{b}}-\text{a}-\text{e} \\ | \quad | \\ \text{H} \quad \text{L} \end{array}$ 에서는 자유 H 연결 규칙(42)가 자유 H를 왼쪽의 TBU에 연결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 것을 오른쪽 TBU에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면, i-삭제 규칙에 의한 자유 H와 활음 형성 규칙에 의한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 예컨대, i-삭제 후에는 자유 H가 발생하지만, 활음화 후에는 성조의 연결선이 없어지지 않다가, 활음의 H가 다른 TBU에 연결될 때에 그 연결선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도가 불합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자유 H 연결 후에  $\wedge$ 을 삭제해야 하는 규칙이 여분으로 필

L

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H-말소 규칙e(54)에 의존할 수가 있다. 총점 H의 TBU가 어떤 모음이라도 좋다는 취지로 이 규칙을 다듬을 수 있는 바, 그에 따라 접미사의 모음도 /ə/a로 한정된다. 이제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고쳐 진출된다.

## (58) H-말소 규칙e(H-Erasur e)

$$\text{H} \rightarrow \text{OH} / \left[ \begin{array}{c} \text{V} \\ \hline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c} +\text{back} \\ -\text{high} \\ -\text{round} \end{array} \right]$$

이 수정된 규칙으로, (b) 형들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59) b. k i l i - ə - sə	k i l i - əs' - ta	기저 표시	
$\begin{array}{ccc} \text{OH} & \text{H} & \text{OH} \end{array}$	$\begin{array}{cccc} \text{OH} & \text{H} & \text{OH} & \text{OH} \end{array}$		
OH	OH	H-말소 규칙e(58)	
y	y	활음 형성 규칙	
H	H	핵성조 부여 규칙(28)	
L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L	H	L	표면 표시

위에서 핵성조 부여 규칙(28)은, (55)에서도 모음 삭제 규칙 뒤에 적용되었지만, 활음 형성 규칙 뒤에 적용되어야 한다. 전자는, 단어 어느 곳에도 H가 없을 때, 제이음절에 핵성조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모음 삭제나 음절성을 없애는 활음 형성 규칙 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H-말소 규칙e(58)은 어간말의 i를 삭제하는 규칙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다음 도출 (a)와 (b)의 비교에서 드러날 것이다.

(60) a.	$\begin{array}{c} \text{k} \text{o} \text{p}^{\text{h}} \text{i} - \text{a} \\   \quad   \quad   \\ \text{OH} \text{ H} \text{ OH} \end{array}$	기저 표시	b.	$\begin{array}{c} \text{k} \text{o} \text{p}^{\text{h}} \text{i} - \text{a} \\   \quad   \quad   \\ \text{OH} \text{ H} \text{ OH} \end{array}$	기저 표시
	$\text{kop}^{\text{h}}\phi - \text{a}$	$i$ -삭제 규칙		$\text{OH}$	H-말소 규칙e(58)
	$\begin{array}{c}   \\ \text{OH} \text{ H} \text{ OH} \end{array}$			$\text{kop}^{\text{h}}\phi - \text{a}$	$i$ -삭제 규칙
	$\begin{array}{c}   \\ \text{OH} \text{ H} \text{ OH} \end{array}$	H-말소 규칙 e(58)		$\begin{array}{c}   \\ \text{OH} \text{ OH} \end{array}$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L	H	핵성조 부여 규칙(28)
$\wedge$	자유 H 연결 규칙(42)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L H				OH	H-말소 규칙d(20)
$\phi$	L-삭제 규칙 (47)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H L	표면 표시		*L L	L	표면 표시

(57)의 나머지 형들의 도출에 관해서, (a) 형은 아주 단순하게 도출된다. (d-f) 형들의 도출에 참여하는 규칙으로는, (d) 형에서는  $i$ -삭제 규칙, (e) 형에서는 H-말소 규칙a(6), (f) 형에서는 H-말소 규칙a(6)과 H-말소 규칙(b)(11)이 있다. (c) 형의 도출은 아래에 예시한다.

(61) c.	$\begin{array}{c} \text{k} \text{i} \text{l} \text{i} - \text{in} \\   \quad   \quad   \\ \text{OH} \text{ H} \text{ OH} \end{array}$	기저 표시
	$\text{k} \text{i} \text{l} \text{i} - \text{φn}$	$i$ -삭제 규칙
	$\begin{array}{c}   \\ \text{OH} \text{ H} \end{array}$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OH		H-말소 규칙d(20)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L		표면 표시

끝으로, *kili*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어간으로는 *k'əči*(陷), *puli*(使), *tʰəči*(綻) 등이 있다.

## 2.7. 덧붙임

정연찬(1977)에 보인 활용 변화표의 항목들 중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한 항목들을 일상상의 잘못이나 그 밖의 탓으로 들리기에는 꽤 체계적인 것도 있으니, 그냥 넘어 갈 수가 없다.

미래의 접미사 *il*이 붙는 단어들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자.(팔호 안의 것은 지금까지의 기술 방식으로 을바로 예측되는 형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다.)

- (62) a. tit(踏) : tit-il (tit-il)  
  
 b. kət(步) : kəl-il (kəl-il)  
  
 c. pəs(脱) : pəs-il (pəs-il)  
  
 d. mak(食) : mək-il (mək-il)

위의 표면형들은 H-이동 규칙(22)가 통시적으로 다음의 것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63) H-이동 규칙(H-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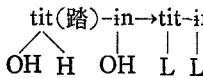
$$\begin{matrix} & \text{:X} \\ & | \\ \text{H} & \text{OH} \rightarrow [1] [2] \\ 1 & 2 & \text{OH} & \text{H} \end{matrix}$$

조건 : X ≠ n # #

H-이동 규칙(22)가, *n*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접미사의 *i* 앞에서 (접미사 *in*이 붙는 단어를 제외하고자), 그 *i*가 음절말의 요소나 아니냐에 상관없이, 어간말의 H를 *i*로 이동시키는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변한 것이다. (b, d)의 형들이 각기 팔호 안에 보인, 당연히 기대되는 형도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H-이동 규칙(63)이 (62)의 형들에게만 임의적임(optional) 것 같다. 아래에 (62)의 형들의 도출을 보인다.

- (64) a. tit - il      c. pəs- il  
  
 OH H OH      H OH      기저 표시  
 OH H      OH H      H-이동 규칙(63)  
  
 tit- il  
  
 OH H      OH      수평화 규약(3.10)  
 L      L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OH      OH      H-말소 규칙d(20)  
 L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L      L L      표면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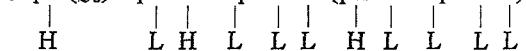
접미사 *in*으로 끝나는 단어가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하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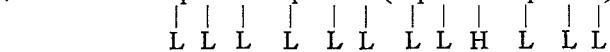
  $\text{tit}(\text{踏}) \rightarrow \text{tit}-\text{in}$  인데, 이 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니라면, H-이동 규칙(63)이 더욱 일반화되는, 즉 이 규칙에서의 ‘조건’이 없어지고 더욱 일반화되는 것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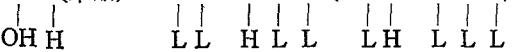
다음 결에서의 고성군과 인접한 시·군인 경상남도 진주·진양 방언의 H-이동 규칙(69)와 비교해 보면, 그 사정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오음절 이상의 단어에 관한 것을 살펴 보자.

- (65) a.  $k'\alpha\text{-es}'-\text{si}\text{-ni}\text{-ta}$  ( $k'\alpha\text{-es}'-\text{si}\text{-ni}\text{-ta}$ )  

- b. i.  $p\alpha\text{s}(\text{脫}) : p\alpha\text{s}-\text{es}'-\text{si}\text{-ni}\text{-ta}$  ( $p\alpha\text{s}-\text{es}'-\text{si}\text{-ni}\text{-ta}$ )  

- ii.  $\text{kop}^{\text{hi}}\text{i}(\text{飢}) : \text{kop}^{\text{hi}}\phi-\text{as}'-\text{t}\text{e}-\text{la}-\text{to}$  ( $\text{kop}^{\text{hi}}\phi-\text{as}'-\text{t}\text{e}-\text{la}-\text{to}$ )  

- c. i.  $\text{kop}^{\text{hi}}\text{-kes}'-\text{si}\text{-ni}\text{-ta}$  ( $\text{kop}^{\text{hi}}\text{-kes}'-\text{si}\text{-ni}\text{-ta}$ )  

- ii.  $\text{ə l i s uk}(\text{愚}) : \text{əl i s uk}-\text{ko}-\text{to}$  ( $\text{əl i s uk}-\text{ko}-\text{to}$ )  

- d.  $\text{mol i-l-či-la-to}$  ( $\text{mol i-l-či-la-to}$ )  


이미 §1.5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정연찬(1977:55)는 무핵 어간의 단어에서 “삼, 사, 오 음절어의 제이음절에 고조가 온다. 이 고조는 현저한 것이 아니다. 제일음절이 저조임을 분명히 들어내는데서 상대적으로 고조가 드러난다”고 한다. 따라서, (a) 형에서는 핵성조 부여 규칙(28)이 적용되었다 해도 H가 “현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sup>8</sup>

H-말소 규칙e(58)에서 접미사의 모음을 모두 ə/a이다. 이 규칙이 더욱 일반화되어서 이 접미사의 모음 ə/a 앞에서는 어떤 어간의 H도 OH로 바꾸는 것으로 변천하는 과정에 있고, 이 변천된 규칙의 적용을 받은 것들이 (b.i)의 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저형에 H-말소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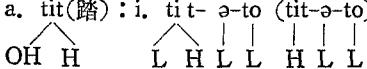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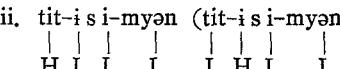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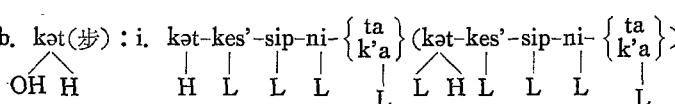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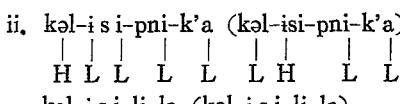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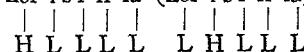
<sup>8</sup> 무핵 어간의 단어의 H와 그 밖의 것의 H가 음성적으로 다르다면, 이 음성 규칙을 위해서 무핵 어간에는 구별적 자질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규칙(16)의 구조 기술도 달라져야 하며, 그에 따른 규칙 적용의 순서도 달라질 것이다.

b(11)과 이 변천된 규칙이 적용되고, 그 후에 핵성조 부여 규칙(28)을 비롯해서 적절한 규칙들의 적용으로 이 형이 얻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의 진주·진양 방언에서는 어간 *pos*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들의 표면의 활용 변화형들이, (65. b.i) 형을 제하고는, 이 고성 방언과 전적으로 동일하며, 이 (65. b.i) 형도 팔호 안의 형과 동일하다.

(c) 형들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진주·진양 방언에서는 팔호 안의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65)의 형들이 모두 오음절 이상으로 된 단어들인 것을 감안한다면, 오음절 이상의 단어에서는 표면의 H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c) 형들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a) 형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b) 형들도 팔호 안의 것들로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다가, 오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H가 두드러지지 않자, 다시 핵성조 부여 규칙(28)이 적용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kop<sup>hi</sup>-l-či-la-to*와 *ka-l-či-la-to*(d) 형과 이 두형에서의 -l-은 미래의 접미사 *il*이 *i*-삭제 규칙의 적용으로 생긴 것이다)로부터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d) 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진주·진양 방언에서 팔호 안의 것이 올바른 형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접미사 *či*가 어휘상으로 H가 있는 것으로 잘못 다루어진 결과일지도 모른다.

다음 형들을 살펴 보자.

- (66) a. *tit*(踏) : i. *ti t- ə-to* (*tit-ə-to*)  
  
 ii. *tit-i s i-myən* (*tit-i s i-myən*)  
  
 b. *kət*(步) : i. *kət-kes'-sip-ni-* {ta} (*kət-kes'-sip-ni-* {k'a})  
  
 ii. *kəl-i s i-pni-k'a* (*kəl-is-i-pni-k'a*)  
  
*kəl-i s i-li-la* (*kəl-i s i-li-la*)  


(a. i) 형은 (39)의 *ət- ə*와 마찬가지로 L-삭제 규칙(47)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a. ii, b. ii) 형들은 H-이동 규칙(22)가 적용되지 않고, L-삭제

규칙(47)이 적용될 것이다. (b. i)의 형에 대해서는 기저의  $\begin{array}{c} \text{k} \\ \diagdown \quad \diagup \\ \text{o} \quad \text{t} \end{array}$  이 통시적으  
로 약활용이 아닌  $\begin{array}{c} \text{k} \\ \diagdown \quad \diagup \\ \text{o} \quad \text{t} \\ | \\ \text{H} \end{array}$ 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진  
주·진양 방언에서는 (66)의 형 모두가 팔호 안의 것으로 나타난다.

약활용의 tit(聞)의  $\begin{array}{c} \text{t} \\ \diagdown \quad \diagup \\ \text{i} \quad \text{t} \\ | \quad | \\ \text{H} \quad \text{L} \end{array}$ ,  $\begin{array}{c} \text{t} \\ \diagdown \quad \diagup \\ \text{i} \quad \text{t} \\ | \quad | \\ \text{H} \quad \text{L} \end{array}$ 와  $\begin{array}{c} \text{t} \\ \diagdown \quad \diagup \\ \text{i} \quad \text{t} \\ | \quad | \\ \text{H} \quad \text{L} \end{array}$ 가 있는데, 이는 tit이 약활용이  
아닌 어간으로 잘못 다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진주·진양  
방언에서는  $\begin{array}{c} \text{t} \\ \diagdown \quad \diagup \\ \text{i} \quad \text{t} \\ | \quad | \\ \text{H} \quad \text{L} \end{array}$ ,  $\begin{array}{c} \text{t} \\ \diagdown \quad \diagup \\ \text{i} \quad \text{t} \\ | \quad | \\ \text{H} \quad \text{L} \end{array}$ 이다.

(48. b)의  $\begin{array}{c} \text{k} \\ \diagdown \quad \diagup \\ \text{a} \quad \text{l} \quad \text{l} \\ | \quad | \quad | \\ \text{H}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과  $\begin{array}{c} \text{k} \\ \diagdown \quad \diagup \\ \text{a} \quad \text{l} \quad \text{l} \\ | \quad | \quad | \\ \text{H} \quad \text{L} \quad \text{H} \end{array}$ 로 비추어 생각한다면, 약활용의  
 $\begin{array}{c} \text{s} \\ \diagdown \quad \diagup \\ \text{e} \quad \text{l} \quad \text{l} \\ | \quad | \quad | \\ \text{H}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의  $\begin{array}{c} \text{s} \\ \diagdown \quad \diagup \\ \text{e} \quad \text{l} \quad \text{l} \\ | \quad | \quad | \\ \text{H}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과  $\begin{array}{c} \text{s} \\ \diagdown \quad \diagup \\ \text{e} \quad \text{l} \quad \text{l} \\ | \quad | \quad | \\ \text{H} \quad \text{L} \quad \text{H} \end{array}$ 는 잘못된 것일 것이다.

약활용의 ka(去)의 활용 변화형에는 다음과 같은 예기되지 않는 형들이  
 $\begin{array}{c} \text{k} \\ \diagdown \\ \text{a} \\ | \\ \text{H} \end{array}$  발견된다.

(67) a.  $\begin{array}{c} \text{k} \\ \diagdown \quad \diagup \\ \text{a} \quad \text{n} \quad \text{t} \\ | \quad | \quad | \\ \text{L} \quad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b.  $\begin{array}{c} \text{k} \\ \diagdown \quad \diagup \\ \text{a} \quad \text{n} \\ | \quad | \\ \text{L} \quad \text{L} \end{array}$       c.  $\begin{array}{c} \text{k} \\ \diagdown \quad \diagup \\ \text{a} \quad \text{n} \\ | \quad | \\ \text{L} \quad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a) 형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약활용의 sə의  $\begin{array}{c} \text{s} \\ \diagdown \quad \diagup \\ \text{e} \quad \text{n} \quad \text{t} \\ | \quad | \quad | \\ \text{H}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가 있으며, (b)의 형에 대  
응하는 것으로는 정연찬(1977)의 이 ka의 활용 변화표에서 실수로 인한  $\begin{array}{c} \text{k} \\ \diagdown \\ \text{a} \\ | \\ \text{H} \quad \text{L} \end{array}$

의 반복이 보이며, (c) 형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약활용의  $\begin{array}{c} \text{m} \\ \diagdown \quad \diagup \\ \text{u} \quad \text{k} \quad \text{ə} \quad \text{p} \\ | \quad | \quad | \quad | \\ \text{O} \quad \text{H} \quad \text{H} \end{array}$ 의  $\begin{array}{c} \text{m} \\ \diagdown \quad \diagup \\ \text{u} \quad \text{k} \quad \text{ə} \quad \text{p} \\ | \quad | \quad | \quad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가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잘못된 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간 ka의 활용 변화표에서 (67)의 형들만을 고려한  
다면, ka가 무핵 어간으로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  
다면, ka가 무핵 어간으로 바꾸어지는 과정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진주·진양 방언에서는 팔호 안의 형들로 나타난다.

오음절 이상으로 된 단어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항목이 동일

한 어간의 활용 변화표 내에서 하나 이상 때로는 여러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어간의 활용 변화표에 어떤 변천이 일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다.

### 2.8. 진주·진양 방언의 성조

경상남도 진주시와 진양군은 고성군과 인접해 있다.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이 지역에서 살아 온 필자의 진주·진양 방언을 토대로, 이 지역 방언의 성조를 고성 방언의 그 것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다른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진주·진양 방언의 자료는 대충 정연찬(1977)에 제시된 것에 대응되는 것만에 한정되며, 이 지역의 방언을 철저하고 또 아주 심각하게는 분석하지 못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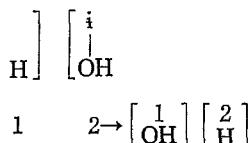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논의될 차이를 제외하고, 앞 절에서 논의된, 예의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들을 팔호 안에 보인 것으로 고쳐 놓는다면, 고성 방언의 성조 체계와 진주·진양 방언의 그 것은 대체로 동일하다.

우선 규칙면에서 고찰하기 위해서, *i*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는 다음 형들을 비교해 보자.(: 오른쪽의 형들은 진주·진양 방언의 것인 바, 앞으로도 이와 같다.)

- (68) a. *kət*(步) : i. *kəl-il* : *kəl-il~kəl-il*      *kəl-in* : *kəl-in~kəl-in*
- |  |  |
|--|--|
|  |  |
|--|--|
- ii. *kəl-iσ* : *kəl-iσ~kəl-iσ*
- |  |
|--|
|  |
|--|
- b. *mək*(食) : i. *mək-il* : *mək-il~mək-il*      *mək-in* : *mək-in~mək-in*
- |  |  |
|--|--|
|  |  |
|--|--|
- ii. *mək-iσ* : *mək-iσ~mək-iσ*
- |  |
|--|
|  |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진주·진양 방언에서는 H-이동 규칙(22)가 그 환경이 아주 단순화된 것이다. 접미사의 모든 *i* 앞에서 어간말의 H가 임의적으로 그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단순화된 다음과 같은 규칙이다.

### (69) H-이동 규칙(H-Movement)



조전 : 암의적이다.

아래에 H-이동 규칙(69)가 임의적으로 적용될 때의 도출을 예시한다.

(70)	a.	i. $\begin{array}{c} \text{kəl} - \text{ił} \\   \quad   \quad   \\ \text{OH} \quad \text{H} \quad \text{OH} \\   \quad   \\ \text{OH} \quad \text{H} \\   \\ \text{L} \\   \\ \text{OH} \\   \\ \text{L} \quad \text{L} \end{array}$	ii. $\begin{array}{c} \text{kəl} - \text{iσ} \\   \quad   \quad   \\ \text{OH} \quad \text{H} \quad \text{OH} \\   \quad   \\ \text{OH} \quad \text{H} \\   \\ \text{L} \\   \\ \text{L} \end{array}$	기저 표시 H-이동 규칙(69) 수평화 규약(3.10)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H-말소 규칙d(20)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표면 표시
b.	i.	$\begin{array}{c} \text{mək}-\text{in} \\   \quad   \\ \text{H} \quad \text{OH} \\   \quad   \\ \text{OH} \quad \text{H} \\   \\ \text{L} \\   \\ \text{OH} \\   \\ \text{L} \quad \text{L} \end{array}$	ii. $\begin{array}{c} \text{mək}-\text{iσ} \\   \quad   \quad   \\ \text{H} \quad \text{OH} \\   \quad   \\ \text{OH} \quad \text{H} \\   \\ \text{L} \\   \\ \text{L} \end{array}$	기저 표시 H-이동 규칙(69)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 H-말소 규칙d(20)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표면 표시

위의 도출에서 빠진, (68)에서의 진주·진양 방언의 변이형들은 H-이동 규칙(69)가 임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것들이다.

다음 형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진주·진양 방언에서는 H-말소 규칙e(58)이 없다.

(71)	a.	$\text{ka(去)} : \text{ka} - \text{as}' - \text{ta} \rightarrow \text{ka} - \text{s}' - \text{ta} : \text{ka} - \text{s}' - \text{ta}$
		$\begin{array}{ccccccccc}   & &   & &   & &   & &   \\ \text{H} & & \text{H} & \text{OH} & \text{OH} & \text{L} & \text{L} & \text{H} & \text{L} \end{array}$
b.	$\text{sə(立)}$	$\text{sə} - \text{əs}' - \text{ta} \rightarrow \text{sə} - \text{s}' - \text{ta} : \text{sə} - \text{s}' - \text{ta}$
		$\begin{array}{ccccccccc}   & &   & &   & &   & &   \\ \text{H} & & \text{H} & \text{OH} & \text{OH} & \text{L} & \text{L} & \text{H} & \text{L} \end{array}$

두 규칙에 관한 위의 논급이 고성 방언과 진주·진양 방언 간의 규칙면에서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어휘면에서는 동일한 어간이면서도, 핵성조 H의 위치, 핵성조 H의 유무

및 약활용 여부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다. 고성 방언에서 일음절 어간의 무해 어간인 것이 진주·진양 방언에서는 모두 어휘상으로 핵성조 H가 이어져 있는 약활용이 아닌 어간이다. 아래의 *čʰup*(寒)을 대표로 하는 형들의 비교에서 그 사정이 드러날 것이다.

(72) a. <i>čʰup-ko</i> : <i>čʰup-ko</i>	b. <i>čʰup-ə-sə</i> : <i>čʰup-ə-sə</i>
L L H L	L H L H L L
c. <i>čʰup-in</i> : <i>čʰup-in~čʰup-in</i>	d. <i>čʰup-ini</i> : <i>čʰup-ini~čʰup-ini</i>
L L H L L L	L H L H L L L H L L
e. <i>čʰup-tə-la-to</i> : <i>čʰup-tə-la-to</i>	f. <i>čʰup-kes'-tə-la</i> : <i>čʰup-kes'-tə-la</i>
L H L L H L L L	L H L L H L L H L L L

이 밖에 고성 방언에서의 약활용의 *k i l i* 가 진주·진양 방언에서 *k i l i* 인  
 $\begin{array}{c} OH \\ \backslash \quad / \\ OH \quad H \end{array}$

‘바, 당연히 약활용에서 벗어나는 어간이다.

고성 방언에서는 어간 *ət*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형들이 L-삭제 규칙  
 $\begin{array}{c} OH \\ \backslash \quad / \\ OH \quad H \end{array}$

(47)과 H-이동 규칙(22)에 대한 예외이다. 그런데, 진주·진양 방언에서는 그러한 형들이 고성 방언과 똑같을 수도 있지만, L-삭제 규칙(47) 및 H-이동 규칙(69)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고성 방언에서는 어휘상의 H가 있는 접미사의 *pni*가 약활용의 어간 *ka* 및 *sə*와 결합되어 *ka-pni-ta*와 *sə-pni-ta*로 되지만, 진주·진양 방언에서

$\begin{array}{cc} H & H \\ & | \\ & L \end{array}$   $\begin{array}{cc} H & L \\ & | \\ L & H \end{array}$   $\begin{array}{cc} H & L \\ & | \\ L & H \end{array}$   $\begin{array}{cc} H & L \\ & | \\ H & L \end{array}$   
 는 이 접미사에 어휘상의 H가 없으며, 그로 해서 *ka-pni-ta*와 *sə-pni-ta*  
 $\begin{array}{cc} H & L \\ & | \\ H & L \end{array}$   $\begin{array}{cc} H & L \\ & | \\ H & L \end{array}$

이다.

### 3. 15세기 한국어의 성조

#### 3. 0. 도 입

이 장에서는 15세기 한국어의 성조 체계를 다루고 있는 바, §1에서 정립된 이론의 태두리 안에서의 이 사례 연구가, §2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그 이론을 정당화할 것이다. 자료는 전적으로 김완진(1977)에서 얻은 것이며, 더구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분석의 대부분을 그의 철저하고도 통찰력 있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의 기술(description) 체계를 거의 그

대로 이 글의 체계로 번역한 곳도 적지 않다. 그가 다른 자료의 주류를 이루는 것도 그러하지만, 여기에서는 15세기 한국어의 토박이 어간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으로 이루어진 음운론적 단어가 주된 자료가 된다. 비핵성조 언어인 15세기 한국어는 어휘상의 BTM을 갖지 않는�다. 네 다섯개의 접미사를 제외하면, 모든 형태소가 어휘상의 BTM을 갖는다. 그리고 §2에서와 마찬가지로, §1에서 이미 다루어진 것은 가능한 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다.

### 3.1. 어간의 성조

15세기 한국어의 성조에 대한 기술의 출발로서 규칙들의 적용을 가장 적게 받고 표면으로 나타나는 다음 명사 어간들의 표면 성조를 살펴 본다.

(1) a. H: kit <sup>h</sup> (끌)      kači(轎)	b. L: son(客)      put <sup>h</sup> yø(부처)
H                  H H	L                  L L
c. HL: søl i(사이)      kač i(가지)	d. LH: kip(繪)      søl i(서리)
H L                  H L	L H                  L H

15세기 한국어는 비핵성조 언어로서, (1)의 형들의 기저 표시는 다음과 같다.

(2) a. H: kit <sup>h</sup> ka č i	b. L: son      put <sup>h</sup> yø
OH                  OH OH	OH                  OH OH
H                  H	L                  L
c. HL: søl i      ka č i	d. LH: kip      søl i
OH OH                  OH OH	OH                  OH OH
H L                  H L	LH                  LH

이 기저 표시에 대한 성조 투사 규칙(1.36)과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sup>a</sup>의 적용으로 다음의 표시가 일어진다.

(3) a. kit <sup>h</sup> ka č i	b. son      put <sup>h</sup> yø
H                  H H	L                  L L
c. søl i      ka č i	d. kip      søl i
H L                  H L	L H                  H L

아직도 (d)의 kip에서의 자유 성조 H가 왼쪽의 TBU에 부착되어 상승조의 성조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put<sup>h</sup>yø-i → put<sup>h</sup>yø-y, po-i → po-y

L L H      L L H L H      L H

등의 도출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동기화된, 앞으로 논의될 자유 H 연결 규칙(31)에 의해서 *kip*은 드디어 상승조의 성조를 갖는 최종적인 표면형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삼음절 어간의 아래의 표면형들을 고려해 보자.

(4) <sup>1</sup>	a. <i>pop o l i</i> (봉우리)	b. <i>č u i l i</i> (주리)
	 L L H	 L H L
	c. <i>kač elpi</i> (비교하)	d. <i>nu y ičʰ</i> (뉘우치)
	 L H H	 L H L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15세기 한국어에서의 BTM을 H, L, HL 및 LH의 넷으로 설정한다면, 위의 형들의 기저 표시는 다음과 같다.

(5)	a. <i>p o g o l i</i>	b. <i>č u i l i</i>	c. <i>ka č e l p i</i>	d. <i>nu y ičʰ</i>
	OH OH H       L	OH OH L       L H	OH OH OH       L H	OH L       LH

위에서의 불투명 성조들은, 앞서의 네 종류의 BTM을 TBU에 부여하는 성조 투사 규칙(1.36)으로도 또는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으로도 예언될 수 없으므로, 어휘상으로 부여된 것이다. 이는 §1.1에서 다루어진 *sɒp*의 어휘상의 표시가  $\overset{\text{OH}}{\text{O}} \overset{\text{H}}{\text{H}}$ 여야 하는 것이 그 OH와 H가 예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위의 기저 표시에 대한 성조 투사 규칙(1.36)의 적용은 다음을 생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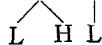
(6)	a. <i>po g o l i</i>	b. <i>č u i l i</i>	c. <i>kač e l p i</i>	d. <i>nu y ičʰ</i>
	 L OH H	 L H L	 L H OH	 L H L

여기서 (a, c) 형들의 OH는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에 의해서 각각 L과 H가 된다. 다만 (a) 형에서 이 규칙의 방아쇠가 원쪽의 L이냐, 오른쪽의 H냐 하는 것은 언어 개별적인 우선 조항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1.3에서 언급되었듯이, 원쪽의 방아쇠가 우선을 갖는다. 그리고 (d) 형에서의 자유 H는 앞서 언급된 자유 H 연결 규칙(31)에 의해서 원쪽의 TBU에 이어져 상승조를 이루게 된다.

앞서의 네 개의 BTM 외에도, (a-c) 형들을 위한 BTM으로 각각 LLH, LHL, LHH를 더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d) 형에서는 LHL의

<sup>1</sup> 적당한 삼음절의 명사 어간을 찾지 못해서, 단독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동사 어간도 예로 든다.

BTM으로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조건’에 의하지 않고서는 상승조가 포함되는 표면의 성조를 알기가 힘들다. (b) 형도, (32)에서와 같이, 그 변이형 (variant)으로 *č u 1 i* 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 꼭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d) 형은 어차피 (5.d)의 어휘상의 표시를 그대로 가질 수 밖에 없다. (a-c) 형들에 관해서는, BTM의 수를 늘리는 것도 우선은 좋다고 하더라도, 삼음절 이상의 어간으로 이러한 BTM을 가져야 하는 어간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네개의 BTM에만 의존하는 (5)의 기저 표시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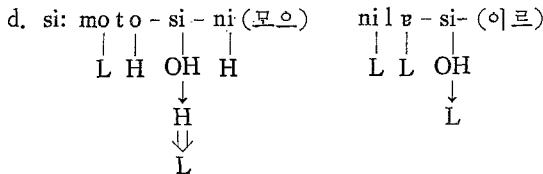
### 3.2. 어휘상의 성조가 없는 접미사

김완진(1977)에 따르면, “그 음절이 거성(=H—필자)으로 실현되는가 평성(=L—필자)으로 실현되는가는 전적으로 그 앞의 음절이 거성이냐 평성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전기적(前倚的) 성조”가 있는데, 이에는 현재형 접미사 *nv*, 추량(推量)의 접미사 *kə*, 이른바 매개 모음류(媒介母音類)의 *i*, 존경의 접미사 *si*와 겸양(謙讓)의 접미사 *səp*의 다섯개가 있다. 또 그는 고정적 평성을 갖는 것으로는 겸양의 어미 *ŋi*, 격 어미 *ŋey*, 어미 *ŋəkiy*, 어미 *təβnay* 와 *βi* 등이 있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접미사들이 고정적 거성을 갖는다고 한다.

위의 인용을 명심하면서,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 특히 OH → T에 주의가 요구된다. (⇒ L은 율동 규칙(41)의 적용 결과이다.)

(7) <sup>2</sup> a. <i>na: -is - au - ni</i> (있)	<i>-au - sam</i> (삼)
$\begin{array}{c}   \\ L \end{array}$ $\begin{array}{c} OH \\   \\ H \end{array}$ $\downarrow$ $\begin{array}{c}   \\ L \end{array}$	$\begin{array}{c}   \\ L \end{array}$ $\begin{array}{c} \diagup \\ H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OH \end{array}$ $\downarrow$ $\begin{array}{c}   \\ H \end{array}$
b. <i>kə: tʰə - kə -</i> (타)	<i>nilk - kə - na -</i> (읽)
$\begin{array}{c}   \\ H \end{math>$	$\begin{array}{c}   \\ L \end{math}$
c. <i>i/a: anč - a - myə</i> (않)	<i>ət - i - ni - la</i>
$\begin{array}{c}   \\ L \end{math}$	$\begin{array}{c} \diagup \\ H \end{math}$
$\begin{array}{c}   \\ OH \end{math}$	$\begin{array}{c} \diagdown \\ OH \end{math}$
$\downarrow$ $\begin{array}{c}   \\ L \end{math}$	$\begin{array}{c}   \\ H \end{math}$
	$\downarrow$ $\begin{array}{c}   \\ H \end{math}$
	$\downarrow$ $\begin{array}{c}   \\ L \end{math}$

<sup>2</sup> (c) 형들에서 와 같아. 매개 모음 *i*는 그 이형태로 *v*를 갖는다. (c) 형에서 나타나는 매개 모음 *i/v*가 (a) 형들에서의 *ni*와 (d) 형에서의 *si* 앞에서 탈락되었다. 그리



어휘상의 성조를 갖지 않는 접미사가 붙는 형들의 기저 표시에서 그러한 접미사에 성조가 부여되는 과정을 위에서 보이고 있다. 기저 표시에서 이미 이어져 있는 성조는 성조 투사 규칙(1.36)과, 앞서의 *kip*에서와 같이, 상승조를 이루는 자유 H 연결 규칙(31)이 이미 적용된 결과이다. (앞으로도 대체로 이러한 것이다.) §1.4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형태소 내부에서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붙는 성조 투사 규칙(1.36)이 성조 규칙으로는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자유 H 연결 규칙(31)이 어간 내에서 적용된다. 즉 형태소 내의 성조가 먼저 부여된 후에 다른 성조 규칙들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d)에서 사실 어간이 L의 BTM을 갖는  $\begin{array}{c} \text{n} \ i \ \text{l} \ \text{a} \ - \ \text{s} \ \text{i} \\ | \quad | \quad | \quad | \\ \text{O} \ \text{H} \ \text{O} \ \text{H} \end{array}$

에서 성조 투사 규칙(1.36)과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에 의해서 LLL-의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위의 (d) 형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

(7)에서와 같이, 어휘상으로 성조가 명시되지 않은 접미사의 OH는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에 의해서 어간의 불투명 성조의 영향을 입어 성조가 부여된다. 이 때, 이 규칙의 적용 방향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언어 개별적인 우선 조항에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이다. 더구나,  $\begin{array}{c} \text{n} \ \text{o} \ \text{p}^h \ - \ \text{a} \ - \ \text{s} \ \text{i} \ - \ \text{n} \ \text{i} \\ | \quad | \quad | \quad | \\ \text{L} \ \text{O} \ \text{H} \ \text{O} \ \text{H} \ \text{H} \end{array} \right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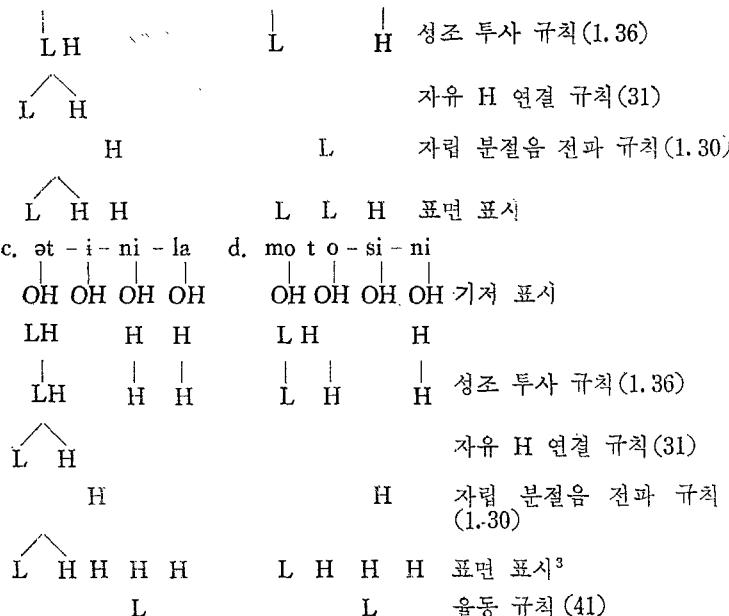
$\begin{array}{c} \text{n} \ \text{o} \ \text{p}^h \ - \ \text{a} \ - \ \text{s} \ \text{i} \ - \ \text{n} \ \text{i} \\ | \quad | \quad | \quad | \\ \text{L} \ \text{L} \ \text{L} \ \text{H} \end{array}$ (높)에서와 같이, 어휘상으로 성조가 없는 OH가 하나 이상 이

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이 규칙의 속성이다.

이제 (7)의 형들을 순수한 기저 표시로부터 도출해 보인다.

(8) a. sam-nə-	b. nilk-kə-na
$\begin{array}{cc}   &   \\ \text{O} \ \text{H} & \text{O} \ \text{H} \\ \text{L} \ \text{H} & \text{L} \end{array}$	$\begin{array}{ccc}   &   &   \\ \text{O} \ \text{H} & \text{O} \ \text{H} & \text{O} \ \text{H} \\ \text{L} & & \text{H} \end{array}$ 기저 표시

고 (d)의 첫째 형에서는 *si*의 OH가 여기서의 OH→H 전에, 접미사 성조 어화 규칙b (22)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L이 될 수도 있다.



위에서와 같이,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에 의해서 접미사 *nv*, *kθ*, *i* 및 *si*가 어간말의 불투명 성조(사실은 어떤 불투명 성조라도 상관 없다)의 영향을 입어 그 성조와 동일한 성조를 갖는 것, 즉 불투명의 H 다음에서 H, 불투명의 L 다음에서 L을 갖는 것이 이를 접미사가 어휘상으로 성조가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준다.

결양의 접미사 *sɒp*은 보다 까다로운 데가 있다. 김완진(1977)은 *sɒp*의 표면의 성조는 “A)선행 어간이 거성으로 되어 있고, 후속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었을 때는 H로, B)선행 어간이 평성이고 후속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어 있으면 R(=상승조 —필자)로, C)선행 어간이 거성이고 후속하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되었을 때에는 HH로, D)선행 어간이 평성이고 후속하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되어 있으면 LH로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이 접미사의 어휘상의 성조를 ‘α-h’로 표시하는데, ‘α’는 그선행하는 방아쇠에 의해서 그 성조가 채워짐을 뜻하며, ‘h’는 어휘상의 성조가 H임을 표시하고, ‘-’는 이 것에 “의해서 연결된 두 요소는 후속 어미의 두음 여하에 따라서 양자간의 연결 관계가 달라”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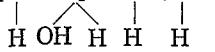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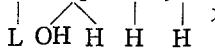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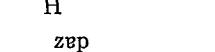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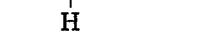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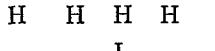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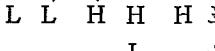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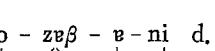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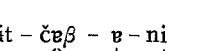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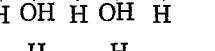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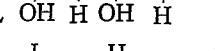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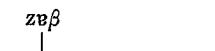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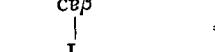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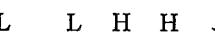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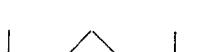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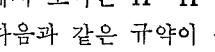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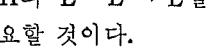
<sup>3</sup> 율동 규칙의 적용 후에 ‘표면 표시’가 와야 하지만, 편의상 이런 순서를 취하는 바, 앞으로도 이와 같다.

결국 기저 성조 ‘α-h’를 갖는 *sas*은 *sas*으로 번역될 수 있는 바, 이의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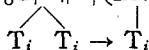
상의 표시에 대한 정당성은 §1.1에서 이미 남김 없이 구명되어 있다.

이 접미사가 전후 관계에 따라 표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는데, 다음 도출에서 (a), (b), (c) 및 (d)는 위의 김완진(1977)에서의 인용문 중의 A), B), C) 및 D)에 각각 해당한다.

(9) <sup>4</sup>	a. po -  zap - ko-čyə	b. tit -  - čəp - ko-čyə	기저 표시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 (1.30)
			수평화 규약(10)
c.			표면 표시
			율동 규칙(41)
d.			기저 표시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 (1.30)
			수평화 규약(10)
			상승조 하강 규칙 (34)
			수평화 규약(10) <sup>5</sup>
			표면 표시
			율동 규칙(41)

위의 도출에서 보이는  $H \swarrow H \rightarrow H$ 와  $L \swarrow L \rightarrow L$ 을 위해서는 아마 보편적인 것일, 다음과 같은 규약이 필요할 것이다.

#### (10) 수평화 규약(Leveling Convention)



이 규약에는  $OH \swarrow OH \rightarrow OH$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sup>4</sup> *zvρ*, *čvρ*, *zvβ*, *čvβ* 등은 모두 *svρ*의 이형태들이다.

<sup>5</sup> 수평화 규약(10)은 구조 기술만 맞으면, 언제나 적용된다.

앞서의 접미사들 *nv*, *kə*, *i* 및 *si*의 경우에서와 꼭 같이, 자립 분절을 전파 규칙(1.30)에 의해서 *səp*의 OH가 어간 말의 불투명 성조의 영향을 입어 그  


성조와 동일한 성조를 갖는다는 사실이 *səp*이 어휘상으로 성조가 명시되지 않는 부분의 OH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입증해 준다.

표면형에서 상승조를 갖는 어간 (7.a)의 *sam*, (7.c)의 *st*과 같은 것은 (8)에서와 같은 기저 표시를 갖지만, *səp*의 이형태인 (9.b)의 표면형 *čəp*에도  


불구하고, *səp*은 위의 어간들에 준하는 어휘상의 표지를 가질 수 없다. (5)의 기저형들에서 규칙으로 예언될 수 없는 성조가 이미 TBU에 연결되어

있듯이, *səp*에서의 도 어떤 규칙으로도 예언될 수 없기 때문에 어휘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하며, OH도 또한 그러해야 하므로, 이의 어휘상의 표시는 마땅히 *səp*이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소는 이 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 3.3.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a

김완진(1977)에 따르면, 다음 (a) 형들에서와 같이, 어떤 평성 어간 다음에서 어휘상으로 성조가 없는 매개 모음 *i*가 거성으로 실현된다. 원을 친 성조에 주의하면서, 다음의 표면형들을 살펴 보자.

(11) a. kisk-i-myə	mək-i-ni	b. anč-e-myə	yənč-e-ni
 L	(H) H	 L	(H) H

그러나 매개 모음 *i*를 갖는 존경의 접미사 *i-si*의 경우에는, (11.a) 형들에서 보이는 어간의 부류에 속하는 어간 다음이건, (11.b)의 그것들의 부류에 속하는 어간 다음이건 상관 없이, 어간의 L 다음에서 *i-si*의 매개 모음 *i*를 전ne 뛰어서 *si*의 OH가 H로 실현된다고 한다. 다음 표면형들에서 이 사정이 드러날 것인 바, 역시 원을 친 성조에 주의가 요구된다.

(12) a. kisk-i-si-ni	čəp-e-si-ni	b. anč-e-si-myə	nəh-e-si-myə
 L	 L	(H) H	 L

이미 앞 절에서 매개 모음 *i*와 *si*는 어휘상으로 OH를 갖는 것임이 입증되었다. (11.b)의 형과 (12)의 형들에서의 매개 모음 *i/n*가 모두 L인 것은 오른쪽으로 적용되는 자립 분절을 전파 규칙(1.30)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11.a)의 형들의 *i*와 (12)의 형들의 *si*가 모두 H인 것은, 오른 쪽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에 의한 것일 수가 없다. 어휘상의 L을 갖는 단음절 어간 중에서도 (11.a)의 형에서의 어간의 부류에 속하는 것 뒤에서 매개 모음 *i*의 OH가 H로 되며, (12)의 형에서는, 그러한 어간의 구분 없이, 어휘상의 L을 갖는 단음절 어간 다음에서 매개 모음 *i*를 뛰어 넣어 *si*의 OH가 H로 된다. 이 현상은 어간 성조와의 이화(dissimilation)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이 이화 현상을 설명하려면, (11. a, 12. a)의 형들의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이 속하는 부류의 것을 [+D]의 구별적 자질로 표지하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진술해야 할 것이다.

(13)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a (Suffix Tone Dissimilation a)

$$\text{OH} \rightarrow \text{H} / \# \# \text{L} \quad \left[ \begin{array}{c} \text{V} + \text{s} \\ \text{OH} \end{array} \right]_{\llbracket \text{+D} \rrbracket}, \quad \left[ \begin{array}{c} \text{V} \\ \text{V} \end{array} \right]$$

조건 :  $a \supset \sim b$

이 규칙에서 우선 ‘조건’에 따라 하위 규칙을 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14)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a.i

$$\text{OH} \rightarrow \text{H} / \# \# \text{L} \quad \left[ \begin{array}{c} \text{V} + \text{s} \quad \text{V} \\ \text{OH} \end{array} \right]$$

이 규칙은 (12)의 형들의 도출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는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a (13)에 대한 ‘조건’  $a \supset \sim b$ 는 대우(contraposition)로  $b \supset \sim a$ 가 된다. 이 조건에 의한, 이 규칙의 또 하나의 하위 규칙은 다음과 같다.

(15)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a.ii

$$\text{OH} \rightarrow \text{H} / \# \# \text{L}_{\llbracket \text{+D} \rrbracket} \quad \left[ \begin{array}{c} \text{V} \\ \text{V} \end{array} \right]$$

이 규칙은 (11.a)의 형들을 위한 것이다. 물론 규약에 의해서 두 하위 규칙은 분리적으로(disjunctively) 적용되어야 하지 만, 만약 이들이 계속적으로(conjunctively) 적용된다면, 예컨대, (12.a)의 형은 \*kisk-i s i-ni로 잘못 도출된다. 이들의 적용 순서는 가장 긴 전개인 규칙 a.i(14)가 먼저이다.

이제 도출의 예를 보인다.

L H H H

(16) kisk] [ + DJ - i - myə kisk] [ + DJ - i - si - ni anč - e - si - myə	L OH H L OH OH H L OH OH H	H H	기저 표시 절미사 성조 이화 규칙 a.i (14)
	H		절미사 성조 이화 규칙 a.ii(15)
	L	L	자립 분절 음 전파 규칙 (1.30)
L	H H L	L H H L L H H	표면 표시

### 3.4.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

김완진(1977)은 “다섯 음절이 내리 거성을 가지게 될 때에는 …이와 같은 거성의 연속에서의 제삼음절의 H가 순수한 H인가, 아니면 아포스트로피를 가진 H, 즉 H'인가에 의해서… 셋째 음절의 거성이 H'일 때에만(즉 HHH·HH일 때에만—필자) HHLHH이 성립되고…”라고 한다. 여기서 H'는 가져온 ‘ $\alpha$ ’ 성조, 즉 어휘상으로 성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접미사 *snp*, *nv*, *ka*, (*i*)*si* 등의 성조가 H로 된 것을 가리킨다. 이 인용의 취지를 명심하고서, 다음을 살펴 보되, 특히 원을 친 이들 접미사의 표면의 성조에 주의해야 한다. (→L은 율동 규칙(41)의 적용 결과이다.)

- (17) a. i.  $\text{i} \text{ləh-kə-nil-za} \rightarrow \text{i} \text{ləh-kə-nil-za}$  (이령)

ii.  $\text{nək i - za} \rightarrow \text{-a - βəz-i - nək}$  (나기)

iii.  $\text{kačəlpi - si - ni - la} \rightarrow \text{kačəlpi-si-ni-la}$  (카교하)

iv.  $\text{al - a - si - ne - ni - la} \rightarrow \text{al - a - si - ne - ni - la}$  (알)

b. <sup>6</sup> i.  $\text{ti - nə - ni - la} \rightarrow \text{ti - nə - ni - la}$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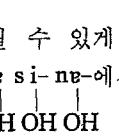
<sup>6</sup> 어간 *til*의 *l*이 *n* 앞에서 탈락되었다.

ii.	$\text{nilk-kə-na} \rightarrow \text{nilk-kə-na}$ (읽)
	$\begin{array}{ccccccc}   &   &   &   &   &   \\ L & OH & H & L & L & H \\   &   &   &   &   &   \\ L & OH & H & H & L & H & H \end{array}$
iii.	$\text{pi l i - nə - ni-la} \rightarrow \text{pi l i - nə - ni-la}$ (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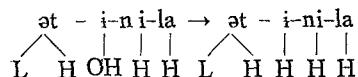
(b) 형들의 ①는 말할 것도 없이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에 의한 것이지만, (a) 형들의 ②은, 이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H 다음에서 L로 되는 이화 현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a. i-iii)의 형들에서는 L이 부여될 접미사의 OH 앞에 H가 있고, (a. iv)의 형에서는 그 OH 앞에 두 개의 OH를 견너서 H가 있다. 그러나 (b. i)의 형에서는 접미사의 OH 앞에 H가 있어도 그 OH가 L로 되지 않는다. (b. i)의 형과 (a. i-iv)의 형들을 비교해 보면, 전자에서는 문제의 OH 앞의 H 앞에 어떤 성조나 OH도 오지 않는데 반해서, 후자에서는 문제의 OH<sub>0</sub> OH 앞 H 앞에 H, L, LH, 또는 이 있다. 따라서, L이 부여되어야 하는 접미사의 OH 앞 OH<sub>0</sub> 앞의 H 앞에는 또 다시 어떤 것이든 성조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제 (17)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진술될 수 있다.

#### (18)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 (Suffix Tone Dissimilation b)

$$\text{OH} \rightarrow \text{L} / |\text{H } \text{OH}_0 \underline{\quad}$$

이 규칙에서의 촛점 OH는 바로 김완진(1977)의 H'에 해당되는 것이며, 연결선 |는 (17. a)에서처럼 OH<sub>0</sub> 앞 H 앞의 성조가 의 어떤 것도 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곧 언급되겠지만, OH<sub>0</sub>도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이 규칙에서의 OH<sub>0</sub>는 (17. a. iv)에서의 연속 에서처럼 OH가 몇

개든지 읊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인 바, 이 때 먼저 OH<sub>0</sub>의 가장 긴 전개(longest expansion)가 포함되는 규칙이 적용되며, 이 것으로 묶인 하위 규칙들은 규약에 따라 서로 분리적으로 적용된다.

매개 모음 i도 어휘상으로 성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에서처럼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 (18)의

<sup>7</sup> 이 H'는, 어휘상의 H가 없는 접미사의 OH에서 일어진 H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것을 언급해야 하는 규칙은 절체 규칙의 성격을 띤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더 듣다면,  $p^h\acute{e}t\acute{i}-za\beta-a-ni$ (폐지)에서 이 규칙의 적용으로  $za\beta$ -으로는 되어도  $\betaaz$ 이 되는, 이 규칙의 구조가 술에 맞기는 하나, 가가 a로 되는  $*za\beta-a-ni$ 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p^h\acute{e}t\acute{i}-za\beta-a-ni$ 의 도출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9) $p^h\acute{e}t\acute{i}-za\beta-a-ni$	기저 표시
H   H   OH   H   OH   H	
L                    H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18)
L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상승조 하강 규칙(34)
za\beta	수평화 규약(10)
L	
H   H   L        H   H	표면 표시

이와 같이, 매개 모음 i를 접미사 하강 규칙의 촛점에서 제외하려면, 그 촛점의 환경이  $\mu$ 로 좁혀져야 한다. 이 환경에서  $\mu$ 는 형태소(morpheme)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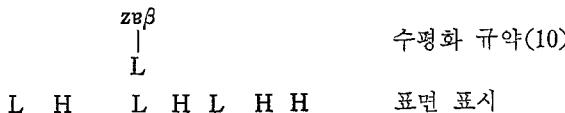


리키는 바, V가 선행하는 자음 C와 동일한 형태소에 속해야 함을 나타낸다.

즉 [si]<sub>μ</sub>, [sa]<sub>μ</sub>, [ən]<sub>μ</sub> 및 [kə]<sub>μ</sub>i]지만, 매개 모음 i가 나타나는 앞서의 et-in-i-에서와 (19)의 형에서의 -za\beta-a-ni에서의 연속 t-i와 \beta-n의 CV는 동일한 형태소에 속해 있지 않다.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b(18)이 두 곳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단어의 도출을 보인다.

(20) syəmki - za\beta - a - si - ni-la (첨기)	기저 표시
L   H   OH   H   OH   OH   H   H	
L                    L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18)
H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L	상승조 하강 규칙(34)



(18)의 적용을 입고 있다. 그리고  $\overbrace{-az-}^{a}$ 에서의 첫 번째 OH가 접미사

$$\text{OH} \quad \text{H} \quad \text{OH} \quad \text{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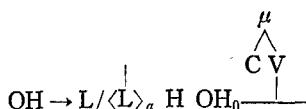
사 성조 이화 규칙 b(18)의 구조 기술에서의 연결선 | 가 OH에 의해서 차지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18)에 대한 예외 항목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til-<sup>i</sup>-in-<sup>e</sup>-taz-i*(들), *a-<sup>u</sup>-na-<sup>u</sup>-la*(일)<sup>8</sup>(→ L은 율동 규칙(41)의 적용

$$\begin{array}{ccccccc} & L & H & H & H & H & H \\ & | & | & | & | & | & | \\ & L & & & & & L \end{array}$$

결과이다) 같은 것이 있는데,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18)의 연결선 |에 자리하는 성조가 L일 때가 그러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7. a. ii, iv)와 (20)의 형들이 이 규칙의 연결선 |에 L이 자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18)의 구조 기술을 바꾸는 것을 막고 있다. 다만 연결선 |에 L이 올 때에는 이 규칙이 임의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규칙이 적용된 (17. a. iv)의 형과 적용되지 않는 *a-np-ni-la*는 다같이 어간 *al*로 이루어진 단어들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b(18)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고쳐 진술된다.

(21)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 (Suffix Tone Dissimilation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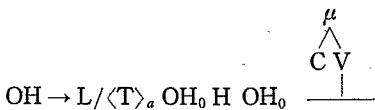
조건 ; a면, 임의적이다.

그러나 이 규칙에 꺼림칙한 점이 있다. 김완진(1977)이 이 규칙이 하는 구실을 울동 규칙의 그것으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규칙을 H 성조들 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3.9에서 다루어진, 울동 규칙의 질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규칙의 구조 기술에서 연결선의 자리에 놓이는 것이 H일 때에 이 규칙의 적용이 의무적(obligatory)이며, L일 때에 그것이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H 성조들 간의 충-

<sup>8</sup> *al*의 어간말 *l*이 *n* 앞에서 탈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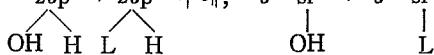
돌의 압력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선의 자리에 놓이는 것이 OH일 수도 있다는 것은 어떠한 H 성조들 간의 충돌의 관점에서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이 규칙은, 그렇다면, 다시 다음과 같이 고쳐 진술되어야 할 것인 바, H 앞의 OH<sub>0</sub>의 필요는 도출(49)에서 그 해답이 얻어질 것이다.

(22)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 (Suffix Tone Dissimilation b)



조건 : a가 L이면, 임의적이다.

이 규칙은, (20)의 도출에서처럼, 동시에 두번 적용될 수도 있으며, 또는 -daz- → -is-a- → -is-a- → 후에 -daz- → -da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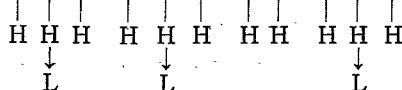


### 3.5. 어간 성조 상승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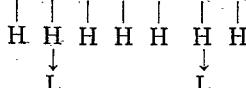
김완진(1977)은 “순수한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들 가운데서 ‘튼-’〈乘〉, ‘츠-’〈滿〉, ‘크-’〈大〉 등과 같이 항상 거성을 유지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서 산발적으로 거성을 띠우는 일이 있는 어간의 성조는 후행 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평성 또는 거성으로의 성조 실현이 결정된다”고 하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간들은 *si*, *nv*, *snp* 및 *a* 등의 어미 앞에서 거성으로 실현된다고 한다. 그의 예들을 살펴 보면, *ta*나 *kə* 앞에서도 어간의 성조가 거성으로 실현된다. 또한 그는 “순수한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으로서 고정적 평성을 실현하는 것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단은 이들을 평성 어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어간은 모두, Lee (1978)에서 지적된 대로, 모음으로 끝나는 단음절 어간들이다.

이 내용을 파악하고서, 이제, 어간 *ka(가)*와 *o(오)*를 대표로 삼는 다음 예들을 살펴 보자. (→L은 율동 규칙(41)의 적용 결과이다.)

(23) a. i. ka-si-ni ka-na-ni ka-a ka-tə-ni



ii. o-ka-na o-zəp-tə-ni



b.	i.	ka-ni    ka-la    ka-ko-    ka-li-ni    ka-kəy
		L    H    L    H    L    H    L    H    L    H
	ii.	o-ni    o-la    o-kəy    o-ni-gi-ta
		L    H    L    H    L    H    L    H    L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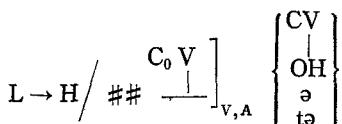
위의 형들에서, (a) 형들에서 보이는 접미사 *si*, *nv*, *kə*, *svp*을 제외하면, 모든 접미사의 성조는 어휘상의 것이다.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어간의 어휘상의 성조는, 위의 인용에서와 같이, L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어간의 어휘상의 성조를 H라고 가정해 보자. (a) 형들에 관해서는, 어휘상의 OH를 갖는 접미사는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에 의해서 성조가 일어지며, 이미 어휘상으로 H가 연결된 접미사를 가진 형들은 그대로 표면형이 된다. (b) 형들에 관해서는, 어간의 어휘상의 H가 모두 어휘상으로 H가 연결된 접미사 앞에서 L로 되어야 표면형들이 일어진다. 이렇게 되면, 첫째, 접미사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대충 보아서, 문제의 H→L 규칙에서 열거되어야 할 접미사의 수가, 어휘상의 어간 성조를 L로 설정할 때의 L→H 규칙에서 열거되어야 할 것보다 더 많아진다. 둘째로, 앞서 언급된 *tʰv*, *cʰv*, *kʰi* 같은 어간들의 어휘상의 H가 H→L 규칙에 대한 예외 항목이 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구별적 차질의 표지가 필요하다(모음으로 끝나는 일음절의 어간은 모두 어휘상으로 H를 갖는다는 일반성은 있지만). 반면에 L→H 규칙의 관점으로는, 첫째, 다음 어간 성조 상승 규칙(24)에서 보이는 대로, 열거해야 할 접미사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어휘상으로 성조가 없는 접미사들이 CV로 끝나는 일반성이 있다. 둘째,

OH

로, 어휘상의 H를 갖는 *tʰv*, *cʰv*, *kʰi* 등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들에는, 그것들이 구별적 차질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어간 성조 상승 규칙(24)가 공허하게(vacuously) 적용된다. 이제 문제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

#### (24) 어간 성조 상승 규칙 (Stem Tone Raising)



이 규칙에서 CV는,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어휘상의 성조가 없는 접미사들

OH

*si*, *nv*, *svp*, *kə*를 포함한다. 이제 다음에서 (a) 형들의 도출의 예만 보이

는데, (b) 형들은 모두 기저 표시가 그대로 표면으로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이다.

(25)	a.	i. ka - si - ni L OH H	ka - a L H	ka - tə - ni L H H	ii. o - zap - - tə - ni L OH H H H	기저 표시
		H	H	H	H	어간 성조 상승 규칙(24)
					H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zap H	수평화 규약(10)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표면 표시		
		L L	L	L	율동 규칙(41)	

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어간 성조 상승 규칙(24)의 적용으로 H가 된 어간의 성조가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의 방아쇠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규칙의 적용 순서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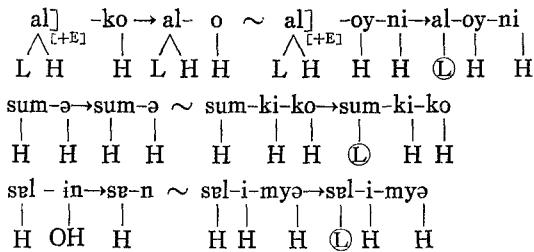
### 3.6. 어간 성조 하강 규칙

김완진(1977)은 ‘‘x’’로 표시하고 말소자(抹消子)라고 읽는 단위를 설정하여 어간에서의 거성의 변질에 설명을 기할수 있다. …말소자는…특정한 접미사 형태소에 얹혀 있다. 용언 쪽에서는 과동의 접미사나 사역의 접미사에 자동적으로 붙어 다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말소 작용의 공통점은 어간의 거성을 끌어내어 발화 밖으로 밀어낸다고 할 수 있는 성질의 작용이다. …어간 전체의 성조가 하나의 h<sup>0</sup>뿐일 때, 또는 l-h일 때, 비로소 말소자의 말소 작용은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어간 전체의 성조가 하나의 h<sup>0</sup>뿐” 이란 것은 단음절의 어간으로 H를 가진 것을 가리키며, ‘l-h’의 어근은 앞서 §1.1에서도 언급되었으며, 나중에 §3.8에서 다루어질 것인데, 구별적 차질 [+E]를 갖는 용언이다. 상승조를 갖는 [+E]의 어간은 언제나 단음절이므로, 문체의 어간은 일음절의 것에 한정된다. 이 인용의 취지를 명심하고, 동시에 원을 친 성조에 주의하면서, 다음의 예들을 살펴 보자. (어간은 *il*(成), *al*(yal), *sum*(숨), *svl*(燒) 등이다.)

(26) <sup>10</sup>	il]	[+E]	il]	[+E]	- i -	- au -	~	- au -	→	- au -	→	- il -	- ok-daz -	- i -	- ok-daz -	- i -	- ok-daz -	- i -	- ko
	L H	OH	L H H	L H		OH	OH	H H		①	L	L H H							

<sup>9</sup> 김완진(1977)에서는 대체로 h, l은 기저상의 것이며, H, L은 율동 규칙 전의 표면의 것이다.

<sup>10</sup> *i-nv-*에서의 어간말의 *l*은 *n* 앞에서 탈락되었고, *al-o-*에서 는 접미사의 *k*가 *l*



이근 다음의 *i*, *oy*, *ki*, *i* 등은 모두 사역(causative) 또는 괴동(passive)의 파생 접미사들이며, 어휘상으로 성조가 있는 *i*를 제외한 나머지 파생 접미사들은 모두 어휘상의 성조가 H이다. 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역 또는 괴동의 파생 접미사가 붙는 경우에만, 어간의 H가 L로 바뀐다. 그러나 상승조에서는 그 H가 L로 바뀌면,  $\begin{smallmatrix} \diagup \\ L \end{smallmatrix}$ 로 되었다가 다시 수평화 규약(10)에 의해  $\begin{smallmatrix} \diagdown \\ L \end{smallmatrix}$ 이 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진술될 수 있다.

#### (27) 어간 성조 하강 규칙(Stem Tone Lowering)

$$H \rightarrow L / \# \# < \begin{smallmatrix} \diagup \\ \diagdown \end{smallmatrix}_a \longrightarrow \left[ \begin{array}{c} X \\ \langle [+E] \rangle, \end{array} \right]_{\{ [+CAUS], [+PASS] \}}$$

조건 : a면, b이다.

이 규칙은 촛점 H는 일음절 어간의 것이라는 것, ‘조건’은 곡선 성조, 즉 상승조의 성조를 가진 어간이면, [+E]의 구별적 자질을 가진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과 어간은 사역 또는 괴동의 접미사에 의해서 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래에서 이제 (26)의 사역 및 괴동의 형들의 도출을 예시한다.

$$(28) \begin{array}{ccccccc} il & - i & - zap-ko & al & - oy-ni & sum-ki-ko & \text{기저 표시} \\ \begin{smallmatrix} \diagup \\ L \end{smallmatrix} & \begin{smallmatrix} \diagdown \\ H \end{smallmatrix} & \begin{smallmatrix} \diagup \\ H \end{smallmatrix} & \begin{smallmatrix} \diagup \\ L \end{smallmatrix} & \begin{smallmatrix} \diagdown \\ H \end{smallmatrix} & \begin{smallmatrix} \diagup \\ H \end{smallmatrix} & \end{array}$$

L                    L                    L                                  어간 성조 하강 규칙  
(27)

$$\begin{array}{ccccc} il & & al & & \text{수평화 규약(10)} \\ | & & | & & \\ L & & L & & \end{array}$$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다음에서 탈락되었으며, *sv-n*은 *l* 다음에서의 *s*의 탈락과 *n* 앞에서의 *l* 탈락의 결과이다. 그리고 *al-o*와 *svl-i*의 어간말의 *l*은 음절 말의 것이다(cf. 이병건 : 1982).

L L L H H L H H L H H 표면 표시

가장 왼쪽 형의 도출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어간 성조 하강 규칙(27)로 생긴 L이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의 방아쇠가 되므로, 이 두 규칙의 적용 순서는 위의 도출에서와 같아야 한다.

### 3.7. 자유 H 연결 규칙

김완진(1977)에 다음과 같은 예들이 제시되어 있다.

(29) a. i.	$h\acute{e} - i \rightarrow h\acute{e}-y$ (하)	ii.	$po - o \rightarrow po-\phi$ (보)
	$\begin{array}{ccccccc}   &   & \diagup \\ L & H & L & H \end{array}$		$\begin{array}{ccccccc}   &   & \diagup \\ L & H & L & H \end{array}$
b. i.	$i s i - u \rightarrow isy-u$ (있)	ii.	$h\acute{e} - o \rightarrow h\phi-o$ (하)
	$\begin{array}{ccccccc}   &   &   &   &   \\ L & L & H & L & H \end{array}$		$\begin{array}{ccccccc}   &   &   &   \\ L & H & & H \end{array}$

⟨a. i, b. i⟩ 형들에서의  $i \rightarrow y$ 는  $i$ 를 모음 전파 후에서 활음화하는 활음 형성 규칙에 의한 것이며, ⟨a. ii⟩ 형에서의 모음  $o$ 의 삭제는 동일한 모음의 연속에서 후자를 삭제하는 모음 삭제 규칙에 의한 것이고, ⟨b. ii⟩ 형에서의  $o$ 의 삭제는  $i/\phi$ 를 모음 앞에서 삭제하는  $i$ -삭제 규칙에 의한 것이다.

(29)에서의 기저형들에 위에서 언급된 규칙들이 적용된 후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30) a. i.	$h\acute{e}-y$	ii.	$po-\phi$	b. i.	$i s y - u$	ii.	$h\phi-o$
	$\begin{array}{cc}   &   \\ L & H \end{array}$		$\begin{array}{cc}   &   \\ L & H \end{array}$		$\begin{array}{ccc}   &   &   \\ L & L & H \end{array}$		$\begin{array}{cc}   &   \\ L & H \end{array}$

여기에서 올바른 표면형들을 얻기 위해서는, (a) 형들에서는 활음 형성 규칙과 모음 삭제 규칙의 적용 결과로 생긴 자유 H가 L이 연결된 왼쪽의 TBU에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b) 형들에서는 활음 형성 규칙과  $i$ -삭제 규칙의 적용 결과로 생긴 자유 L은 어디에도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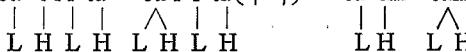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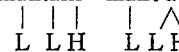
### (31) 자유 H 연결 규칙(Free H Association)

자유 H를 왼쪽의 TBU에 연결하라.

(30. b) 형들에서의 자유 L은 보편적인 규약에 의해서 없어진다.

(1)의 형들로 돌아 가서, (1. d) 형들에서처럼, 일음절 어간에 상승조의 성조가 있으나, 반면에 (1. c) 형들에서처럼, 일음절 어간에, 이음절 어간에는  $|$ 이 있는데 불구하고,  $\begin{array}{c} \diagup \\ H \quad L \end{array}$ 의 하강조 성조(falling tone)가 없는 그려

한 틈을 발견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틈에 대한 해답을 다름 아닌 자유 H 연결 규칙(31)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근 내에서의 상승조는 활음 형성 규칙, *i*-삭제 규칙, 모음 삭제 규칙 등의 어근 내에서의 적용 결과에 대한 자유 H 연결 규칙(31)의 적용으로 인한 어근 형태소의 재구성으로 생겨 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Lee(1978)가 허옹(1963:275)에서 인용한 다음 (a)의 변이형들과 이기문(1972:147)에서의 (b)의 그 것들을 살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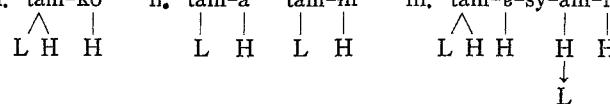
- (32) a. ču i l i-ta ~ ču l i-ta(주리)      tu ilh~tulh(둘)  
  
 b. maktahi~maka y(막대기)  


이 변이형들이 어근 내에서의 상승조 형성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 한국어에서 하강조가 없는 것은 (30. b) 형들에서 볼 수 있듯이, 활음 형성 규칙과 *i*-삭제 규칙의 결과로 생긴 자유 L을 연결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3.8. 상승조 하강 규칙

김완진(1977)은 “체언 어간에서 볼 수 있는 상성은 모두 고정적 l•h형으로 다음에 모음계 접미사가 오든 자음계 접미사가 오든, 아무런 영향을 받는 일이 없이 항상 R로의 실현이 보장”되지만, 용언에는 고정적 상성 ‘l•h’를 갖는 어간들 외에도 유동적 상성 ‘l-h’를 갖는 어간들이 있는데, 물론 앞서의 ‘*a-h*’의 *sep*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아래에 든 예들에서 (a) 형들은  


‘l-h’의 어간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며, (b)의 것들은 ‘l•h’의 어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간은 *tam*(담), *syalp*(쉽), *kop*(곱) 등이며, →L은 율동 규칙(41)의 적용 결과이다.)

- (33)<sup>11</sup> a. i. tam-ko      ii. tam-a      tam-in      iii. tam-a-sy-am-i  


<sup>11</sup> (a. iii) 형에서의 *y*는 *i→y*의 결과이고, (b. ii-iii) 형들에서의 *β*는 *p*의 이음(allophone)이다. 그리고 (b. iii) 형에서의 *si*의 L은 율동 규칙(41)의 적용 결과일 수도 있으며, 또한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22)의 적용 결과일 수도 있다.

b. i.	$\text{sy} \underset{\wedge}{\text{o}} \text{l} \text{p-ko}$	ii.	$\text{sy} \underset{\wedge}{\text{e}} \text{l} \beta \text{-ə}$	iii.	$\text{k} \underset{\wedge}{\text{o}} \beta \text{-ə-s i-ko}$
	L H H		L H H		L H H L H

(a. ii) 형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서  $\begin{matrix} L & \diagup \\ & H \end{matrix}$ 이 L로 된다. 그레

나 김완진(1977)에서 지적된 대로, (a. iii) 형에서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인데도 존경의 접미사 *i-si* 앞에서는 이러한 하강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33)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동적 상성을 갖는 '1-h'의 어간들, 즉 기저상으로 단음절 어간이며, BTM으로 LH를 갖는 것 중에서 (33.a)의 어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은 고정적 상성을 갖는 '1-h' 어간, 즉 (33.b)의 어간의 부류에 속하는 것과 구별되게끔, 구별적 자질, 예컨대, [+E] 같은 것으로 표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E]의 어간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존경의 접미사 *i-si*가 오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서 L로 된다는 규칙을 전술해야 한다. 이제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전술된다.

(34)<sup>12</sup> 상승조 하강 규칙 (Rising Tone Lowering)

$$H \rightarrow L / L \begin{array}{c} \diagup \\[-1ex] \diagdown \end{array} ]^{+E} [VX$$

조건 :  $X \neq si$

아래에 (33. a) 형들의 도출을 보인다.

(35) a. i.	$\begin{array}{c} \text{tam}] \\ \diagup \quad \diagdown \\ \text{L} \quad \text{H} \end{array}$	$\begin{array}{c} -\text{ko} \\   \\ \text{H} \end{array}$	ii.	$\begin{array}{c} \text{tam}] \\ \diagup \quad \diagdown \\ \text{L} \quad \text{H} \end{array}$	$\begin{array}{c} -\text{in} \\   \\ \text{OH} \end{array}$	기저 표시
------------	--------------------------------------------------------------------------------------------------	------------------------------------------------------------	-----	--------------------------------------------------------------------------------------------------	-------------------------------------------------------------	-------

## H 자립 분절을 전파 규칙(1-30)

상승조 하강 규칙(34)

tam  
|  
L 수평화 규약(10)

L H H L H 표면 표시

iii. tam] - a - s - i - am - i      기저 표시  
 L H      OH OH H H

<sup>12</sup> 이 규칙은 어간 성조 하강 규칙(27)과 합쳐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H H y	차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활음 형성 규칙
L H H H L H H L H H L H H $\wedge \quad \wedge \quad   \quad  $	표면 표시 율동 규칙 (41)

김완진(1977)은 “사역형이나 괴동형의 ‘-이-’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상성은 l·h형으로 행세한다.”고 한다. 다음에서 그 예를 보인다.

(36) po - i - a → po-y-ya      na - i - ə → na-y-yə
L H H    L H    H    L H H    L H    H $\wedge \quad   \quad   \quad   \quad   \quad   \quad  $

위의 인용은 이 형들의  $\wedge \backslash$ 가 상승조 하강 규칙(34)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뜻인 바, [+E]의 구별적 차질이 표지되는 것은 단음절의 용언 어간으로 어휘상으로 LH의 BTM을 갖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형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36)의 형들에서의 y-삽입 규칙은 곧 (37)의 형들과의 관계에서 설명이 있겠으나, i→y의 활음 형성 규칙 후에 적용되는 것이다.

상승조 하강 규칙(34)과 관련해서 규칙의 적용 순서가 결정적인 것이다. 이 규칙은 어떤 k를 l이나 y 뒤에서 삭제하는 k-삭제 규칙 및 어간말의 y 뒤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 y를 삽입하는 y-삽입 규칙보다 앞서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 도출을 살펴 보자.

(37) a. al <sup>[+E]</sup> -ko	b. puy <sup>[+E]</sup> -ə(空)	
L H    H $\wedge \quad  $	L H    H $\wedge \quad  $	
L	상승조 하강 규칙(34)	
puy	수평화 규약(10)	
 L		
al-φo	puy-yə	k-삭제 규칙 및 y-삽입 규칙
L H H $\wedge \quad   \quad  $	L    H $  \quad  $	

(a)에서의 도출이 아니고, 거꾸로 k-삭제 규칙 뒤에 상승조 하강 규칙(34)를 적용한다면, 잘못된 \*al-φo가 생길 것이며, 또한 (b)에서의 도출 대신에

y-삭제 규칙 다음에 상승조 하강 규칙(34)가 적용된다면, 옳지 못한 \*puy-y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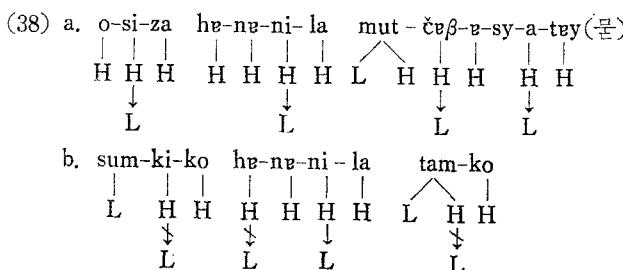
L H H  
 $\wedge \quad | \quad |$

가 발생할 것이다.

### 3.9. 울동 규칙

김완진(1977)은 “‘거성 불련삼(去聲不連三)’의 법칙이라 불렸던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제이규칙에 해당하거니와 거성이 세 이상 연속될 때, 중간에 있는 거성을 평성으로 전환시켜 단조로운 거성의 연속을 지양하는 것을 생티로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경우로서 세 음절 모두가 거성을 가지게 되어 있는 단어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이 때에는 가운데 있는 거성이 평성으로 변한다. 즉, #HHH#→#HLH#”라고 한다. 그는 이어서 거성이 네개, 다섯개, 여섯개 연속될 경우의 각각의 규칙 HHHH→HHLH, HHHHH→HLHLH, HHHHHH→HHLHLH를 들고 있다. 다음 예들이 위의 인용의 취지

를 예증해 줄 티인 바,  $H \rightarrow L$  및  $H \rightsquigarrow L$ 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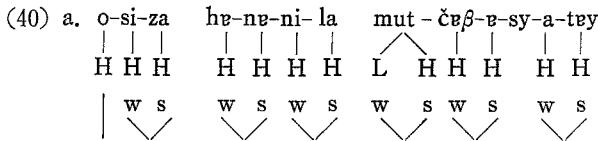
위의 예들을 검토해 보면, 오른쪽 끝에서부터 짹수의 H가 L로 바꾸어지는데, 그 H는 또 하나의 H에 의해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울동 규칙(Rhythm Rule)을 얻기 위해서는 Hayes(1981) 등에서 보이는 운율의 나무(metrical tree)를 형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제 이 울동 규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성조 음보(tonal foot) 형성 규칙이 전술될 수 있다.

#### (39) 성조 음보 형성 규칙(Tonal Foot Formation)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한적(bounded) 오른쪽 우세의(right-dominant) 성조 음보를 형성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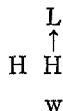
위에서 ‘제한적’은 양분 가지치기(binary branching)를 하는 것이며, ‘오른쪽 우세의’는 일반적인 경우에 양분 가지치기의 오른쪽 마디(node)가 *s*, 왼쪽 마디가 *w*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제 ‘→L’을 고려하지 않는 (38. a)의 형들에 위의 규칙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나무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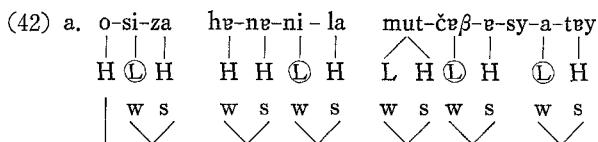


여기에서 (38.a) 형들에서의  $H \rightarrow L$ 을 이룩하려면,  $w$ 의 지배를 받는  $H$ 가, 또 하나의  $H$ 에 의해서 선행될 때에,  $L$ 로 바뀐다는 취지의 율동 규칙을 진술해야 할 것인 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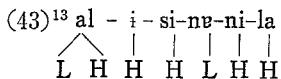
(41) 율동 규칙(Rhythm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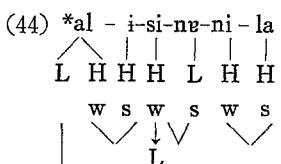
이 규칙의 적용으로 다음과 같은 원하는 바의 올바른 표면형이 얻어진다.



이 것으로 율동 규칙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른쪽 끝에 서부터,  $H$ 만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L$ 이 끼이는 수도 있고, 더구나 세개 이상의  $H$ 의 연속이 단어의 중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살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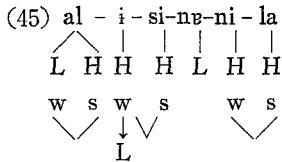


이 형은 율동 규칙(41)의 적용으로 그 성조가  $L^{\wedge}HLHLHH$ 로 바꾸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로의 성조 음보 형성 규칙(39)의 적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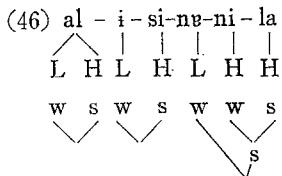


<sup>13</sup> 이 형에는 접미사 성조 이화 규칙 b(22)가 임의적으로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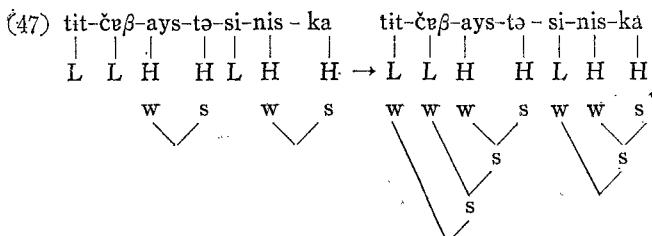
따라서, 성조 음보 형성 규칙(39)에는 *s*는 L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제약(constraint)이 지워져야 하며, 이는 아마 언어 보편적인 것일 것이다. 이로써 (43)의 형에 대한 성조 음보 형성 규칙(39)의 올바른 적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시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운율의 나무를 형성하는 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길잃은(stray) L이 있는데, 이 L은 보편적인 길잃은 성조 부가 규약(Stray Tone Adjunction Convention)<sup>14</sup>에 의해서 오른쪽 음보의 약한(w) 마디(node)가 되어 다음과 같은 나무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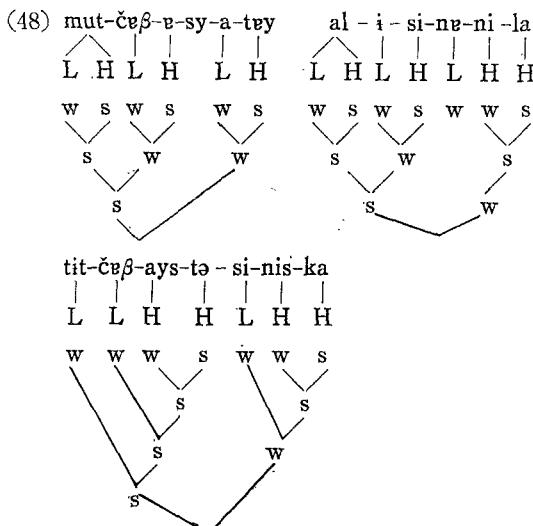
다음에서와 같이, 길잃은 L이 두개(또는 그 이상)가 있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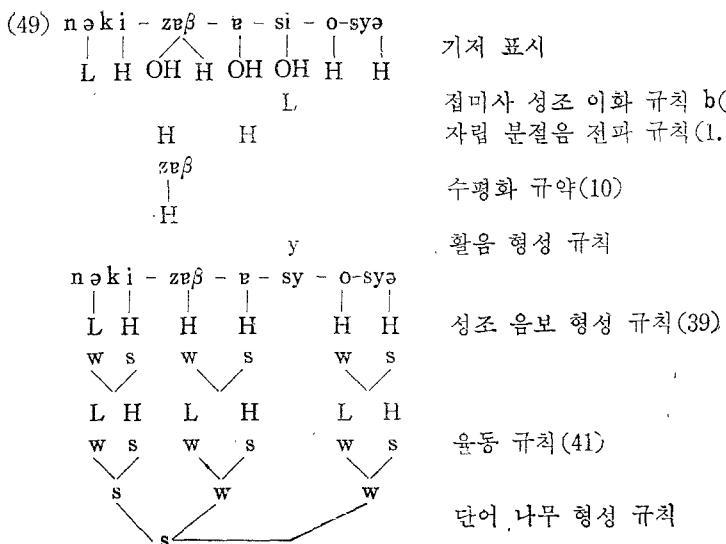
성조 음보 형성 규칙(39)과 울동 규칙(41)의 적용 후에 길잃은 성조를 부가하고 나서 형성될 단어 나무(Word Tree)를 상상해볼만하다. 15세기 한국어를 성조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조의 하향 변화(downdrift)를 하는 것으로 추정해 본다면, 단어 나무는 왼쪽으로 가지치는(left-branching) 무제한적(unbounded) 왼쪽 우세의(left-dominant) 것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sup>14</sup> 이 규약은 Hayes(1982)의 길잃은 음절 부가(Stray Syllable Adjunction) 규약과 비슷한 성질의 것이다.

아래에 이 단어 나무 형성의 예를 보이는 바, 이는 문현상으로 입증되지 않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추정적인 나무 형성 규칙을 빼고서는, 마지막을 차지하는 율동 규칙(41)의 진술이 끝났으니, 이제 기저 표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를 규칙으로 끝나는 도출의 예를 보인다.



끝으로, Leben(1982)에서도 운율 음운론과 자립 분절음 음운론의 분업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율동 규칙의 입력을 만들어 주는 성조 음보의 형성 전까지는 성조(넓게는 자립 분절음 모두)가 자립 분절음 음운론의 영역이며, 성조를 다루더라도, 음보 형성이나 율동 규칙 등은 운율 음운론 또는 격자(Grid) 이론의 영역인 것 같다. Hulst and Smith(1982)에도 성조의 하향 변화 현상을 운율 음운론적으로 해석하는 예가 보인다. 그리고 영어와 같은 강세 액센트 언어에서는 음보(foot) 형성이나 율동 규칙은 물론이려니와 강세의 부여 등은 운율 음운론의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Goldsmith(1976, 1981b)에서와 같이 영어를 펴쳐 액센트 언어, 즉 핵성조 언어로 다룬다면,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핵성조 H에서 출발해서 양극성 성조 부여 규칙(1.25)과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1.30) 등의 적용은 자립 분절음 음운론의 영역이다. 결론적으로, 인위적인 분업은 있을 수 없으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직 기술상의 자연성일 것이다.

### 3.10. 상성의 문제

이기문(1972: 147)은 “15세기의 상성을 저조와 고조의 병치로 해석”하고 있으며, Lee(1978)도 상성을, 두 모라에 놓여 있는 L과 H의 병치로 다루고 있다.

분절음 이론(segmental theory)은, 하나의 분절음 내에서 자질의 연속(sequence of features)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곡선·성조를 다루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원래 자립 분절음 음운론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자립 분절음 음운론의 테두리 안에서는 자립 분절음층에서 곡선 성조를 갖는 단모음이 V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해서 15세



기 한국어와 고성 방언의 상성이 두 모음(또는 두 모라)에 얹힌 수평 성조 LH의 병치나, 아니면 기저상의 단모음에 얹힌 문자 그대로의 상승조나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 불만한 것이다. 더구나, §1.1에서 논의된 *sɒp*과 *təp*의 어휘 표시가, 병치설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의 자립 자립분절음 음운론의 주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병치설을 따르자면, 마땅히 L과 H가 병치되는 모음은 두 음절의  $V_iV_i$ 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15세기 한국어에는 모라에 의존하는 음운 현상은 없다.) 그러나 15세기 한국어의 상성이 L과 H의 병치가 아님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상성이 LH의 병치라는 주장은 15세기 한국어에서, 달리 장모음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상성이 놓이는 모음을 모두  $V_iV_i$ 의 장모음이라는 주장이 되며, 이 주장은 이번

에는 장모음은 모두 LH가 병치된다는 순환논법적(circular) 논의가 되는 만큼, 이 것만으로도 병치설을 부정하는 반론이 되기에 넉넉할 것이다.

둘째, 김완진(1977)에  $ka-a$ ,  $na-a-ka-n-mel$ ,  $ha-a$ 등의 예가 있다. 이

$\begin{array}{ccccccc} | & | & | & | & | & | & | \\ H & H & H & H & L & H & H \end{array}$

예들에서 동일한 모음이 반복되어 이음절을 이루는 것이 보인다. 그 당시의 표기 체계로 ‘·가·아’, ‘나·아간·물’, ‘하·아’로 기록되어, 동일한 모음을 포함하는 음절이 두번 반복되어 있다. 따라서, 상성이 LH의 병치라는 주장으로는, 상성이 놓이는 장모음도 꼭 같이 동일한 모음이 두번 반복되어  $V_i V_i$ , 즉  $tam-ko$  같은 것은 그 당시의 표기 체계로는 ‘다·암·고’로 표기되

$\begin{array}{ccccc} | & | & & | & | \\ L & H & & L & H \end{array}$

어, 병치의 LH가 놓이는 두 음절이 따로 따로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음절이,  $ka-a$ (·가·아)의 경우처럼, 뇌풀이되지 않고, 한번 표기된 것에 상성을 나타내는 두개의 방접이 찍혀 있다. 이 것은 상성이 놓이는 음절의 모음이 장모음이 아님을 입증해 준다.

셋째, 다음의 표면형들을 살펴 보자. ( $\rightarrow L$ 은 율동 규칙(41)의 적용 결과이다.)

(50) a.  $tit-\overset{\text{L}}{\underset{\text{L}}{\text{čap}}}-\overset{\text{H}}{\underset{\text{H}}{\text{ko}}}-\overset{\text{H}}{\underset{\text{H}}{\text{čyə}}}$       b.  $\overset{\text{H}}{\underset{\text{H}}{\text{o}}}-\overset{\text{H}}{\underset{\text{H}}{\text{az}}}-\overset{\text{H}}{\underset{\text{H}}{\text{tə}}}-\overset{\text{H}}{\underset{\text{H}}{\text{ni}}}$

위의 형들에서 어간 바로 다음의 접미사는 둘 다 어휘상의  $sas$ 의 이형태

$\begin{array}{c} \diagup \\ OH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들이다. 동일한 접미사 형태소가 성조로 인해서 (a) 형에서는 장모음의  $a-$

$\begin{array}{c} \diagup \\ L \end{array}$

$\begin{array}{c} \diagdown \\ H \end{array}$

여야 하며, 반면에 (b) 형에서는 단모음이어야 한다면, 이를 위해서 불합리한, 단모음화의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환경을 갖는, 단모음화 규칙이 필요할 것이다. 또 상승조 하강 규칙 (34)에 의해서  $tam-a \rightarrow tam-a$ 로 되는 경우

$\begin{array}{ccccc} & & & | & | \\ & & & L & H \end{array}$

도 같은 상황이다.

넷째, 활음 형성 규칙이나 모음 삭제 규칙에 의한 모음의 음절성 상실로 인한 자유 성조가 옆 모음에 연결되어 곡선 성조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15세기 한국어에 있어서의  $put^h yə - i \rightarrow put^h yə - y$ ,

$\begin{array}{ccccc} & & & | & | \\ & & & L & L \end{array}$

$\begin{array}{ccccc} & & & | & | \\ & & & H & L \end{array}$

$\begin{array}{c} \text{po-} \\ | \quad | \\ \text{L} \quad \text{H}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po-} \\ | \quad | \\ \text{L} \quad \text{L} \end{array}$   $\phi$ 도 같은 현상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LH의 병치설을 따르자면,

$\begin{array}{c} \text{put}^{\text{h}} \text{yə-} \\ | \quad | \quad | \quad | \\ \text{L} \quad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text{put}^{\text{h}} \text{yəə-y} \\ | \quad | \quad | \quad | \\ \text{L} \quad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음화의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환경을 갖는, 장모음화 규칙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위에서 언급된 모음의 음절성 상실로 인한 곡선조 형성에 대한 보편적 현상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위의 두 경우에서와 같이, 상승조의 성조가 관계되는 모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단·장모음화 규칙들이 설정되어야 한다면, 그 규칙들의 부자연스러움은 탓하지 않더라도, 이 것도 또한 순환논법적 논의가 되고 만다.

다섯째, 앞서의  $\begin{array}{c} \text{č u 1 i} \sim \text{č u 1 i} \\ | \quad | \quad | \quad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quad \text{H} \end{array}$ 와  $\begin{array}{c} \text{t u 1 h} \sim \text{t u 1 h} \\ | \quad | \quad | \quad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quad \text{H} \end{array}$ 를 예로 들어, 병치

설에 의하면, 상승의  $u$ 는  $\begin{array}{c} \text{u} \quad \text{u} \\ | \quad | \\ \text{L} \quad \text{H} \end{array}$ 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승조를 갖는

변이형은 모음 다음에서  $i$ 를 삭제하는 규칙의 적용 결과로 생긴 것인데, 공식적으로 15세기 한국어에서  $i$ -삭제 규칙의 적용 결과로  $i$ -삭제를 조건지은 모음이 장모음화하는 예를 볼 수 없다. 예컨대,  $ka-ini$ 가  $ka-\phi ni$ 로 되지,  $*kaa-\phi ni$ 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begin{array}{c} \text{č u 1 i} \\ | \quad | \quad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가  $\begin{array}{c} \text{č u u 1 i}, \text{t u 1 ho} \\ | \quad | \quad | \quad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quad \text{H} \end{array}$   $\begin{array}{c} \text{t u u 1 h} \\ | \quad | \quad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일 수는 없다.

고성 방언의 경우를 알아 보자. 정연찬(1977:21)에 따르면, “복합조를 저조와 고조의 병치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석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한다. 위의 15세기 한국어에서의 논의에서와 같이, 병치설을 주장하려면, 마땅히 저조와 고조가 병치되는 모음은 장모음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표면형의 예들을 살펴 보자.

(51) a.  $\begin{array}{c} \text{təp} - \text{tə-la} \\ | \quad | \quad | \quad |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quad \text{L} \end{array}$       b.  $\begin{array}{c} \text{təp-ə} \\ | \quad | \\ \text{H} \quad \text{L} \end{array}$

(b) 형은  $\begin{array}{c} \text{təp} - \text{ə} \\ | \quad | \\ \text{L} \quad \text{H} \end{array}$ 로부터 L-삭제 규칙(2.47)의 적용으로 얻어진 최종적인

형이다. 위의 인용의 취지에 따라, 만약 어간  $təp$ 의 어휘상의 표시가  $\begin{array}{c} \text{t} \quad \text{ə} \quad \text{p} \\ | \quad | \quad | \\ \text{O} \quad \text{H} \quad \text{H} \end{array}$

이고, 도출 과정에서  $t \quad \text{ə} \quad \text{ə} \quad p$ 이 된다면, (b) 형은  $t \quad \text{ə} \quad \text{ə} \quad p-\text{ə}$ 에서 부자연스레

$\begin{array}{c|c} | & | \\ L & H \end{array} \quad \begin{array}{c|c|c} | & | & | \\ L & H & L \end{array}$

운 단모음화 규칙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의 15세기 한국어에서의 셋째 논의와 같은 것이다. 더구나 LH가 병치되는 모음은 모두 장모음이고, 이 번에는 또 장모음에는 모두 LH가 병치된다면, 이도 또한 위에서의 첫째 논의와 꼭 같이 순환논법적 논의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고성 방언에서는 달리 장모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ka(去)*의 활용 변화형들  $ka - a$ ,  $ka - a - la$ 와 같이, 동일 모음이 겹칠 때에는 동일 모음

$\begin{array}{c|c|c|c} | & | & | & | \\ L & L & L & H \end{array} \quad L$

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그 겹모음에는 LH가 병치된다 해도 *təp*의 경우의 그 것과는 음성적으로 전혀 다르다. 이는 필자의 친주·친양 방언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정연찬(1977)도 “ $\check{\text{덥}}\text{더라}$ ”, ‘가아라’로 달리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반증이 제시된다. 정연찬(1977: 20)은 “복합조를 저고 병치로 해석하는데, 그 전반부가 단순한 저조보다 오히려 낮고, 그 후반부가 고조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바, 이 인용의 내용이 상승조가 LH의 병치가 아님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다. 병치라면,  $ka - a - la$

$\begin{array}{c|c|c} | & | & | \\ L & H & L \end{array}$

의 LH와  $t \quad \text{ə} \quad \text{ə} \quad p$ 의 그 것은 동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begin{array}{c|c} | & | \\ L & H \end{array}$

15세기 한국어와 관련해서, 훈민 정음 언해본에 “去聲은 뜻노푼 소리라. 上聲은 쳐새미 ॲ갑고 乃終이 노푼 소리라. 平聲은 뜻ॲ가忿 소리라.”는 설명이 있다. 만약 상성이 평성과 거성의 병치라면, 상성을 따로 구분해서 임여적인 풀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ॲ갑고’와 ‘뜻ॲ가忿’, ‘노푼’과 ‘뜻노푼’의 ‘뜻’의 유무가 상성이 LH의 병치가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바로 위의 정연찬(1977)에서의 인용이 지적하듯이, 상승조의 LH와  $ka - a - la$

$\begin{array}{c|c|c} | & | & | \\ L & H & L \end{array}$

의 경우에서의 LH는 음성적으로 다르다. 이 다름은 표면 성조가 최종적으로 도출된 후에 음성 규칙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15세기 한국어에서의 상성의 문제도 꼭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훈민 정음 언해본의 인용에서와

같이,  $\overset{\wedge}{L} \quad H$ 와 LH와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의 모음은 기저상으로는 단모음이어야 하지만, 예컨대, 영어에서의 *bid : bit*에서의 *i*가 그 환경에 의해서 음성체

으로 차이가 있듯이, 이 상승조가 놓이는 모음은 그 상승조나 또는 다른 조건으로 해서 음성적으로 다른 모음보다 길게 발음될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 참 조 문 헌

- 김완진 (1977) 중세 국어 성조의 연구, 국어학회, 탑 출판사, 서울.
- 이기문 (1972) 국어 음운사 연구, 한국 문화 연구소.
- 이병건 (1982) ‘중세 한국어에 있어서의 하나의 음소 배열 제약,’ 어학 교육 제12집, 전남 대학교 어학 연구소.
- \_\_\_\_\_ (1985) ‘모음 조화의 특성,’ 인문 논총 제15집, 서울 대학교 인문 과 학 연구소.
- 정연찬 (1977) 경상도 방언 성조 연구, 국어학회, 탑 출판사, 서울.
- 허웅 (1963) 중세 국어 연구, 정음사, 서울.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Clements, G. N. (1980) *Vowel Harmony in Nonlinear Generative Phonology: An Autosegmental Model*,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Clements, G. N. and K. Ford (1979) ‘Kikuyu Tone Shift and its Synchronic Consequences,’ *Linguistic Inquiry* 10, 179-210.
- Goldsmith, J. (1974) English as a Tone Language, Ms., MIT [Later published in *Communication and Cognition* 1977, and *Phonology in the 1980's*, ed. by D. Goyvaerts.]
- \_\_\_\_\_ (1976) *Autosegmental Phonolog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Published by Garland Press, 1979.]
- \_\_\_\_\_ (1981a) *Towards an Autosegmental Theory of Accent: The Case of Tonga*,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_\_\_\_\_ (1981b) ‘English as a Tone Language,’ in D. Goyvaerts, ed., *Phonology in the 1980's.*, Gent.
- Halle, M. and J. R. Vergnaud (1982) ‘On the Framework of Autosegmental Phonology,’ in H. van der Hulst and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 Dordrecht: Foris.
- Haraguchi, S. (1977) *The Tone Pattern of Japanese: An Autosegmental Theory of Tonology*, Tokyo: Kaitakusha.
- Hayes, B. (1981) *A Metrical Theory of Stress Rules*, MIT Doctoral dissertation. Revised version distributed by the Indiana University

- Linguistics Club.
- Hulst, H. van der and N. Smith (1982) 'An Overview of Autosegmental and Metrical Phonology,' in H. van der Hulst and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 Dordrecht: Foris.
- Hyman, L. M. (1982a) 'The Representation of Nasality in Gokana,' in H. van der Hulst and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 Dordrecht: Foris.
- \_\_\_\_\_. (1982b) Globality and the Accentual Analysis of Luganda Tone, Ms., USC.
- \_\_\_\_\_. (1982c) Against Asterisks in Luganda and Bantu Tonology: A Reply to Hyman(1982b), Ms., USC.
- Kiparsky, P. (1968=1973) *How Abstract is Phonolog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Also in Fujimura(1973).
- Leben, W. (1973) *Suprasegmental Phonolog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_\_\_\_\_. (1982) 'Metrical or Autosegmental,' in H. van der Hulst and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 Dordrecht: Foris.
- Lee, S.O. (1978) Middle Korean Tonology. University of Illinois Doctoral dissertation.
- Liberman, M. and A. Prince (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8, 249-336.
- McCawley, J. D. (1968) *The Phonological Component of a Grammar of Japanese*, The Hague: Mouton.
- Odden, D. (1980) 'Associative Tone in Shona,' *Journal of Linguistic Research* 1, 37-53.
- Poser, W. J. (198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Tone and Intonation in Japanese. MIT Doctoral dissertation.
- Prince, A. S. (1983) 'Relating to the Grid,' *Linguistic Inquiry* 14, 19-100.
- Pulleyblank, D. G. (1983) Tone in Lexical Phonology. MIT Doctoral dissertation.
- Williams, E. (1976) 'Underlying Tone in Margi and Igbo,' *Linguistic Inquiry* 7.

## ABSTRACT

### Auto-Autosegmental Phonology

Byung-Gun Lee

This study is an attempt toward a revised theory of Autosegmental Phonology the typical models of which are put forward in Goldsmith(1976) and Haraguchi(1977). In the approach taken here the autosegmental tier is represented as a sequence of slots associated in a one-to-one fashion with the P-bearing units on the segmental tier. As for tonal autosegments, a slot filled with a tone is represented by H or L, and an empty one by OH. A single Tone-bearing unit (TBU) may be associated with more than one slot, but not vice versa. A derivation within this model is illustrated with an example from the Tokyo dialect of Japanese (cf. Haraguchi 1977) :

(1) a t a m a- mad e	'head+even'
OH OH H HOH	Underlying Representation
OH	H-Erasure
L	Polarity Tone Assignment (6. a. i)
H    H          L	Autosegment Spreading(8)
L	Initial Lowering Rule(3)
L    H    H · L L	Surface Representation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 presented here is supported by abundant evidence drawn from a number of languages, especially from the Kosung dialect of Korean and the 15th-century Korean; and it is shown that it entails the literal independence of the autosegmental tier. For instance, in the model which allows one single tone to be linked with more than one TBU, Initial Lowering Rule which applies in deriving surface forms like the one in (1) should be stated as in (2), as is the case with Haraguchi (1977).

$$(2) \begin{array}{c} VC_0V \\ \diagdown \quad \diagup \\ H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VC_0V \\ | \quad | \\ L \quad H \end{array} / \# \# \ C_0 \_\_$$

Within the framework of A(uto)-A(utosegmental) Phonology, however, it is formulated as in:

$$(3) H \rightarrow L / \# \# \_\_ H$$

As is clearly seen, this rule refers only to the tonal tier independently of the segmental one. Tone rules may be stated in as simple and independent a manner as this, and even in case they must refer to the segmental tier, the reference will be remarkably simpler.

Tone languages are classified typologically as core-tone languages (formerly pitch-accent languages) and non-core-tone languages (formerly true tone languages). The former need universal Polarity Tone Assignment stated as in:

$$(4) OH \rightarrow -\alpha T \% \alpha T \_\_$$

The environment  $\alpha T$  is the core tone, which is either lexical or assigned by rule. This rule is expanded into the following subrules:

$$(5) a. OH \rightarrow -\alpha T / \alpha T \_\_$$

$$b. OH \rightarrow -\alpha T / \_\_ \alpha T$$

These in turn are expanded into the following:

$$(6) a. i. OH \rightarrow L / H \_\_ \quad ii. OH \rightarrow H / L \_\_$$

$$b. i. OH \rightarrow L / \_\_ H \quad ii. OH \rightarrow H / \_\_ L$$

The Kosung dialect described in §2 requires rules (6.a.i.) and (6.b.i.). As is exemplified in (1), Japanese dialects employ either rule (6.a.i) alone or both rule (6.a.i) and rule (6.b.i) (cf. Haraguchi 1977). And rule (6.b.ii) is operative in Tonga (cf. Goldsmith 1981a).

On the other hand, among non-core-tone languages are Chinese, the 15th-century Korean described in §3, Mende (cf. Leben 1973 and Goldsmith 1976), Margi (cf. Williams 1976), and Kikuyu (cf. Clements and Ford 1979). In place of Polarity Tone Assignment (4), non-core-tone languages adopt universal Tone Mapping Rule (7), to which language-particular condition may be added.

- (7) Assign a tone from the Basic Tone Melody to each OH in a one-to-one fashion from left to right.

Polarity Tone Assignment (4) and Tone Mapping Rule (7) alike feed universal Autosegment Spreading (8), which may also be qualified by language-particular condition.

- (8) Spread  $\alpha$ ,

where  $\alpha$ =the feature(s) of autosegment

As in Hyman (1982 b,c), Poser(1983) and Pulleyblank(1983), the diacritic use of the abstract accent marker is abandoned in favor of the lexically linked core tone. And the device of default rules proposed in Pulleyblank(1983) is shown to be untenable.

Lastly, the tone systems of the Kosung dialect and the 15th-century Korean are extensively analyzed to serve as sources which provide evidence in support of the revised model of A-A Phonology and as its testing grounds.

15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접수: 1987. 2. 12)